

꿈의 세계무대를 향한 드림

발 간 사

특성화고·마이스터고가 취업중심의 고교 직업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보해 가는 상황에서 대졸자들도 선망하는 꿈의 기업에 우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당당하게 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학력중시 풍토에서 많은 기업들이 학력 차별을 철폐하고 고졸 채용을 적극 늘리는 등 인재 채용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능력중심사회에서 고졸 근로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졸 근로자보다 높은 현장 직무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대외 환경에서는 국가 간 상품·서비스의 이동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인력의 이동 역시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효율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졸 근로자의 어학 및 문화이해 등 글로벌 역량에 대한 필요성 역시 대졸자의 수준 못지않게 높아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글로벌 역량과 해외 기업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1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전담기관으로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 사업단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년차를 맞이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취지와 긍정적인 성과를 폭넓게 확산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과 함께 글로벌 인재의 성공신화를 써 나가는 감동 스토리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직무 전문성이 글로벌 역량과 결합되어 그 시너지가 극대화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기집이 무지갯빛 희망의 바람개비를 돌리는 많은 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 앞으로 고졸인재들이 용기를 갖고 새로운 미래를 꿈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 영 범

목 차

[금상작]

김아영(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 『Global Zoe Cooking Book』 3
- 김 훈(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교사)
 - 『12명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15
- Sheila Maloney (Zero-One Studio, 실습기관)
 - 『Superb, Zoe!』 15

[은상작]

김유영(전라남도교육청-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 『꿈을 위한 한 발자국, BONNIE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19
- 조은정(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교사)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진가를 발견하다!』 31
- 김지연(주)에듀비전
 - 『굳은 의지의 승리!』 31

박현주, 정승환, 추유진(영락유헬스고등학교)

- 『영상물 : u-Health 전문가의 꿈을 안고 세계로!』 33
- 장희선(영락유헬스고등학교 추유진 학부모)
 - 『딸아, 잊지 마라!』 34
- Gregory Cunningham(GE Healthcare, 실습기관)
 - 『GE Healthcare,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보호의 새 장을 열어가는 다국적기업』 34

[동상작]

김은지, 이다현, 한승연(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 『영상물 : 86 Days in London』 37
- 한경애(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한승연 학부모)
 - 『승연이의 비상(非常)』 38
- Everett Scott (Zero-One Studio, 실습기관)
 - 『To Dedicated Dora』 38

전용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 『세계로 향한 꿈과 인생이 바뀐 사죄』 39
- 김용태(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운 전용현!』 48
- 쿠시바 토모오(草場 智夫)(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실습기관)
 - 『2013 글로벌 현장학습』 48

이용진(동아공업고등학교)

- 『타이어 기술자의 꿈! 중국 칭다오에서 이루다.』 49
- 민경록(동아공업고등학교 교사)
 - 『글로벌 체험학습』 58
- 박 철(中國靑島耐克森輪 胎有限公司, 실습기관)
 - 『한국의 앞선 교육 프로그램』 58

양유림, 신보라, 김나라(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 『영상물 : 우리들의 무한도전』 59
- 최명옥(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60
- Lim Pung Ching(Sunway Group, 실습기관)
 - 『Oh~ My Wonder Girls』 60

[장려상작]

김태호(대전광역시교육청-계룡공업고등학교)

- 『영상물 : 12주간의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 63
- 김성민(경덕공업고등학교 교사)
 - 『글로벌 체험학습 인솔교사로 다녀와서』 64
- Andrew(Groove Yard, 실습기관)
 - 『GROOVE YARD』 64

박석준(전라남도교육청-순천효산고등학교)

- 『꿈을 향한 나의 첫 발걸음』 65
- 박재천(순천효산고등학교 박석준 학부모)
 - 『아빠, 저 캐나다 갈 거예요.』 77
- 이상호(브런치마켓, 취업기관)
 - 『박석준~~ 화이팅!!!!』 77

김도현(서울디지털대학교)

『인도 체험기』 79

- 송창용(서울디지털대학교 교사)
『글로벌 현장학습과 함께한 2013년』 87
- Paarul Sood(L&T Infotech Ltd., 실습기관)
『IT relation with strengthen more between Korea & India』 87

함종완(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그땐 그랬지..』 89

- 류문형(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사)
『2013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인솔 교사로 다녀와서...』 101
- 조경화(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함종완 학부모)
『특별한 경험』 101

고제복(유한공업고등학교)

『영상물 : 가자! 미지의 세계로 꿈을 향해』 103

- 김홍기(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꿈을 믿고 따라준 아들들아!』 104
- 옥연숙(상주대모기계유한공사, 실습기관)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사랑하는 후배들아 큰 꿈을 갖자!』 104

윤준식, 김수한, 강호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영상물 : 남과 다른 나의 꿈, 나의 선택』 105

- 한현철(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소중한 기록』 106
- 쿠시바 토모오(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실습기관)
『2013 글로벌 현장학습』 106

이정근(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만남 그리고 이별의 순간』 107

- 김세영(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체험학습 인솔교사로 다녀와서』 120
- 조종혁(와이지원, 실습기관)
『대기업마저 도전 않던 ‘엔드밀’ 30년 한우물...워런 버핏도 반한 1등 기술』 120

김지수(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글로벌 체험학습 체험수기』 121
- 김대현(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 『긍정의 말 한마디와 수용의 자세』 128
- 김태준(㈜삼광, 실습기관)
 - 『학생들의 대단한 열정』 128

김서현(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3달, 12주, 85일, 2040시간』 129
- 정매자(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김서현 학부모)
 - 『큰 가르침을 준 딸들의 도전』 145
- Lim Pung Ching(Sunway Group, 실습기관)
 - 『SUNWAY』 145

임진솔, 장하영(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 『영상물 : My Dream!』 147
- 우청화(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교사)
 - 『진솔아! 장하다!』 148
- Bill Shuck(Brisbane Racing Club, 실습기관)
 - 『About a girl with courteous nature and work ethic』 148

※ 영상물 우수작은 별도 CD자료에 수록



- **Global Zoe Cooking Book**
미림여자정보고등학교 김아영

금상작

Global Zoe Cooking Book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 과 : 인터랙티브미디어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아영(Zoe Kim)

이 요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2013년,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적응력이 빠른 편이라 학교 입학 후 처음 배워보는 전공인 컴퓨터 언어와 프로그래밍을 상대적으로 쉽게 익혔습니다. 덕분에 높은 성적도 유지했고 1학년 말 삼성전자로 조기취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고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못할까 봐’가 아니었습니다. 즐길 수 없을까 봐, 웃으면서 하지 못할까 봐, 결국 웃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사실 큰 스트레스와 고민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꽤나 저를 힘들게 했고, 그때에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추진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아갈 이유,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를 새로운 곳에서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1) 재료 준비

영국으로 떠나기 전, 즉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재료 손질은 선생님에게도 학생들에게도 힘든 작업이었지만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견뎌내야만 했던 시간이었지요. 2년 동안 학교 선배님들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지켜봐왔던 우리 학년에게도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던 때는 2012년 12월. 글로벌 현장학습에 대하여 익히 들어왔던 저희는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려 84명의 친구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재료로 쓰일 수 있는 학생 수에는 한계가 있었고,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뽑히길 바라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 선생님들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26명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8명의 친구들과 함께 겨울방학 2주 동안 BTEC(영국 고등교육 학력 인증제) Level 3: Unit 1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은 매년 저희 학교와 함께 영국 현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WKC (Westminster Kingsway College)의 David Jenkins 선생님과 Sheila



Maloney 선생님, 그리고 윤성웅 선생님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Unit 1의 최종 과제는 Sci-Fi TV 채널에서 방영될 신규 프로그램의 오프닝 시퀀스를 제작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작 플랜을 짜는 것으로, 일명 Pre-Production(사전 제작)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직접 해보는 것이 Unit 1의 내용이었습니다. 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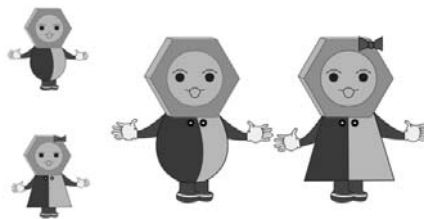
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을 간절히 소망하였기에 포기하지 않고 저를 비롯한 58명의 친구들은 과제로 밤을 새어가며 열심히 하였고 마침내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무사히 수료하였습니다.

그렇게 겨울 방학이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APTIS(영국 문화원이 개발한 기업 및 기관 대상 영어능력 진단평가시험)라는 영어시험 응시였고, 두 번째는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신청서 작성이었습니다.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58명 중 30명의 친구들이 최종 재료 준비 단계인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을 통해 제가 얼마나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대상자로 선발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면접관 분들께 설명했고 다행히 저의 진심이 잘 통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11명의 다른 친구들도 각자만의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대상자로 선발되었고 마침내 모든 재료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2) 재료 손질

재료가 쓰이기 위해서는 요리에 맞게 잘게 썰리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물에 데쳐지기도 합니다. 제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되기까지 많은 과정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글로벌 Zoe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요리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2명의 파견대상자들은 영국에 가서 해야 할 프로젝트에 대비하기 위해 2013년 7월 21일부터 5일간 합숙을 하며 따로 디자인 공부를 하였습니다. 디자인 수업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던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생각보다 아주 흥미로웠던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포스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일이라서 그랬는지 수업도 즐거웠고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숙이 끝나자마자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삼성전자 인턴십에 참여하였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준비와 인턴십 둘 중 하나에 치우쳐서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다른 친구들과보다 두 배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인턴십을 마치고 두 번째 참여했던 합숙에서는 웹 표준화를 공부하였습니다. 웹 표준을 배운 후 웹 코딩 작업을

하고 서버와의 통신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지난 합숙 보다는 전공과 훨씬 가깝던 내용의 수업이어서 집중력을 더 높여 수업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에서의 총 열흘간 했던 합숙 교육은 훌륭한 산업계 명장님들과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있어 또 다른 중요 요소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국 문화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의 수업은 깊은 여운을 남겼고 영국에서 생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손질 작업이었습니다. 2주 동안 영국 문화원으로 수업을 받으러 다니면서 영어 수업, 영국의 유명지역부터 다양한 축제까지 영국을 ‘미리 보기’ 한 후,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재료 점점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월 11일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출국을 한 것입니다.



3) 볶기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지요. 첫 요리 순서는 바로 다양한 나라에서 나온 재료와 함께 볶기였습니다. 볶는 과정의 목적은 모든 재료마다 자신의 고유한 향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와도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볶을 다양한 나라에서 나온 재료들을 만난 것은 학교에서였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영국, 런던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산업안전교육과 홈스테이 생활 등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후 우리들은 WKC 소호 센터에서 영어 수업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어 수업은 우리 12명의 친구들과만 모여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반이 나뉘어졌고 각 반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닌 각 나라에서 온 많은 학생들이 우리처럼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와있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걱정이 앞

졌습니다. ‘소외받지는 않을까?’, ‘어울리지 못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동양인이라고 인종 차별을 받지는 않을까?’ 등 여러 고민을 안고 첫 수업에 들어가던 날, 저는 아직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 같은 반으로 배정받았던 승연(Dora), 수빈(Sophia), 서연(Jenny),



은지(Amy)와 함께 교실에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한 남학생이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셔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친구는 카자흐스탄에서 온 Vladimir 라는 친구였습니다. 덧붙이자면 Vladimir는 시간이 지나 요리에 있어서 특히나 잘 어울리는 재료였습니다. 사실 처음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느낀 것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우리에게 영국 사람의 영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카자흐스탄 친구의 영어 속엔 카자흐스탄 억양과 발음이 남아있어서 더욱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인 건, 그 친구도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저희들처럼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실력이 우리들과 비등비등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약 스무 명 정도 되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놀라울 정도로 재미있는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받던 영어 수업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사소통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상황극과 같이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지루할 틈이 없었고 더 나아가 친구들과도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어색하고 서먹했던 분위기가 함께 수업을 들으며 여러 활동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보니 어느새 많이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만약 한 반에 우리 12명끼리만 놓여 있었다면 이렇게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서로 다른 국적을 가졌기에 상대방의 나라 또는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를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과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자신의 언어가 아닌 영어로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새삼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을 안겨준 친구들과 언제나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신 담임선생님 이셨던 Cathy 선생님과 Octavia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영어 수업 중 오전에는 그렇게 각색의 재료들과 볶아지다가 오후 수업에는 다시 우리 12명이 푹푹 뭉쳐 지곤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Fiona 선생님, Shahla 선생님과 함께 영어 수업이 아닌 ‘영국 문화수업 및 직업 영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교실 안에서 책과 종이를 붙들고 하는 수업이 아닌 직접 밖으로 나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영국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수업 시간이 매우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영국 역사가 남아있는 학교 주변을 산책하기도 하였고, 왕실 역사를 담고 있는 갤러리에 다녀오기도 하고, 영국의 생활양식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던 박물관 등에 다녀왔습니다. 또 취업이 목적인 마이스터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직업 및 업무와 관련된 유용한 어휘, 구문, 표현을 배웠습니다. 나의 꿈을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구체화하면서 완성 요리인 글로벌 Zoe를 스케치하였습니다. 어떻게 영어 수업이 한시도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바로 위와 같은 이유



였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4주 간 정들었던 소호 영어교육 캠퍼스를 떠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떠날 때에는 한국에서 준비해 온 작은 선물과 편지에 마음을 담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훌륭한 학생들이었고, 남은 시간 동안 영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업을 하게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준별 수업을 함께 들었던 다른 친구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우린 특별한 인연이었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 될 확률, 수많은 나라들 중 영국에 오게 될 확률, WKC에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확률, 그 중 또 같은 반이 될 확률을 모두 고려해 본다면 각국에서 온 멋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원한 안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글로벌한 그릇이 되어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지금,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빛내는 큰 인물이 되어 저의 안부를 멋지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4) 굵기

굵기는 말 그대로 뜨거운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굵는 과정이 메인이 되기도 하여 구운 후에야 비로소 완성 요리의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됩니다. 저희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의 뉴미디어 전공 분야로 국가대표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직무교육과 전공실습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7주 동안의 직무교육은 웹 제작과 모션 그래픽에 관한 BTEC 자격증 이론교육이었습니다. 웹 제작은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학과의 학생들이 유리했고 모션 그래픽 수업은 디자인을 배우는 친구들에게 수월했습니다.

이론을 배운 후 프로젝트 실습은 영국 웹에이전시 회사인 Zero-One Studio에서 7주간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업무 실습은 우리들이 일단 회사의 인턴으로 고용된 상황에서 다음 인턴들에게 안내할 ‘Common Web Coding Protocols’를 설명할 Information Sheet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Web Protocols를 이해하고 후배 인턴들에게 정의, 사용법, 예시, 고려사항 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 했기에 관련 리서치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온갖 전문 용어가 가득한 Sheet를 영어로 작성해야 해서 더 어려운 작업이었지요. 저희는 약 2주간 밤낮으로 리서치(문헌 조사, 자료 조사, 자료 정리, 데이터 제작 등)를 하며 과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Information Sheet 형식으로 잘 정리하여 저희 12명 개개인의 웹 블로그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때마다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꾸준히 업로드를 시켜놓았기에 자격증 과정을 위해 기울인 피나는 노력들이 엿보이는 블로그입니다.

두 번째 웹 제작 실습은 실무에 더욱 가까웠습니다. 처음 실습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이어서 Everett Scott이라는 매니저분과 함께 직접 웹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안, 디자인, 기능 구현까지 모두 12명이 스스로의 힘으로 12개의 웹 사이트가 만들어져야 했던 것이지요. 웹 사이트의 목적은 학업을 위해 다양한 나라에서 런던으로 오는 학생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런던의 생활·교육·문화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일주일간 각자의 웹 사이트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컨셉, 목적, 타겟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부터 제작 후에 웹 사이트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와 어떻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지 까지 모든 것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웹 사이트에 있어 가장 기본인 동시에 중요한 계획인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웹 사이트의 정보 구조, 메인 컬러, 레이아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초기 플랜에 맞추어 시간 계획, 사이트 맵, 와이어 프레임, 무드 보드, 스토리 보드를 순서대로 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개발자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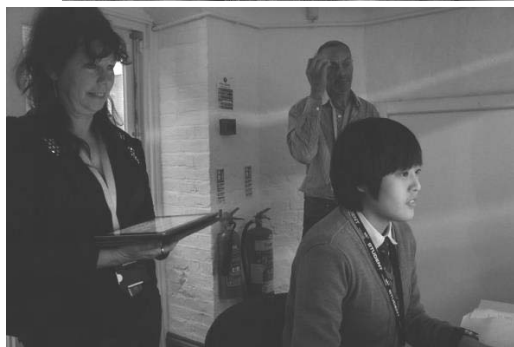
서 어쩌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었던 기획을 직접 해보니 실제 기능 구현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까지의 작업도 적지 않은 시간과 신중함을 요구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획 초안을 완성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구상한 웹사이트를 어필 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들께 받은 피드백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12명의 웹 사이트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어서 독창성과 실용성이 부족하고 모두 평범하고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색깔이 담긴 웹 사이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오

랜 고민 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마침내 모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하나 같이 독특한 사이트 컨셉을 잡아내었습니다. 저는 유익함을 주고자 생활비, 교육비, 문화비를 절약할 수 있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웹 사이트 ‘London & Cheaps’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플랜을 짜 놓았던 터라 컨셉을 수정하니 거의 모든 계획을 해당 컨셉에 맞춰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유용한 웹 사이트를 만들어보겠다는 욕심 하나로 그것을 해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온도를 높여서 더 뜨겁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웹사이트 개발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획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남은 일은 일정표에 맞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작업들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웹 사이트의 디자인부터 콘텐츠 구성, 웹 코딩 작업과 사이트 최적화까지 하나하나 우리의 손을 거쳐야 탄생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웹사이트는 각자의 개성을 담아 스스로 개발하지만 디자인과와 프로그래밍과 친구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웹 사이트의 틀인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색다르게 하기 위해 보통 상단에 위치하는 사이드 바를 좌측에 위치시키고, 콘텐츠가 남은 부분을 차지하도록 디자인



하였기에 그에 맞추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의 콘텐츠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한 다음 마침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그것을 사진, 동영상, 슬라이드쇼 형식의 정보로 가공했습니다. 텍스트만 잔뜩 있는 웹 사이트는 분명 지루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갖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공된 정보들을 소스 코드와 잘 합치고 서버에 올리자, 마침내 ‘London & Cheaps’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웹사이트로 매니저 분들께 기능 설명

명을 해드렸는데 구현한 기능이 잘 작동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매니저 분들도 작동하는 것을 보시고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때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구워지는 시간 동안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포기할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영국에 와서 수업 들었다는 좋은 경험을 쌓은 것만으로 만족하자’, ‘그까짓 자격증 못 받으면 어때?’ 하는 나쁜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할 때 즈음, 아무리 포기할까 고민을 해도 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내와 고통의 시간 끝해야 비로소 제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절 믿어주시고 이렇게나 값진 기회를

갖게 해주셨을 수많은 감사한 분들이 떠올라 마음 다잡고 다시 매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한층 성숙해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모션 그래픽 과정도 웹 제작 과정과 동시에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과제에 대한 부담이 더 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두 배로 노력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매니저인 David 선생님께서는 다시 만난 저희들에게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되어 영국에 온 것을 축하해주시면서 반가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David 선생님께서는 인사를 나눈 후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모션 그래픽 과정에 대한 소개와 최종 실습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이 과정은 사실 디자인과 친구들에게 좀 더 가깝고 수월하게 느껴졌을 과목이었고, 저는 그럴수록 더 집중하여 실습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본 과정의 최종 실습은 모션 그래픽의 좋은 예를 6가지 미디어 분야별로 각각 하나씩 찾아내어 정리하고 분석하여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회사 매니저에게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선 모션 그래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프로그래밍 전공 학생들에게 모션 그래픽이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했지만 배우면서 색다른 재미를 느꼈습니다. 웹 제작 실습과 마찬가지로 이론 수업이 있기도 했지만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로 정리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론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웹 블로그에 예시와 함께 업로드를 시키면 이론 과제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모션 그래픽의 예를 찾는 것은 따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나, TV를 볼 때 등 일상 속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그것들을 찾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또한 찾을 때 마다 웹 블로그에 업로드를 시켰습니다. 발표 때에 쓸 예시들을 모두 준비하고 나서도 좋은 예를 발견하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꼭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우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발표를 할 때에도 ‘내 발표만 잘하자’ 라는 마음이 들기 보다는 다른 친구들의 발표에도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을까’와 ‘친구들의 예시에는 어떤 재미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을까’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12명 모두 무사히 발표를 마치자 David 매니저께서는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작은 것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던 David 매니저께서는 우리를 다른 실습과정에 참여한 영국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셨고, 우리가 매니저와

함께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자신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성실한 한국 실습생들이라면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매니저께 특히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David 매니저의 저희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에 12명을 모두 무사히 실습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7주간의 뜨거웠던 굵기가 마무리 되고,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영어 교육 선생님들과 제로원 스튜디오 실습 관계자 분들, 직무 교육 선생님과 그 간의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담당해주셨던 WKC 국제교류부 장승은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을 모두 모셔서 2회에 걸쳐 영어교육과 실습에 관한 종합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초기 5주 동안 받은 영어 수업 결과물과 후기 7주간 제작한 웹 사이트와 모션 그래픽을 발표하였고 모든 분들께서는 마지막으로 덕담과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히 12주간의 수업과 실습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우리에게 여쭙어 보셨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서 수업이 인상 깊었고 유익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며 정말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발 되어 오게 될 후배들을 위해 거의 모두 완벽했지만 조금이나마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



에서 더 높은 질의 수업과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평가회가 끝나고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회식에 나섰습니다. 선생님들과 수업이 아닌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불같았던 12주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문화와 사고방식 자체가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보니 교육과 실습 방식도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개 ‘결과’ 자체를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영국에서는 결과보다는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바로 웹 블로그를 중시하시는 선생님과 매니저들의 모습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프로젝트에 있어 작은 한 단계라도 진전이 있었을 때에 블로그에 포스트를 꼭 하라고 하셨는데 그 때에는 자신이 세웠던 계획에 맞게 잘 지켰는지 혹은 잘 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과 매니저 분들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육과 실습에 임했는지가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겠지요. 저 또한 결과물의 질이나 외관으로만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결과보다는 과정

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무 능력까지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어를 듣는 귀가 뚫리고 의사 표현이 확실해졌으며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복기와 굶기를 겪고 나자 제 스스로 몰라보게 성장하였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5) 튀기기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곳에서의 적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개월 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의 매 순간은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의 주 내용으로는 현장에서의 실무 체험이 될 수도 있지만 얻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위해 떠난 것이지만, 영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일상 속에서 공부보다 더 값진 경험과 전문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18년 동안 해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는 출국 전부터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쉬는 것조차 즐거울 정도로 주위의 모든 것이 와 닿았습니다. 사람들, 건물, 음식, 하늘, 그 속을 수놓은 별들, 버스, 향기 등 말 그대로 ‘모든’ 것이요. 이후로는 영국에 완전히 묻혀서 툭툭 튀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영국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던 곳은 홈스테이였습니다. 런던의 바깥쪽에 위치한 Orpington 이라는 지역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저희 12명은 영국에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도희(Doris)라는 친구와 같은 집에서 머물렀는데, 도착한 첫 날에 홈스테이 부모님께서 마중을 나오셔서 부모님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보니 차 안에서의 어색한 공기로 인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끈끈해졌습니다. 영국의 어머님도 아버님도 친자식처럼 대해주시고 저희도 잘 따르니까 자연스럽게 서로가 편해졌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 관한 이야기, 옛날이야기, 때로는 한국 얘기도 소소하지만 매일 같이 나누며 우리와 다른 문화와 사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다른 홈스테이 집과는 다르게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세계의 음식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행복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쓰시는 돈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아프거나 힘들어할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WKC 선생님과 함께 했던 기업체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례로 BBC 기업체험이 있었는데 BBC는 영국 최대의 방송사로 라디오, TV 분야에서 앞장서는 곳입니다. 그곳을 모를 리 없었던 저희는 BBC 기업체험이 매우 기대가 되었습니다. 견학을 시작하자 실제 뉴스



를 촬영하는 스튜디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 등 많은 곳을 둘러본 뒤 BBC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 오래 전부터 방송 산업에 기여를 해왔던 회사였지요. 신기했던 건 영국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아직도 흥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거의 멸종되었다고 하는 이 라디오 드라마는 말 그대로 소리만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

으로, 실제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라디오 부스 안에 소품들로 소리를 내고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투어 담당자 분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해보라며 대본과 함께 짧은 드라마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음향 효과를 맡아서, 뽀뽀 소리를 손등에 제 입술을 문대며 소리를 내어봤습니다. 독특하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런던의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앉아 밥을 먹는 것도, 비가와도 그냥 맞고 다니는 여유로움도, 달리는 기차 안에서 열심히 스도쿠를 풀던 것도, “Sorry”와 “Thank you”를 입에 달고 사는 것도 전부 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떠날 때에 마치 고향을 떠나는 사람처럼 더 큰 아쉬움과 미련이 남았을 지도 모릅니다. 더 좋았던 것은 런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영국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파견교사인 윤성웅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런던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로만 바쓰,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 견학 등 그 때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을 느꼈습니다.

6) 요리가 끝난 후

마침내 3개월이 지나고 한국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보이는 엄마와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맺혔지만 이내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다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진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겠지요. 도착 후 처음 2주간은 한국에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고 얼떨떨했는데 적응이 된 후에야 영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주마등처럼 3개월을 떠올리곤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은 추억, 좋은 기억, 좋은 경험, 좋은 공부.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기를 쓰면서 가만히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깝도록 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시켰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원하니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니 그를 향해서 가야 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저에게 새로운 목적지가 생겼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문득, 그룹 에

픽하이의 멤버인 타블로의 노래 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마치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말라고, 눈앞에 펼쳐진 길을 보라고.

아직은 채워야 할 빈 공책이 많아.
 챙겨야 할 형 동생이 많아.
 묻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아.
 듣지 못한 답이 남았잖아.

- Tablo의 '고마운 숨' 中 -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오고 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인내와 성장의 시간을 겪고 나니 새로운 목적지를 찾았고, 그 곳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된 제 자신까지 발견하였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마음가짐과 그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돌아온 것입니다. 글로벌 Zoe 요리를 완성시키기까지 1년이라는 조리 기간이 걸렸고,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여러 난관들을 헤쳐 와야 했었지만 그 시간들은 저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선발이라는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선발 해주신 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예전 일상대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제 자신만이 영국에서 성장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한 때는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선발 경쟁자였던 친구들에게, 다음 차례를 기다릴 가능성의 존재인 후배들에게, 우리들을 믿고 선발해주신 교육부와 직능원 관계자 분들과 학교 선생님들께, 3개월 간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잊지 않고 글로벌 Zoe가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명의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부 서 : 인터랙티브미디어과 교사
성 명 : 김 훈

아빠는 아영이가 11명의 또 다른 딸들과 함께 영국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단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으로 활짝 웃으며 들어가는 너희와는 달리 밖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은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더구나. 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여 돌아오리라 믿었기에 허전하고 먹먹한 마음을 추스르며 집으로 돌아갔단다.

글로벌 현장학습 하이파이브 커뮤니티를 통해 매일의 일상과 학습과정을 글과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딸들과 소통할 수 있었지. 하루에도 몇 번씩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딸들의 글들을 확인하고 아빠가 올린 글에 딸들이 댓글을 달아주면 왠지 뿌듯함을 느끼곤 했단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딸들이 너무 바빠 쉽게 하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표현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았어.

한국으로 돌아온 아영이를 보며 아빠가 느끼는 딸은 분명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거야. 어렵고 힘든 관문을 통과하여 인생의 큰 힘이 될 현장 학습을 다녀온 12명의 딸들, 정말로 수고 많았어. 그리고 이번 현장학습이 너희들에게는 사회에 나아가서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해. 모두들 사랑한다!

Superb, Zoe!

기업명 : Zero-One Studio
부 서 : 웹사이트 개발
성 명 : Sheila Maloney

Zoe has worked hard and has produced a really interesting website that is very individual. Although she does not specialise in design she came up with some creative ideas for her site that really worked. She also took a lead in helping the class with translations from English to Korean that certainly helped me out when explaining aspects of the task. She was working outside her usual area of expertise but persevered to produce a successful website both technically and creatively, well done and excellent job!

Zoe has proved herself to be a resourceful, hardworking and committed student. She has focused hard on her studies in class and has shown a capacity to learn independently and to research effectively without supervision. Her attitude and manners have been exemplary. Her work has been of a consistently high standard. A future employer will be very fortunate to have her.



은상작

- **꿈을 위한 한 발자국, BONNIE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김유영
- **영상물 : u-Health 전문가의 꿈을 안고 세계로!**
영락유헬스고등학교 박현주, 정승환, 추유진

은상작

꿈을 위한 한 발자국, BONNIE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학교명 :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학 과 : 조리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유영

고등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나이에 나는 캐나다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었다. 사실 1년 전 같은 학교 선배님들이 참여했던 프로그램인데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써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꼭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프로그램이었다. 혹시나 모를 기회를 대비해 2년 동안 매일 아침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학교 영어회화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준비하였다.

2013년 5월, 너무나 감사하게 올해에도 글로벌 현장학습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외취업을 비롯한 진로선택에 고민이 많던 상황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본 프로그램에 대한 열망이 컸다. 1학기 중간고사 전날, 글로벌 현장학습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꼭 가겠다는 일념으로 영어인터뷰와 인성면접 준비로 밤을 샜다. 나에겐 중간고사만큼이나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이 중요했다. 모든 친구들이 시험공부에만 매진할 때 나는 밤새 사전을 찾아가며 영어 인터뷰 준비와 시험공부를 병행해야 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영어인터뷰와 인성면접을 보았다. 서투른 영어실력으로 원어민 선생님의 질문에 열심히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그리고 지나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드디어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펄펄 흘렸다. 그 때의 기쁨과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시험공부와 병행해야 해서 며칠 밤을 새며 도전했던 일이었기에 해냈다는 성취감과 기쁨은 정말 컸다.

막상 선발되고 나니, 3개월 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남의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대표로 해외를 가는 거다 보니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날 밤, 내 몸보다도 큰 캐리어에 짐을 싸면서 아버지께서 따뜻한 격려와 함께 선물해주신 영어책도 한권에 넣었다. 설렘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캐나다로 떠나는 날, 차디찬 아침공기를 마시며 집결지인 광주 광천터미널로 향했다. 그곳에서 이신기 장학사님과 교장선생님의 격려 말씀과 함께 3개월간의 나의 꿈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 2013년 여름방학_ 캐나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준비하며...

캐나다로 떠나기 3개월 전, 캐나다에서 함께 할 13명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만남을 가졌다. 유난히도 뜨거웠던 여름방학, 사전교육을 받으며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수업은 세 분의 원어민선생님과 함께 했고, 영어수업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문화예절, 글로벌 에티켓 교육 그리고 이수연 선생님과 함께한 영문법 수업도 받았다. 더운 여름에 고생하면서 매일같이 어학원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캐나다에 가기 전 마지막 준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유익하고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

○ 9월 8일_ 드디어 출발!! 캐나다로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다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복잡한 절차를 모두 통과한 뒤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기내식을 비롯한 모든 것이 신기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서 그런지 1명을 제외한 모든 승무원들이 외국인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영어를 써야만 했다. 외국인들에게 말 한마디 내뱉는 데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경유지인 샌프란시스코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진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사전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연습했던 대로 영어로 음식을 주문하였다. 생각보다 복잡하였고, 새로운 지폐사용에 무척 긴장이 됐다. 6시간의 대기시간이 지나고 켈거리행 비행기와 종착지인 드럼헬러고로 향하는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드디어 16시간의 긴 이동 끝에 드럼헬러고에 도착하였다. 힘들고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기숙사는 쾌적하고, 따뜻했다. 나는 같은 학교 친구인 Emily와 룸메이트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기숙사에 울려 퍼지는 사감선생님의 엄청난 영어에 눈을 떴다. 캐나다 아이들이 노란스쿨버스에서 우르르 내려 학교로 들어가는 우리나라 등굣길과 비슷한 광경이 유리창 밖으로 펼쳐졌다. 비몽사몽 꿈인가 착각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고 나는 그제야 캐나다에 온 것을 몸소 실감했다.



○ 9월 9일_ 도착 그리고 3개월간 지내게 될 DVSS(드럼헬러고)와의 첫 만남

하루의 시차적응 시간을 갖고 다음날, 13명의 친구들과 본격적으로 캐나다 DVSS학교생활을 시작했다. Mr.Lapierre 교장선생님은 특유의 웃음소리로 인자하게 우리를 반겨주셨다. 엄마 같은 사랑스런 미소를 보여준 Mrs.Salvatore 선생님은 학교를 상세히 소개시켜 주셨다. 미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길쭉한 개인 락커와 자유롭지만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분위기와 으리으리한 체육관, 도서관, 영화관 그리고 학교입구의 커다란 캐나다국기가 정말 인상 깊었다.



○ 9월 10일~ 10월 28일_ 소중한 친구들과의 잊지 못할 DVSS 학교생활



Student timetable

- Block1 ESL-English (Mrs. Lund)
- Block2 Cook (Mr. Lapierre)
- Block3 Gym (Mr. Messom)
- Block4 Hospitality Industry (Mr.Hatch)
- Block5 Job Preparation (Mrs.Salvatore)



캐나다에서의 첫 2개월은 드럼헬러고등학교에서 영어와 전공수업을 받으며 앞으로 파견될 캐나다에서의 현장실습을 준비했다. 2달의 교육기간 중 캐나다에서 가장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곳은 바로 학교였다. 사실 한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은 대부분 기숙사의 외국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기숙사 친구들과 더욱 친하게 지냈다. 그러나 나는 학교 친구들과 더욱 친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페이스북으로 틈틈이 메시지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냈다.

학교 수업의 1교시는 런드 선생님의 영어수업이었다. 우리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 한국식 영어 발음도 고치고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었다. 2교시는 요리와 미용 전공수업이었는데, 나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시는 요리 수업을 들었다. 팀으로 요리를 하다 보니 캐나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앞으로 주방에서 쓰게 될 전공 관련 영어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수업 초반에는 캐나다 친

구들과 어색하고 의사소통도 서툴러 적응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되었다. 캐나다 친구들에게 K-POP과 한국어도 알려줘서 심지어 ‘BONNIE’라는 영어이름보다 ‘김유영’이라는 한국이름을 더 불러주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함께 요리한 음식도 나누어 먹으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3교시는 체육시간으로 하키와 캐나다식 피구 등 캐나다의 스포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4교시는 캐나다와 앨버타주의 관광지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관광수업을 받았다. 관광을 가르쳐주신 해치 선생님은 수업시간 틈틈이 우쿨렐레를 치면서 노래를 하시는 유쾌한 선생님이어서 우리가 키위팬이라는 별명도 붙여드리며 좋아했던 선생님이다.

마지막 교시는 살바토르 선생님의 취업교육 시간으로 위생과 안전교육을 받고, 한 달간의 현장실습을 앞두고 영어인터뷰와 전공별로 전화로 주문과 예약을 받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Honey’, ‘Baby’라고 불러주시면서 친절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고 잘 따랐던 선생님이다. 살바토르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Thanks giving day에는 선생님 덕에 초대를 받아 파티를 했던 것이다.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런지 입구에서부터 아기자기한 할로윈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수업시간에 항상 얘기해주시던 강아지 몰리도 우리를 반겼다. 처음으로 보는 캐나다인의 가정집은 아늑하고 아름다웠고, 정원에는 딸을 위한 놀이기구로 가득했다. 캐나다에서의 Thanks giving day를 처음 보내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칠면조 고기도 준비해주셨다. 우리들의 첫 번째 칠면조 요리였다! 전직 조리사이자 조리선생님인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오셔서 칠면조를 요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주시고, 칠면조 그레이비소스도 만들어 주셔서 선생님께서 준비해주신 다과를 먹으며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댄스파티와 자선마라톤대회, International day 등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Greentree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체험 행사이었다. Mrs. salvatore 선생님의 주도로 한국에서 온 우리 14명의 친구들은 조리, 미용 체



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우선 Mrs. salvatore 선생님 시간에 그린트리초등학교들에게 편지를 써서 미리 전달을 하였고, 행사 당일 우리 학교를 찾아온 아이들 중 나의 파트너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이날 행사의 조리파트의 캡틴을 맡아 아이들과 함께 만들 메뉴를 정하고, 당일 음식을 소개하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우리가 준비했던 음식은 Korean style pizza와 닭죽이었다. 실은 메뉴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드림헬러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퓨전스타일로 한국식 피자과 닭죽을 준비했다. 부족한 영어실력이지만 캡틴으로써 음식을 소개하고, 시연도 보이고 아이들과 놀아줄 때 무척 뿌듯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무척 뜻 깊은 하루였다.

○ DVSS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난 뒤_ 기숙사생활, 방과후 활동

평일		주말	
7:00	기상	10:00	기상
8:00	breakfast&등교	11:00	brunch
11:50	lunch	17:00	dinner
15:15	하교&간식시간	15:15	간식
17:00	dinner	20:30	
18:00	방과후 자습	21:00	chores
20:30	간식시간	23:00	curfew
21:00	chores		
22:00	curfew		



[기숙사 일정]

대부분의 기숙사 생활은 위 일정을 기준으로 생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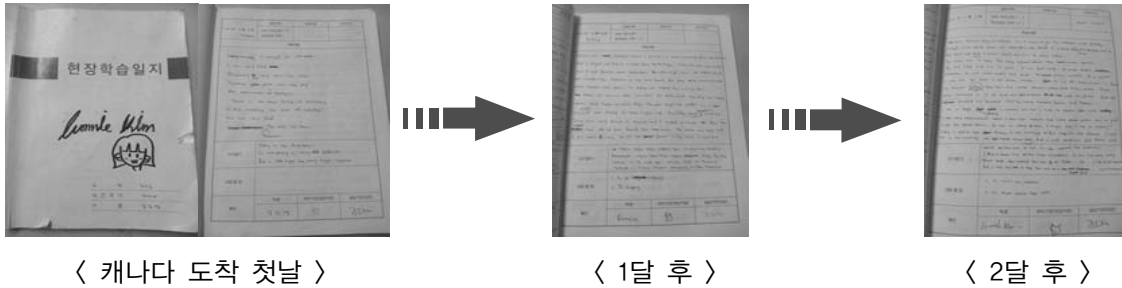
3개월간 생활한 기숙사는 너무나 아늑하고, 편했다. 하지만 남녀가 같이 생활하는 기숙사인 만큼 엄격한 규칙과 무서운 사감선생님들도 있다.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다감했던 사감 선생님이지만 규칙을 어길 때면 무척 엄하게 변하셨다. 음식은 한국과는 달리 기름지고, 짜고 육식 위주의 식단인 탓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말에는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주변 관광지로 문화체험학습을 떠나거나 학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체육활동을 하는 등 Activity 활동을 자주하여 지루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멕시코, 나이지리아,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영어로 소통해서 영어가 많이 늘 수 있는 환경이었다.

* 현장 학습일지(영어)

캐나다에 도착한 순간부터 썼던 현장학습일지는 나의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기특한 녀석이다. 나는 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 일지를 쓸 생각이다. 처음에는 사진과 같이 너무나 서툰 영어실력에 나의 하루일과를 일지에 전혀 담지 못했다. 하지만 1달, 2달, 3달 점차 성장하는 내 모습을 확연히 볼 수가 있었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그리고 한국에서 같이 오신 Jenny, Amy 선생님께서 매일 일지의 문법이

나 표현상 틀린 부분을 일일이 점검해 주셔서 점점 완성도가 높은 일기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저녁에 하루 일과를 영어로 쓰다 보니 그날그날을 되짚어보면서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좋은 학습방법이었던 것 같다.



< 캐나다 도착 첫날 >

< 1달 후 >

< 2달 후 >

*** Daily 영단어 시험**

Amy, Jenny 선생님의 도움으로 방과 후 자습시간마다 매일 영영사전을 활용한 영단어 학습과 매주 목요일마다 단어시험을 보았다. 시험 날이면 우리 모두가 카페테리아에 앉아 고심하면서 자신이 외웠던 단어들을 써내려갔었다. 그리고 매달 우수학생에게 소정의 상품과 함께 우리들만의 시상식이 있어 공부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영어일기와 더불어 우리의 영어 실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던 프로그램이었다.

○ 9월 14일_ Royal Tyrrell 박물관에서 억만년 전의 공룡과 소통하다

우리가 머문 드럼헬러 지역은 세계 최대의 공룡 화석 발굴지로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이기도 한 공룡의 도시이다. 드럼헬러의 관광수익은 이 박물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 화석들이 박물관에 가득해서 억만년 전에 공룡이 실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곳에서 학교 친구인 애슐리를 만나 그녀가 추천해준 아기자기한 공룡 펜을 구매했다. 이 때 애슐리와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캐나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방과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모으고 대체로 주말에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한국과 무척이나 다른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새로웠다.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난 활동이라 무척 들뜨고 재밌었다.



○ 10월 26일_ 너무나 아름다웠던 로키 산맥, Banff 국립공원에 다녀오다

글로벌 현장학습 최고의 문화체험은 로키 산맥이 있는 밴프국립공원이 아니었나 싶다. 설렘을 가득안고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4시간정도를 달려 도착한 밴프국립공원은 엄청 거대했다. 로키 산맥의 설경을 보기 위해 찾은 많은 관광객들과 사방으로 펼쳐진 푸르른 절경에 가슴이 뛰었다.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는 영화의 촬영지였던 보우 폭포를 찾아갔다. 그곳은 정말 깨끗했고, 캐나다의 대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밴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125년의 역사를 지닌 밴프 스프링스 호텔이었다. 호텔 지배인의 안내로 호텔 내부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호텔 건물은 125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하고, 내부는 매우 세련되고, 아늑했다. 나중에 가족들과 꼭 한번 들러보고 싶은 곳이었다.



○ 10월 31일_ Trick or Treat!! 할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10월 중순부터 할로윈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드림헬러가 모두 분주하였다. 올해 처음 기숙사에서 할로윈 코스튬 파티를 열었다. 이 날을 위해 카페테리아도 으스스하게 꾸미고, 잭 오 랜턴이라는 할로윈 호박도 만들었다. 잭 오 랜턴을 잘 만든 사람들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라는 소리에 기숙사 친구들과 짝을 지어 모두가 눈에 불을 켜고 호박을 팠다. 할로윈 코스튬 파티 당일, 나는 무시무시한 피 분장으로 Dead Rabbit(죽은 토끼)으로 변신하였다. 나의 코스튬은 많은 친구들의 인기를 끌었고, 코스튬 대회 1등의 주인공이 되어 거금 40달러를 상금으로 받는 영광을 얻었다.

드디어 할로윈 당일, 친구들과 함께 무시무시한 분장을 하고 드림헬러 동네를 누비며 “Trick of Treat”을 외쳤다. 어느 집을 가던 우리를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어느새 내 가방은 온갖 과자들로 가득 찼다. 어느 집은 정원에 설치한 서프라이즈 장식물로 무척이나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 한국에서는 경험 못할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다.



○ 11월 23일 드디어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다!

캐나다 생활의 막바지 즈음 드럼헬러 하키 팀인 Dragons의 경기를 관람하였다. 홈경기라서 Dragons를 응원하러 마치 광주의 KIA Tigers를 응원하듯이 Drumheller의 많은 팬들이 늦은 저녁 하키경기장으로 모였다. 학교체육관에서 Messom선생님과 함께 하키를 한 적이 있는데 공이 무척 작고, 하키 채가 익숙지 않아서 너무나 어설픈 하키게임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미끄러운 얼음판 위에서 몸싸움까지 하며 너무나 살벌하고도 흥미로운 경기를 펼쳤다. 그리고 Amy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버터팝콘까지 사주셔서 경기관람은 더욱 즐거웠다. 경기는 6대3으로 우리 팀이 승리를 거두었다. 경기 후 입구에서 선수단의 사인회도 열었는데 친절히도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진과 사인을 허락했다. 한국에서는 경험 못할 하키경기관람은 무척이나 흥미로웠고, 그들은 내가 단번에 Dragons의 팬이 되게 만들었다.



○ 10월 29일~11월 28일 캐나다에 가족이 생기다! 한 달간의 행복했던 인턴십

학교생활에 완벽히 적응되고 매일매일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일정상 2달간의 학교생활을 정리하고, 우리는 인턴십을 나가야했다. 처음에는 즐거운 학교생활과 캐나다 친구들과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달갑지만은 않았던 인턴십이었다.

그런데 경험해보니 인턴십은 더 즐겁고 행복한 경험이었다! Amanda와 나는 Dennis와 Stasha라는 부부가 운영하는 Sublime이라는 레스토랑에서 한 달간의 인턴십을 했다. 이곳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나는 캐나다의 가족이 생겼다! 모든 것이 낯선 인턴십 첫날, 그곳에서 일하는 Tony와 첫 만남을 가졌다. 2개월간 열심히 배운 영어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Tony는 나에게 무척 잘해주었고, 그는 한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서로 자기나라의 음식을 소개해주는 등 일하는 내내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Sublime은 매일 바뀌는 Today special menu가 있어 매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악어고기와 버팔로고기, 사슴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미숙한 우리에게 가게의 모든 메뉴를 만들 수 있게 알려주었다. 오히려 사장

인 Dennis가 설거지를 하고 나에게 요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방의 유일한 오른손잡이인 나를 위해 오른손잡이용 감자깎이 칼을 구입해서 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끊임없는 배려를 해주셨다. 덕분에 2주 만에 Lunch, Dinner의 모든 메뉴를 만들 수 있었다. 하루하루 출근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고, 특히나 Dennis와 매일같이 티격태격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손님이 다 나가면 조그마한 가게는 파티장으로 바뀌곤 했다. 음악을 크게 틀고 Tony는 Moonwalk를 뿔내며 청소를 했고, 모두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로 매일을 마무리했다. 나는 이러한 캐나다 사람들의 유쾌하고 친절함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나 인턴십 기간 내내 행복한 한편에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의 가족과 친구가 되어버린 Sublime식구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아쉽고 슬펐다. 나는 그들에게 한국이름을 지어주었다. 춘식이, 만식이, 영자, 미숙이 등등... 그들은 한국 이름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느새 가게 안에서 한국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오픈주방이라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손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심지어 인턴십 3주 만에 나의 이름을 부르며 서빙까지 부탁하고, Tip까지 주시는 단골손님도 생겼다. 그리고 Sublime은 bar까지 운영하는 곳이라서 Stasha는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today special cocktail을 부탁했다. 캐나다에 오기 전 한국에서 취득한 조주기능사가 무척 유용했다. 나는 소주를 이용해 칵테일을 만들어서 깨알같이 한국을 홍보했고, 손님들도 소주 칵테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Dennis와 대화도중 말한 코리안 스타일 스테이크 스시를 Special appetizer메뉴로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재료 발주와 요리, 스시와 함께 나갈 사이드 채소까지 모두 스스로 정했다. 내가 만든 것이 바로 손님들에게 판매된다고 생각하니 준비를 하면서도 긴장되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김과 동시에 내 요리가 손님에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신나고 흥분되었다. 스테이크 스시와 함께 나갈 사이드 채소로 상큼한 한국식 모듬 채소피클을 선보였고, 판매 당일 나의 메뉴는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때를 계기로 많은 손님들이 나를 더 많이 찾고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스테이크 스시 판매 다음 날, 한 손님이 나를 특별히 찾았다. 알고 보니 전날 내 음식을 2점이나 주문해서 드시고 나의 팬이 되었다는 손님이었다. 특별히 맛있었던 음식이라 인사를 하고 싶어 찾아왔다는 손님의 말씀에 나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뿌

듯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조리사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손님에게 내가 더 감사했다.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나고, 어김없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마지막 날, Sublime식구들은 우리를 위해 환송파티를 열어주었다. 파티 내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하염없이 울었다. 1달간의 인턴십 기간 동안 Sublime은 나의 캐나다 가족이 되어주었고, 해외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내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에게 아래의 편지를 남긴다. Good bye, Sublime! Good bye Canada!



〈Sublime 식구들과의 마지막〉



〈Sublime 식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Dear. Sublime

I have to go back to my home. This November, I learned a lot of things And I was very happy when I was working with you guys. I'm not good on English. But you helped me everytime. When I cooked in the kitchen you always said wonderful, sweet, beautiful Bonnie!! It become the great encouragement to me. And even there has the devil in the sublime kitchen it was almost like a paradise. Thank you Dennis... You can said for me now "You are good tempered Bonnie, Kim yu- yeong"

Stasha!! And when I go to the Korea I'll never slurpy. But I love seven eleven's slurpy. And Please keep my peeler in the kitchen when I be back to the Canada I will use it~ Thanks again for everything!!

Tony~ Let's high-fives and elbow too. While I am away from you But you're not alone. You have music and my peeler. I'll watch "The fourth kind (movie)" in the Korea. And I'll learn moonwalk when I back to the sublime. Let's dance moonwalk in the kitchen. I can't dance very well now, but I'll try it!! For you~

Everybody take care of yourself! Then I'll go back to the Korea. Bye Bye.

I will cherish every moment that we have been together.

from. Bonnie

○ 캐나다_ 그리고 드림헬러 Tip

1. 길 건널 때 주의하기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캐나다는 버튼을 눌러야만 신호가 바뀐다. 첫날 다운타운 투어를 할 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가 신호등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경험이 있다.



2. Timhortons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커피전문점인 Timhortons가 드림헬러에도 있었다. 가깝지 않은 거리였지만,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한 메뉴들과 값싼 커피가격에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핫 플레이스였다.

3. 드림헬러의 맑은 하늘



캐나다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바로 하늘이다. 너무나도 높고 맑은 하늘에 이곳에서 찍은 모든 사진들을 더욱 멋스럽게 꾸며 주었다. 그리고 매일같이 바뀌는 구름모양이 흥미로웠고, 밤에는 무척이나 많고 환한 별들을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별자리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어 친구들과 인터넷에서 별자리를 찾아 하늘과 비교하여 맞춰보는 등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별이 촘촘히 박힌 밤하늘을 매일같이 보았다.

4. 캐나다 화폐

캐나다 화폐는 우리나라처럼 모두가 같은 디자인의 화폐가 아니라 매년 기념할만한 일들을 디자인하여 화폐에 새기기 때문에 모양이 무척 다양하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동전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동전이 큰 것은 2달러, 작은 것은 5센트까지 있고, 심지어 10센트가 5센트 동전보다 작아서 더욱 헷갈렸다. 그러나 이곳은 동전의 사용이 잦아 돈을 지불할 때 마다 항상 계산대에 오래 머물렀다.



〈 Bonnie,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미션 대성공!! 〉

캐나다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이 값지고 유익한일들 뿐이었다. 두려움을 안고 떠난 처음 가 본 이국땅에서 어쩌면 평생 알지 못했을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고, 더욱 많은 것들을 배웠다. 캐나다에 오기 전, 영어 실력 향상과 캐나다 문화 경험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결과는 미션 대성공이다. 영어를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취업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깨지고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같이 캐나다에 온 13명의 친구들과 캐나다생활을 하면서 무척이나 많은 도움을 주었던 현지 분들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 생겼다.

도착 후 첫 3일은 음식, 언어소통, 시차적응 등의 어려움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캐나다를 사랑하게 되었고 3개월이란 기간은 나에게 짧은 시간만 했다. 글로벌현장학습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후배들에게도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한다. 특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우수한 인턴십 업체에 파견되어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귀국 후 이 글로벌현장학습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쯤 이국으로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추억이 깃든 이곳을 꼭 한번 다시 찾아와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기만 해주셨던 고마운 분들에게 답례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값진 여정을 할 동안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 supervisor 조은정, 김지연 선생님 그리고 장학사님, 가족들 그리고 3개월간 나와 함께한 13명의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잊지 못할 3개월간의 캐나다 생활을 마친다.



〈글로벌현장학습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진가를 발견하다!

소 속 :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부 서 : 조리과 교사
성 명 : 조은정

2012년 3월, 학급 학생으로 처음 만난 유영이의 꿈은 해외 취업이었다. 유영이는 이를 위해 2년간 매일 아침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에 참가하며 준비해 갔고 2013년 9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해외 취업이라는 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 2, 3학년 담임을 맡으며 지켜본 유영이는 영어실력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져 캐나다에서도 잘 적응할거라 믿었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인솔교사로 함께 3개월간 캐나다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관리하며 지켜본 유영이는 이제야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은 듯, 현지의 학교 및 현장실습 업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장을 하는 유영이의 모습을 지켜보며 본 프로그램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해외 취업을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바뀌어 현재는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본 프로그램에 참가해 해외 취업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3개월간의 글로벌 현장학습을 다녀온 후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영이에게 ‘해외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 네 자신을 믿고 지금처럼 열심히 갖고 닦으면 네 꿈은 현실이 될 거야. 지난 3개월간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항상 사랑 받고 행복한 Bonnie로 잘 지내렴.’이라는 말을 전한다. 또한 2013 글로벌 현장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유관기관 및 전국의 담당 선생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을 전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굳은 의지의 승리!

소 속 : ㈜에듀비전
부 서 : 교육연수부
성 명 : 김지연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부터 유영이는 많은 것을 알아보고 준비한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전라남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에 다녀온 선배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묻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또 목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아는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생각처럼 영어가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며 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남는건 사진뿐이라며 시간이 날 때 마다 사진기를 들고 산책을 나갔다. 종종 있었던 수업참관에서도 유영이는 현지친구들과도 장난도 치며 즐거워했고 학교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과도 편히 웃으며 대화하는 학생이었다. 새로운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에

서는 볼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난다. 유영이는 처음부터 자신이 원했던 현장실습업체에 무사히 배정이 되었고 오전 오후가 격주로 바뀌는 근무 속에서도 불평 없이 누구보다 즐겁게 현장실습에 임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해외취업에 관심이 생기고 잘 적응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귀국 후 현재 유영이는 한국에서 취업중이지만 열심히 해외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은상작

u-Health 전문가의 꿈을 안고 세계로!



학교명 : 영락유헬스고등학교

학 과 : 유헬스시스템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박현주**



학교명 : 영락유헬스고등학교

학 과 : 유헬스미디어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정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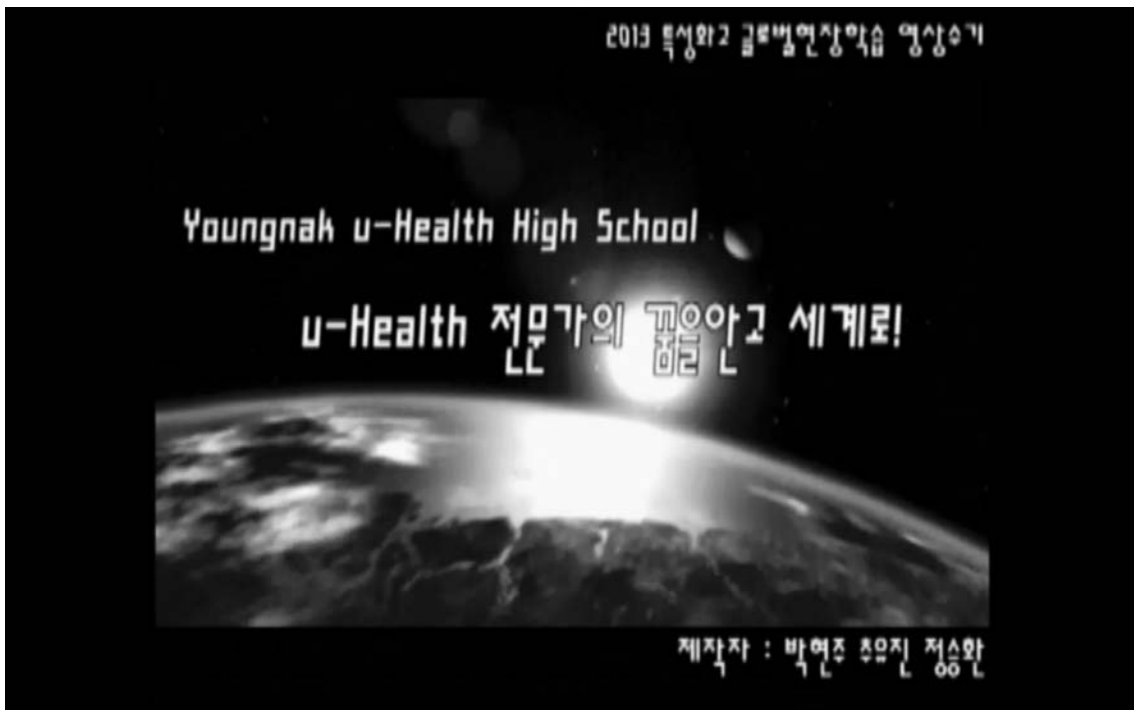


학교명 : 영락유헬스고등학교

학 과 : 유헬스시스템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추유진**



“딸아, 잊지 마라!”

학교명 : 영락유헬스고등학교
 학 과 : 유헬스시스템과
 성 명 : 장희선(추유진 母)

2012년 제 딸이 영락유헬스고 2학년생일 때, KBS 2TV 특집방송 ‘청진기’를 통해 딸의 선배들이 독일에서 교육받고 실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지함이 아직도 제 가슴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3년 딸이 3학년이 되어 파견학생으로 선발되었을 때, 저는 딸의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감동을 이제는 제 딸이 후배들에게 선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미국 플로렌스-달링턴 기술대학의 수업과 GE 헬스케어 및 맥클라우드 병원 현장실습을 글로벌 현장학습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딸의 일기를 읽을 때면 곁에 있는 것 같았고, 사진으로 그곳의 환경을 볼 수도, 그곳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교육과 실습과정을 인솔 선생님께서 동영상으로 올려주셔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은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직업의 보람을 체험하고 취업 의지가 더욱 확고해 보였습니다. 돌아와서는 좋은 취업 기회에 무사히 통과하여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 딸의 꿈과 목표는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자신의 성장이 얼마나 많은 분의 노고 덕분인지 잊지 말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사회생활도 열심히 할 거라 믿습니다.

GE Healthcare,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보호의 새 장을 열어가는 다국적기업

기업명 : GE Healthcare
 부 서 : Human Resources Business
 성 명 : Gregory Cunn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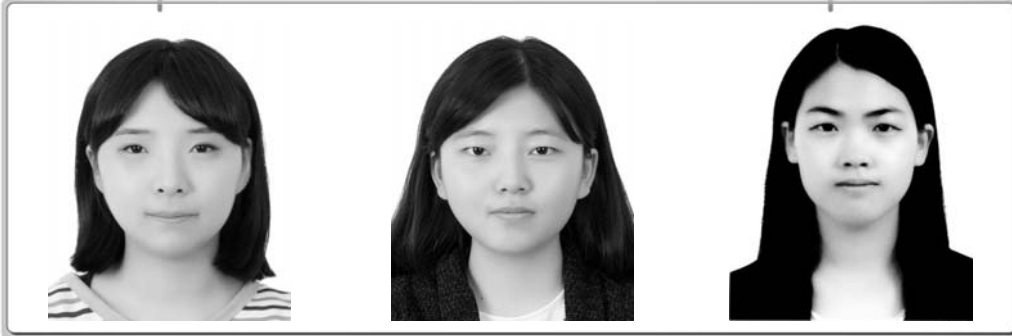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NYSE: GE)은 미국 코네티컷 페어필드에 본사를 두고 1878년 설립된 미국 굴지의 다국적 복합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미국 종합전기회사이다. 세계 각국에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있다. 영락유헬스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이 현장실습 기술 연수를 수행한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GE Healthcare)는 GE 계열회사의 하나로 미국 South Carolina의 Florence에 위치하고 있다. GE Healthcare-Florence에서는 주로 Life Science, Healthcare IT, Healthcare Systems, Clinical Systems 등에서 공장운영, 물류조달, Manufacturing, R&D, Sales, Marketing, 제품기획, 의료영상/정보(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진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신약개발 및 생약제조기술, 의료 성과개선/솔루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 및 생산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코리아(GE Healthcare Korea)는 ‘헬스케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1980년대에 한국에 진출(1984년 삼성의료기기로서 시작),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역사를 함께 일궈온 기업이다. 총 600여명의 헬스케어 전문인력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초음파 진단기기 생산 및 인천 송도에 지식경제부와 공동 투자한 GE Healthcare IT Korea Technology Center를 유치하여 연구개발 센터를 운영하는 등 한국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협력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상작

- **영상물 : 86 Days in London**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김은지, 이다현, 한승연
- **세계로 향한 꿈과 인생이 바뀐 사죄**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전용현
- **타이어 기술자의 꿈! 중국 칭다오에서 이루다.**
동아공업고등학교 이용진
- **영상물 : 우리들의 무한도전**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양유림, 신보라, 김나라

동상작

86 Days in London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 과 : 뉴미디어디자인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은지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 과 : 뉴미디어디자인

학 년 : 3학년

성 명 : 이다현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학 과 : 인터랙티브미디어

학 년 : 3학년

성 명 : 한승연



승연이의 비상(非常)

학교명 : 미림여자정보과학고
 학 과 : 인터랙티브미디어
 성 명 : 한경애(한승연 母)

중학교 친구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승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 초에 잠시 방황을 했습니다. 그 때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게 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3학년 선배 2명이 영국 글로벌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취업 외에 목표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생기자 아이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학교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무엇보다 영국에서 BTEC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실습회사의 직원들과 서로 도와가며 팀워크, 배려와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특히,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심이 생겼고, 문제를 다 각도로 보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합니다.

영국에 가기 전 승연이는 처음해보는 일은 미리 겁부터 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와 집 밖에 몰랐던 아이가 영국에서 3개월간의 현장학습을 통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 도전장을 던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배짱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끝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이런 글로벌 현장학습 제도가 정착되어 우리나라도 70%가 직업교육을, 30%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To Dedicated Dora

기업명 : Zero-One Studio
 부 서 : 웹사이트 개발
 성 명 : Everett Scott

Dora, Seungyeon Han, worked really hard and produced a site that had a really good design and functionality. She included a lot of technical aspects to make her site interesting but did not miss out the design as well, despite her major being programming. She has been a great member of the team and has worked well on this project. She has created a media rich website that looks good and works well. She found a way to make her slideshow work and so it makes the site more interesting. Good work and great job!

Dora has been a dedicated student and has shown an impressive understanding of what skills are required if she is to succeed. Her note-taking and levels of concentration in class have been first-class. She has been a determined and dedicated student. She is clearly going to make an excellent employee in her future workplace. I am looking forward seeing Dora soon in London again.

동상작

세계로 향한 꿈과 인생이 바뀐 사죄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학 과 : 전자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전용현

일본 취업의 꿈을 꾸며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잡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의 꿈은 오직 훌륭한 배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어두운 긴 터널에서 나왔을 때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지금의 복지원에 있어야 했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예민한 사춘기 시절 저는 자연스럽게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뜻대 없는 배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매일 같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두 분을 위해 무언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심려를 끼쳐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장 물질적인 것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학업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중3이 되어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터라 무엇을 하면 좋을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담감이 커져갈 무렵, 아버지와 같은인 목사님께서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업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뛰지 않았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상담을 받으며 동아마이스터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홍보 차 학교에 방문하신 동아마이스터고 선생님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진로를 동아마이스터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이후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저에게 미래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특강 및 진로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인 목표들을 잡는 좋은 이정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일주일동안 일본기업 탐방 및 문화체험활동은 제 생애의 큰 목표점을 세우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 들은 일본 기업들의 생산 혁신활동인 3정(정위치, 정품, 정량)과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는 머릿속에서 아직도 떠나질 않습니다. 일본에서 있는 일주일 내내 기업탐방과 문화체험을 통해 나도 이런 곳에서 근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기회가 닿으면 꼭 일본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학교에서 주문식교육반의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일시설공업을 일본에 직접 가서 본 터라 더욱 해외기업반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온 여러 친구들에게 밀려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잘 해야 하는 것이 필수였고 JLPT를 취득한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을 뒤늦게 뼈저리게 깨달으며 설비엔지니어반이라는 다른 주문식교육반에 들어가서도 훗날 제 2외국어는 필수라는 생각에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진출이라는 꿈은 저에게 새로운 목표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주 먼 미래라도 바램으로만 남겨두면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던 2학년 2학기말 실낱같은 희망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해외기업반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이번에는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였고 그 결과 추가 인원 선발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날아갈 것 같은 그 때의 기분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너무도 기뻐고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초 취업지원센터에서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으로 3개월 동안 일본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을 향하여

(1) 일본에 가기에 앞서 주어진 180시간의 일본어 집중이수.

글로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기본 일본어실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JLPT3급과 그에 걸맞은 어휘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꼭 JLPT3급을 취득하리라는 목표 아래 가장 부족한 듣기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 노력 앞에 작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밤늦게까지 복지관에서 공부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가 소등되고 나면 혼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핸드폰의 전원을 벗 삼아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일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1차 시험에서 목표했던 JLPT3급을 취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름방학 때에 실시된 180시간의 강도 높은 집중이수를 통해 일본의 문

화와 비즈니스 및 일본기업에서 사용하게 될 현장 용어 등을 배웠습니다. 일본어 회화시간에는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수업 중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면서 보다 두려움을 없애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이 부쩍 늘었고,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과 어휘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2) 제일시설공업 회사의 꿈을 안고 일본에 도착하다.

드디어 꿈꾸던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 후코오카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일본어 실력이 서툰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보다 인턴십으로 3개월 동안 만나게 될 제일시설공업과 사카모토전기에 대한 기대감에 설렘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제일시설공업의 꿈을 안고 해외기업반에 들어갔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습니다.

제일시설공업(주)회사에서의 실습

(1) 제일시설공업(주)회사

① 반도체 운송장비 선반 만들기



처음에 회사에 갔을 때 사장님과 회사직원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실습하기 전에 타키타 과장님께 회사에 대한 소개와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팀을 나누어 실습을 했는데 저는 C팀이었고 처음의 멘토는 스즈키상과 타무라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일은 반도체 운송장비 중 선반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작업은 부품과 부품 사이의 틈이 없게 만들고 치수를 정확히 맞춰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멘토께서는 저에게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신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전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시설공업의 신조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이 끝날 때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용한 공구는 원래자리에 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같이 일하는 모든 회사 분들은 항상 자신의 작업이 끝나면 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의 일을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신을 반성하며 저도 일이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린 후 다른 분들을 도와 드렸습니다.

② 포장 작업

반도체 운송장비 선반을 만든 후 두 번째 멘토 헤기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헤기상의 지도에 따라 우선 클린룸에 들어가서 완성된 반도체 장비를 깨끗이 세정작업을 하고 반도체 장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장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생기기지 않아야 해서 꼼꼼히 확인하며 포장을 해야 했습니다. 포장작업을 할 때도 역시 안전과 품질관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회사에서 있었던 언어 실수

회사에서 실습을 할 때에는 초반에는 일본어가 서툴러서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숙집에 돌아와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혼자서도 설명을 듣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때에 단어를 잘못 알아듣거나 제 발음이 좋지 않아서 곤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상하다’와 ‘귀엽다’의 단어를 바꿔서 말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플라스틱 상자를 깨끗이 닦아서 원래자리에 놓는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닦던 도중 한 상자가 기름이 잔뜩 묻어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멘토이신 헤기상께서 저에게 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었냐고 물으셨고 저는 “다른 상자는 다 괜찮은데 이 상자만 조금 이상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기상은 의아한 눈으로 상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조금 후에 같은 팀에 있는 친구가 와서 방금 제가 이 상자만 이상하다가 아니라 귀엽다고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귀엽다’와 ‘이상하다’의 단어를 헛갈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고쳐서 “이 상자만 조금 이상합니다. 기름이 묻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라고 바꿔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무척 창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일이 작은 일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작은 단어실수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오해가 생긴다면 큰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실수한 것을 수첩에 적으며 되새겼습니다.

(3) 제일시설공업(주)회사에서의 사죄

제일시설공업에서 일한지 한 달 정도 지난 후 회사원 모두가 모여 아침조례시간에 사장님의 연설을 들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턴십 동안 회화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연설을 하시기 전날도 사장님의 말씀을 듣기위해 밤늦게까지 일본

어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늦게 잔 나머지 너무 피곤하였습니다. 또한 사장님께서 현재 회사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셔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연설이 끝나고 팀원끼리 모임을 갖는데 팀원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제조과 타키타과장님께서 “아쿠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쿠비의 단어를 모르는 저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친구들도 몰랐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팀원 모임이 끝나고 다시 한 번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하품을 했던 것이 어슴푸레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 말고도 다른 친구가 먼저 손을 들어 사과를 드렸고 사과를 드리지 못한 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과 선생님께서 인사를 나누시던 도중 사장님께서 키가 크고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이 하품을 했다고 하였고 선생님께 통역을 해준 친구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키가 큰 편이었고 거기서 안경을 쓰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 “이렇게 할 거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각한 상황인 것을 깨닫고 바로 가서 사장님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고 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벌 면목이 없습니다.”라는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사원이었다면 잘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알려주고 넘어가는 것이니 앞으로 조심해라.”라는 말만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에 돌아와 밤새, 말씀드릴 것과 반성문을 준비를 했고 다음날인 금요일에 멘토 헤기상께 먼저 사정을 말씀드린 후 타키타 과장님을 뵙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은 쉬는 날 이기 때문에 오늘 사장님을 뵙고 직접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으셔서 결국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사장님께서 회사에 오시는 시간에 맞추어 회사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발견하시고 “오늘은 토요일인데 왜 회사에 나왔나?”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품을 한 학생입니다. 목요일에는 사장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 오늘은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사장님께서 “그럼 해보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장님 앞이라서 많이 떨렸지만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하품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제가 사장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에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화를 내셨던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벌 면목이 없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사에 오게 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마지막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일본어가 서툴지만 준비를 해줘서 고맙네”라고 말씀하신 후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쉬는 날 준비해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어서 가 보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의해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뒤 인사를 드리고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하품으로 인해 회사에 취직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사장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안심이 되어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과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아야 하고 실수도 만회하기 위해서 회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4) 사카모토회사에서의 송별회

사카모토회사에서는 3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실습을 하였습니다. 2주간은 줄질을 하는 바리토리실에서 실습을 했고 1주간은 직접 기계를 작동시켜 제품을 만들어내는 실습을 하였습니다. 두 달간 제일시설공업에서 실습을 하며 일본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카모토회사에서는 혼자서 설명을 듣고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며 기계도 무사히 작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매일 질문할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2주간 함께 일했던 미호상과 아이상, 마츠모토상은 흔쾌히 질문에 답해 주셨고 실습을 할 때도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문제없이 2주간의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로 질문을 했던 것은 비슷한 단어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 하는지와 때에 따라서 어느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일본음식과 말을 할 때에 예절 등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주간 함께 일했던 우치다상께서는 기계 작동과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며 다치지 않게 주의를 주셨고 그 덕분에 무사히 실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모여서 사직을 찍었고 점심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는 미호상께서 그동안 즐거웠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저도 감사했다고 말씀드리며 “언젠가 다시 만나요.”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다음 메일을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메일을 주고받았고 지금도 그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아직도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문화체험활동

(1) 하숙집에서의 생활



일본에 도착하고 3개월 동안 함께 할 하숙집 주인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뜻하는 오카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카아상은 아주 따뜻하고 밝으신 분이셨습니다. 제 일본어실력이 서툴지만 계속 대화를 해주셨고, 일본지역과 식사 예절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일본어로 말할 때에 틀린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감사

의 보답으로 저녁식사준비를 날마다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본어 실력도 함께 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면서 책으로만 배울 때보다 일본어 실력이 빨리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① 청결

일본의 하숙집은 화장실과 씻는 곳은 배웠던 것처럼 따로 분리가 되어있었고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있었습니다. 바닥에 음식을 흘리면 다다미가 썩어서 바뀌야하기 때문에 방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② 조용히 말하기

일본은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옆방에 소리가 잘 들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작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함께 온 친구들은 처음에 시끄러우니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보다 조용히 말했고 회사에 가는 길에 전철을 탈 때도 보다 조용히 말하려고 했습니다.

③ 일본어로 일지를 쓰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매일매일 일지를 쓰면서 하루를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오카아상에게 검사를 맡으며 틀린 문법을 고치면서 공부했습니다.

(2) 오카아상의 생신

하숙집에서 항상 상냥하게 대해주시던 오카아상께서 생신을 맞아 선생님과 함께 온 친구들이 감사의 편지와 깜짝 생신파티를 준비해 오카아상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오카아상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시며 행복해 하셨고 사진을 찍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언제나 밝게 맞아주시던 오카아상을 기쁘게 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3) 할로윈데이

10월 31일 할로윈데이 때에는 오카아상의 손자와 손녀가 마법사로 변장을 하여 사탕과 초콜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받은 사람은 과자를 주었고, 모두 주고받은 것을 한 곳에 모아 다시 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화에서만 봤던 것을 실제로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모두 즐거워하였고, 마치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4) 하나비 축제



불꽃놀이 축제는 이제까지 봤던 불꽃놀이 중 가장 아름다웠고 굉장히 큰 축제였습니다. 밤 7시부터 축제를 하였는데, 그곳에는 포장마차처럼 생긴 야타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야키토리, 야키소바 등 많은 일본음식들이 있었고, 그중에 신기했던 것은 사과사탕 링고아

메였습니다. 링고아메는 사탕 안에 사과가 들어있어서 사탕을 먹은 뒤 사과를 먹을 수 있었고 처음 먹어보고 신기해서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일본인들의 남다른 모습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식을 사기위해서있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있었고, 사람이 많은 길에서는 질서를 지켜 한 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질서를 지키며 나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모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봉투를 갖고 있어서 축제한 자리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담배를 피울 때도 간이 재떨이를 갖고 있었고 그 광경 모두가 너무 신기했고 선진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5) 문화 교류회

문화 교류회 활동을 하면서 중국인과 미국인, 일본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서로의 나라에 대해 소개를 하고 협동심이 필요한 게임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 질 수 있었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싶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순위를 발표할 때는 10개의 팀 중 2등으로 뽑혀 팀원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언젠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기를 바라며 아쉬움의 이별을 했습니다.

제일시설공업(주)회사에서의 수료식

3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마치고 수료식을 할 때에는 두 명의 친구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발표를 못하게 되었지만 저도 발표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학생이 되기 위해 일본어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실을 실감했고 2개월간 실습을 했던 제일 시설공업과 1개월간 실습을 했던 사카모토전기에서 있었던 일이 주마등처럼 제 머리 속에 스쳐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실습이었지만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잘해보자, 아자! 아자! 파이팅!!

제일시설공업(주)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제일시설공업와 사카모토전기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설공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품을 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 사건 때문에라도 지원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도 사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그날에도 너무 감사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잘못했을 때보다 잘못된 후에 어떻게 하는 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품을 하고 잘못된 후에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열심히 일했던 모습이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표로 했던 제일시설공업에 들어가서 반도체 운송장비에 대해서 배우며 글로벌 기술명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JLPT2급을 2년 안에 취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운송 장비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으로 5년 뒤에는 반도체 운송 장비를 설비하고 더 나아가 설계까지 하는 반도체 운송장비계의 마이스터가 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건실한 노력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이뤄나가는 전용현이 되어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족함을 노력으로 채운 전용현!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부 서 : 취업지원센터 교사
성 명 : 김용태

2학년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는 ‘해외기업반’ 학생들은 기업체 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용현 학생은 2차 선발에 의해 늦게 들어왔기에 일본어 실력이 다른 학생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행방불명인 부모님 때문에 시설보호기관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려운 가정환경이지만 밝고 긍정적인 사고로 늘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을 가진 학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겨 자신의 것으로 만든 후배들의 귀감이 되는 학생입니다. 첫날부터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는 현장실습일지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과 기업에서 배운 새로운 어휘와 문장들을 수첩에 적어 활용하는 열정은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채워나가는 노력의 모습은 한국법인 다이이치코리아에 취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인성을 바탕으로 두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준비 자세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글로벌 현장학습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2013 글로벌 현장학습

기업명 :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부 서 : 총무과
성 명 : 쿠시바 토모오(草場 勉夫)

2013년 9월초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의 인턴십이 시작되었다. 당사는 인턴십을 매년 진행해 왔던 터라 교육과 관리에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미성년임을 고려하여 직장선배로써의 관리와 보호자의 역할을 함께 해야 하는 긴장감과 책임감이 확연히 달랐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가족환경 등 관련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특히나 관심이 가는 학생이 있었다. 일본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일본어실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전용현은 조례시간의 사장님 훈화말씀을 자신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사장님은 자신의 조례사가 지루하다 생각하여 꾸깃게 된 것이다. 전용현은 그 후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생각하여 부족한 일본어로는 상황설명이 안되므로 편지를 작성하여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고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고 싶다고 자신의 휴일에 출근을 한 것이다. 사장님 면담으로 오해는 말끔히 풀렸으며, 사장님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전용현 학생의 용기와 인성에 감동 받은 듯 했다.

업무능력 보다는 인성, 인간의 됴됨이를 우선시 하는 사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전용현군을 높이 평가 했으며, 이는 기업에 채용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동상작

타이어 기술자의 꿈! 중국 칭다오에서 이룬다.



학교명 : 동아공업고등학교
학 과 : 자동차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이용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청춘은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장래희망을 물어볼 때 항상 머뭇거렸습니다. ‘내 꿈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언제나 내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꿈을 향해 눈 앞의 점수에만 열중하는 방법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아공업고등학교에서 2년의 시간을 보냈고 3학년 때 글로벌 현장학습을 체험하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10대의 청춘은 시작 되었습니다.

‘후회없는 선택의 연속’

제2의 수도, 아름다운 해양의 도시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동아공업고등학교는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전국 최우수 아름다운 학교에 선정될 정도로 학교 앞에는 각종 들꽃이 가득하고 봄철이 되면 뒷산에는 벚꽃들이 화사함을 내뽐고 있습니다.

제가 동아공업고등학교를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면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진학할 고등학교가 중화권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매우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면서, 부산의 다른 학교보다 앞서 간다는 느낌에 동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과에 진학한 후 생소한 공구들의 이름을 익히고, 멋진 스포츠카의 외형만 보던 것과는 달리 자동차 기관에 대해 배울수록 지나가는 자동차의 엔진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다니고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넥센타이어 글로벌 현장학습반”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설명을 듣는 순간 ‘이것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타국으로 인턴을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어린 나이에 중국이라는 타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진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저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나를 바꾼다.’

담임선생님의 추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및 출결 상황을 토대로 20명의 학생이 1차로 선발 되었고 중국어 기초회화 수업과 시험을 통해 2차로 16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학교 등교시간은 8시 30분이어서 매일 8시 20분쯤 등교하였는데 중국어 기초회화수업은 매일 아침 8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벼락치기를 잘하는 편이었는데, 중국어만큼은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쉽게 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중국어 공부를 위해 매일 아침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하여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어 기초회화 시험이 학교 시험과 겹쳐서 두 가지를 다 공부하기는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공부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공부한 결과 HSK 2급을 취득하게 되었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3급을 꼭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2차 통과된 1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 워크샵에서 개인 역량 키우기 프로그램과 해병대 극기 훈련 체험, 체력 강화를 위한 등산을 하였는데, 평소에 공부하는 것 말고는 스마트폰을 만지며 혼자 노는 것에 익숙했던 제가 2차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지키는 법과 친구들과 교류하는 방법과 개인이 아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넥센타이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통해 최종 파견 학생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명은 모의 면접 연습을 하고 중국어 발음연습과 자기소개 등을 열심히 준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감을 느끼며 새삼스럽게 지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받아왔던 교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자 발표하는 날 아침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 메시지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발표시간! 오전 10시! ‘디딩~ 넥센타이어 글로벌 현장학습 최종 합격!’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와!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 너머 산’

최종선발의 기쁨도 잠시, 우리들은 그 전의 교육이 아직 빙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 해에는 BTC아카데미와 협약을 맺어 우리들은 2주간 타이어에 대한 지식과 타이어 공장 공정들을 배워야했습니다. 처음에는 ‘으~산 너머 산이다.’ 라는 마음에 학교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친구들을 보니 그 친구들이 부럽기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BTC아카데미에서 첫 수업을 받아보니,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았지만,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만을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기 수료를 무사히 완료하고 체력 강화를 위해 동주대학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습니다. ‘공부도 체력전이다’가 아닌 ‘일도 체력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체력을 증진시켰습니다.

YBM 어학원에서 탄쯔지에 원어민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중국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과 회화·문법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주말에는 중국어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차이나타운 구경하기, 중국어로 쇼핑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여서 중국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8월 말쯤에는 넥센타이어 본사인 양산공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양산공장 정문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일할 모습을 상상해 보니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역사와 제품 등을 구경 후 공장 내부를 간단히 견학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제조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BTC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것을 다시 되새김할 수 있었습니다.

K-CAMP에 가서 극기 훈련이나 PPT체조를 하면서 팀워크와 체력을 다질 수 있었으며 정신을 단단하게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있는 건국대에 가서 전국에 있는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들과 모여 발대식에 참여하였는데, 중국에서 3개월간 인턴생활 할 일도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또 한편으로는 부푼 기대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글로벌 현장학습 학생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일이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다시 힘내자!’



欢迎中国 환영~뽕구어~

중국 청도로 출국하는 날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우리 넥센타이어 글로벌 현장학습반 10명은 김해공항을 떠나 중국 청도를 향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중국 땅을 내려다보니 ‘우와~ 드디어 내가 중국에 오긴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우연히 공항에서 만난 중국 출장가는 넥센타이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어느새 중국 청도 류팅공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 특유의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김치냄새가 난다고들 하던데, 이 냄새가 바로 중국 특유의 냄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欢迎中国(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읽으며 중국 넥센타이어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GDP 2위 경제대국이며, 경제 성장률이 9.2%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8%라고 하니 2배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지표상의 수치뿐만 아니라 풍경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파트, 빌딩, 공장, 학교 등이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반듯하게 잘 정리된 도로 등을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옥수수 밭을 지나 강산진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공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박철 과장님과 직원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짐을 풀고 나서 작업복을 배급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실습할 때 작업복을 입기는 하지만, ‘넥센타이어’글자가 새겨진 작업복은 저에게 특별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회사 내부를 소개해 주셨는데, 한국에 본사를 둔 회사라 그런지 많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오석규 이사님께서 동대문이라는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셨습니다. 중국음식이 과연 내 입맛에 맞을지, 한국에서 먹던 짜장면은 중국에서는 어떤 맛일지 설렐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향료도 많이 넣지 않아 동대문의 음식은 우리 입맛에 딱 맞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에 도착을 하고 보니, 이제 3개월간 중국 문화와 음식 등에 적응을 해야 하는 생각에 걱정도 들었지만, 내일 부터 시작되는 인턴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중국에서의 첫날밤을 보냈습니다.



타이어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나~

중국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다음날부터 대략 2주 동안 우리 10명은 TPM(생산보전운동), 소방안전교육, 공장 견학 및 청소, 타이어 제조공정, 중국어 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소방안전교육을 통해서 화재에 대한 무서움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으며, 한 번의 실수가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소중한 직장을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했을 때 실제 회사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재로 교육을 받아 설비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 공정 교육을 마치고 기대하던 현장 견학을 하였습니다. 넥센타이어의 본사인 양산 공장에 가서 보았을 때는 각 공정을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우영호 주임님을 따라 공장 내 견학을 하면서 타이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자세한 설명으로 타이어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 제조일자 읽는 방법과 사용 설명서, 타이어의 트레드 모양에 따른 지면의 마찰력과 배수, 공기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작품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련-압연-압출-비드-준비-성형-가류 공정들을 거쳐 타이어가 만들어져 나오면 검사공정에 넘어가서 외관검사, 트리밍, 밸런스검사, X-Ray 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다 끝마치고 나면 드디어 최종적인 타이어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각 파트마다 여러 가지 기술과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제조공정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교육은 교육기간 동안 회사 3.6km를 달리는 것 이였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이유가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체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땀 때는 친구들보다도 뒤쳐지고 숨이 매우 가빴지만 매일 달리다보니 점점 몸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뒤쳐지지 않고 앞에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일과 후에 뛰어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완주를 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현장 투입

한 달 간의 기본공통교육을 마친후 우리 10명은 각각 나누어져 검사부, 안전환경부, 제

품평가실, 기술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연구소 안에 있는 제품평가실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품평가실에서는 완성품인 타이어를 테스트하고 잘라보는 등 많은 검사들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제품평가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이어에 대한 세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타이어 휠 탈부착과 타이어 샘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여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손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너란 나라~

주말이 되면 문화체험을 통해 넓게 볼 수 있는 견문과 중국의 문화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회사에서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월호공원, 올림픽조각공원, 마안봉, 중산공원, 농촌체험, 청도맥주박물관, 청도박물관, 올림픽 요트경기장 등 많은 관광지를 관람했습니다.

문화체험을 했던 곳 중 아직도 기억나는 곳은 아름다운 해안연방도시인 옌타이입니다. 옌타이에는 근대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적이 아닌 근대에 지어진 각국의 건축물들이 기품 있게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아름다운 옌타이 해안을 걸었습니다. 해안가에는 기념품과 각종 먹거리들을 파는 상점들이 있었으며 수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장소는 우리 10명이 처음으로 갔던 올림픽조각공원입니다. 조각공원은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므로 곳곳에 수많은 모양의 동상과 조각들이 있어 친구들과 조각의 포즈를 따라하며 다양한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었고, 큰 호수가 있어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는 가족과 연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결혼식 촬영 장면 또한 볼 수 있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는데, 구두만큼은 하얀색이 아닌 빨간 구두를 신는다는 점이 우리와는 달라서 신기하였습니다. 역시 중국인들은 나쁜 재앙을 없앤다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영호 주임님의 농장에서 농촌체험을 한 것입니다. 우영호 주임님의 농장

에는 감나무와 배나무들이 길을 따라 심어져 있었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옥수수가 빼곡히 심어져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껍질도 벗겨보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왼쪽 편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어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의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찍었고, 닭싸움도 했습니다. 체험활동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고 추억을 많이 남겼던 곳이라 쉽게 잊혀지지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곳은 청도 맥주 박물관입니다. 다른 박물관과 달리 야시장 거리에 위치하여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한국어로도 ‘맥주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근처에 이런저런 식당들이나 주점들은 모두 이 공장에서 아침에 받아온 맥주를 받아다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맥주 박물관에 입장을 하고 이런저런 내부 시설이나 사진들을 관람하고 난 뒤 잠시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날 아침에 제조한 맥주를 시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하신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전원이 한잔씩 시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이란 ‘카~’ 정말 시원했습니다.

중국에 오기 전 중국하면 떠오르는 것은 수천가지의 한자와 지난 베이징 올림픽, 성인으로 불리는 공자, 맹자, 수많은 나라가 있었던 춘추전국시대, 유비 장비 관우 3형제가 조조와 싸우던 삼국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치안 문제와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통 체계로 학교 밖 중국 체험은 조금은 긴장되었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나라 중국! 세상의 중심이라는 이름의 중국이란 나라는 저에게는 재미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편견! 그것은 오해!

중국에 오기 전에는 주변의 친구들로 부터 ‘중국 사람들은 무섭다.’ ‘니 장기 단디 쟁기 레이’ 라는 등의 농담 섞인 말들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중국인 동료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망설일 때 중국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우리랑 말을 하기 위해 번역을 하며 말을 걸어 주었고,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웃음으로 넘기니 우리들은 어스새 두려움이란 벽을 허물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친밀해지면서 서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가르쳐 주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축구·농구·탁구 등 운동을 하며 장난도 치면서 중국 사람과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어느샌가 중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더럽다, 위험하다’ 등의 편견은 사라지고 중국 사람들이 참 착하고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후배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의 후배들에게 몇 마디 전해 주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글로벌 현장학습에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나 들어온 후 실습과정 등은 저와 많이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졸업 후 완전 취업을 보장할 수가 없어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졸업을 하고도 많은 노력이 필요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실망할 필요 없이, 이것은 스펙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들보다 더 꼼꼼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어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중국어들을 배워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많은 좋은 정보도 듣고 수다도 떨고 하며 재미있는 중국 생활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도 남은 기간 후배님들에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동아공업 고등학교 파이팅!!

씨에씨에 따지아!

꿈만 같았던 12주라는 긴 시간이 흘러 남은 날보다 지난날이 하루하루 늘어갈수록 ‘이별’ 이라는 시간이 다가오니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헤어지지만 열심히 노력하여 넥센타이어 한국 본사에 취업하고 장차 중국 공장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타이어 기술자로서의 꿈을 중국 대륙에서 펼치겠습니다. 그동안 정겹게 맞이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짜이찌엔! 안녕!



끝으로 우리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신 중국 넥센타이어 유한공사 이재수 총경리님, 오석규 이사님., 박철 과장님 등 여러 임직원분들과 기숙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신 김광순 누나, 대략 2주 동안 우리를 교육해 주신 우영호 주임님, 약 9주동안 동고동락한 제품평가실 형, 누나들, 저희를 지도하기 위해 함께 생활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열심히 노력한 반장 김도완, 이종민, 현진수, 이재철, 이용진, 김영민, 이동호, 허동호, 박승민!! 친구들아 ‘정말로 고맙다!’ 우리 전부 다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다시 만나자!!!

나는 현재 넥센타이어주식회사 입사를 위해 중국 넥센타이어 글로벌 현장학습 수료자에 대한 업무 협약에 의해 넥센타이어 인력양성 협약기관인 부산교통공사 BTC아카데미 타이어제조공정 2개월 과정에 합격하여 열심히 타이어 제조 전문 지식을 익히고 있다. 수료 후 그토록 꿈꾸던 넥센타이어주식회사 정규직에 취업할 수 있다는 기회 얻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그리고 이 사업을 적극 후원하신 교장선생님, 현지 파견교사인 정태욱 선생님, 이태욱 선생님, 김진성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성적으로 주관하신 민경록 선생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아공고 파이팅!!

글로벌 체험학습

학교명 : 동아공업고등학교
부 서 : 교무기획부 교사
성 명 : 민경록

본교가 3년 연속(2011-2013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본교는 2008년부터 중국 청도의 교육기관 및 글로벌 기업과 협약을 맺고 실질적인 중화권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기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부 주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전국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통해 실무 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글로벌 인재양성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현장학습 학교 주관 사업단 실무팀장으로서 느낀 점은 학생들이 현지 파견 되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언어소통이다. 따라서 파견 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꾸준한 현지 언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필요가 있다.

향후 이 사업이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얻었으면 한다.

한국의 앞선 교육 프로그램

기업명 : 中國青島耐克森輪 胎有限公司
부 서 : 총무팀
성 명 : 박 철

동아공고는 2011년 본사와 해외 인턴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2주간 글로벌 현장학습을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한국 교육부가 중국 직업학교와는 달리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중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등에 해외 현장학습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앞 선 프로그램이라 생각한다. 단지 12주간의 현장 실습 기간은 고도로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 생각하나 학생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한국의 위상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한국 동아공고는 수 년 중화권 글로벌 인재 양성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매년 겨울 방학에는 중국 칭다오농업대학 국제교육원에서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을 등 실질적인 글로벌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본사 현장 실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본사는 넥센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2005년 중국 청도 내서에 15만평 규모로 자동차용 타이어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1,500명의 종업원(한국 주재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80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하여 70%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동상작

우리들의 무한도전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 과 : 국제금융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양유림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 과 : 국제금융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신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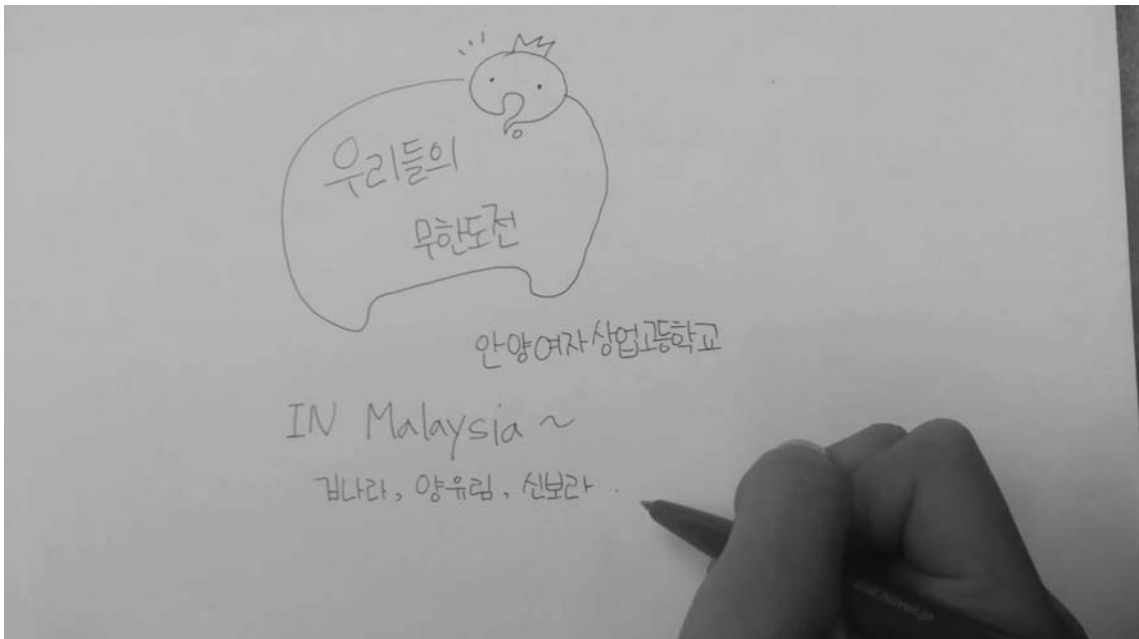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 과 : 국제금융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나라



두려움에서 설레임으로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부 서 : 특성화협력부 교사
성 명 : 최명옥

글로벌 현장학습은 그동안 운영했던 순수 학교 해외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정부차원의 프로그램이므로 많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에 새롭게 도전을 해야 했다. 프로그램 기획부터 사업유치, 현지기업협력, 학생선발, 선발 후 교육, 현지운영, 취업지도, 취업 후 적응까지 어느 한 단계도 소홀할 수 없고, 높은 완성도를 위해 늘 고민과 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건 설.레.임. 이란 큰 선물을 얻을 수 있다.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단단해지는 마음과 높아지는 열정 속에 학생들은 세상을 향한 예비 사회인으로써의 설레임을 갖게 되고, 나는 학생의 교사로서 설레임을 갖게 되었다. 본교가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힘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믿어주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전장을 내고 각자의 장점을 찾고 실력 있는 인재로 거듭나겠다고 각오했던 ‘믿음’이다. 그 믿음을 끝까지 변치 않고 꾸준히 발전하여 전공분야에서 외국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학생들을 보고 수 없이 눈시울이 뜨거워 졌고,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설레임과 함께 가슴이 뭉클해진다. 내가 ‘누구를 가르치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력을 자랑하는 인재,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앞으로 다양한 인종과 소통하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마음의 벽들을 허물며 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따뜻한 예비사회인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나의 역할인 것이다. 사랑한다! 멋진 나의 제자들~ 힘내자! ♥

Oh~ My Wonder Girls

기업명 : Sunway Group
부 서 :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r
성 명 : Lim Fung Ching

They are very accurate with their work. We seldom found any mistakes despite the amount of work we had assigned to them. They are able manage to do their work effectively and efficiently despite the huge volume of work assigned to them. When they has difficulty with some aspects of the work, They always ask us to reconfirm to ensure the work is done correctly. They are very punctual persons. They reached to office before work starts and never once have they been late for work. They always plans their duties in an organized manner, especially when sending bills. They can easily communicate verbally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language is excellent. I am sure they will become useful for any organization and this program has been very useful in building up their self-confidence and ability to work in an English-speaking environment. This programme as a whole has been managed very well and supported by Ms Jenny who has been a great teacher, providing guidance, support to all the students. I feel very blessed to be able to work with the teacher, Ms Jenny and all the students from Anyang Girls and would welcome more students for this programme with open arms in the future.

- **영상물 : 12주간의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
대전광역시교육청-계룡공업고등학교 김태호
- **꿈을 향한 나의 첫 발걸음**
전라남도교육청-순천효산고등학교
- **인도 체험기**
서울디지털고등학교 김도현
- **그땐 그랬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함종완
- **영상물 : 가자! 미지의 세계로 꿈을 향해**
유한공업고등학교 고제복
- **영상물 : 남과 다른 나의 꿈, 나의 선택**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윤준식, 김수한, 강호진
- **만남 그리고 이별의 순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이정근
-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수기**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김지수
-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3달, 12주, 85일, 2040시간**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김서현
- **영상물 : My Dream!**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임진솔, 장하영

장려상작

12주간의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



학교명 : 계룡공업고등학교

학 과 : 정보통신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태호

2013년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글로벌 체험학습 인솔교사로 다녀와서

학교명 : 경덕공업고등학교

부 서 : 교무부 교사

성 명 : 김성민

대전 계룡공고 김태호 학생은 성격이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학생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출발 전 사전교육 때부터 글로벌 현장체험을 준비를 철저히 한 학생 이었습니다. 처음 Penticton Secondary School 학교생활에서는 영어회화 능력이 부족하여 힘들어 하면서도 짧은 Words and Phrases, Body language 등을 활용하여 현지 학교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지 원어민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서고 운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 의사소통능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Homestay를 하는 가정에서도 능동적으로 집안 청소 및 일을 도와주고 어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교육을 해 현지 홈스테이 부모님들로부터 한 가족처럼 잘 어울리면서 훌륭한 학생으로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씩 만났던 Penticton 교육청 관계자 분들에게도 먼저 다가서면서 학생발표나 각종 행사에 음악,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스스로 만들어 발표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로 저를 비롯한 현지인들에게도 먼저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현지 업체에서 시작하는 Volunteer Job Shadow(직업체험) 활동에서도 자신을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Grooveyard 라는 Music Store에서 음악, 사진,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직업체험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위 학생은 지난 3개월 캐나다 현지 체험을 하면서 영어회화,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 문제 등 모든 면에서 월등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GROOVE YARD

기업명 : Groove Yard

부 서 : -

성 명 : Andrew

Your online music, movie, and cool funky stuff headquarters. We are committed to bringing you quality service at the lowest price. The GROOVEYARD has been selling CD's, Clothing, DVD's, Fashion Accessories, LP's, Patches, Posters, Video games and other funky items in Penticton, BC (CANADA) for the past 16 years. We feel the market is right to branch onto the internet with our web-store.



장려상작

꿈을 향한 나의 첫 발걸음



학교명 : 순천호산고등학교
 학 과 : 관광 조리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박석준

“2013년 겨울 밤 하늘의 별을 보며 오늘도 나는 꿈을 그린다.”

2010년 중학생처럼 보이는 한 소년은 부모님 앞에 선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빠, 저 요리하고 싶어요. 저 요리사가 될 거예요.” 그 소년은 주위의 시선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다. 매일 사고만 치고 철이 없던 소년을 아무도 믿지 못한다. 소년은 다짐한다. “두고 봐,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 만다!”

그해 첫 시험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 성적표를 내밀었지만, 반응은 시큰둥하셨다. 이 후 소년은 학교 교환학생으로 중국을 다녀온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정말 넓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소년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된다.

2년 뒤, 2013년...

치열한 경쟁 끝에 캐나다 글로벌 현장학습 파견학생으로 뽑히게 된다. 소년은 곧장 집으로 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소년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나의 꿈은 세계적인 셰프가 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너 출세했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성공했어.”

그리고 “나는 항상 1등이야, 내가 제일 잘해”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내 자신.

하지만 현재 나는 느꼈다. 이제 한발자국 나아간 것 뿐이다.

그렇다. 나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나는 청일점?

내가 속해있는 전남교육청 사업단은 총 14명의 학생들이 캐나다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Amy & Jenny 선생님. 조리, 미용, 관광 여러 분야의 다섯 학교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꽃들 중 잔디처럼 짧은 머리를 가진 잡초하나. 나는 다짐했다. “너희들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하지만 나는 짐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의 캐나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긴 비행시간이 지나 우리는 드디어 캐나다의 땅을 밟게 된다. 공항을 나오니 낯선 냄새들과 싸늘한 추위가 우리를 설레게 만들었다. 그리고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노란색의 스쿨 버스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었다. 우와!! 1시간가량 비포장도로를 지나 D.V.S.S (Drumheller Valley Secondary School)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2달간의 학교생활과 남은 한 달간은 각 업체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 가장 먼저 기숙사에 도착한 뒤 James라고 내 이름이 적힌 방문을 열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룸메이트가 있다. 하지만 나는 아무도 없었다. 외로웠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워 설레임과 걱정이 가득한 캐나다의 첫날밤이 지나고 있었다.

다음날, 시차적응의 실패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주변을 산책하였다.

푸른 하늘,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구름 그리고 낮은 건물들. 드림헬러의 첫인상은 그러했다. 길은 걷다보니 한국의 복잡한 교통과는 달리 단순하며 넓게 확 트인 들판과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운전자들.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외국인에게 “Hi, how was it going?”이라며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 나는 캐나다만의 따뜻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캐나다의 교육을 배우다

시차 적응을 끝낸 우리는 드디어 학교에 입성하게 되었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교장선생님과 살바토르(취업담당)선생님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학교 시설을 빠짐없이 구경을 했다. 영화관을 연상하게 하는 학교 극장과 조리실습실, 미용실습실, 목공실, 음악실. 그리고 남자들을 자극시키는 헬스장 등 여러 분야의 진로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든 학교였다. 한국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골라 일정에 맞게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학점제로 이루어지는 학교 시스템과 학년에 상관없이 한 클래스에 모여 수업을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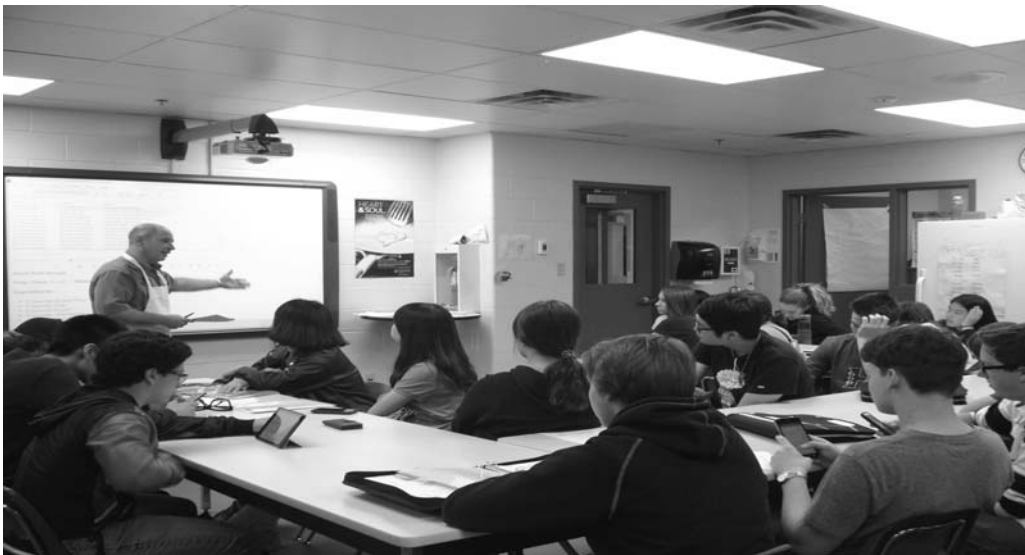
우리의 첫 번째 수업은 ESL 영어수업이다. 이 수업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수업이었다. 이 수업의 런드 선생님은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했으며 사실 나도 무서웠다.

2교시 전공과목 수업이다. 조리가 전공인 나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수업하시는 cooking class를 듣게 되었다. 항상 교장선생님께서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면서 “Good morning” 인사하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3교시는 관광수업이다. 이 수업은 우리들 조리, 미용, 관광 전공의 공통점인 서비스 관광문화와 캐나다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다.

4교시는 취업안전수업 및 취업 준비를 위한시간이다. 이 수업의 살바토르 선생님은 나를 “My son”이라 부르시며 예뻐해 주셨다. 그만큼 우리를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고마운 분이다. 그리고 Thanks giving Day에는 살바토르 선생님 덕에 초대를 받아 칠면조 요리도 해주셔서 즐거운 추억도 남겨주셨다.

캐나다는 한국의 치열한 경쟁 중심의 교육과 달리, 자신이 잘하고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학교시스템은 이곳 학생들의 자유로움과 여유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2개월이란 짧은 시간동안 앞으로의 한 달간의 인턴십과 미래의 해외취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교장선생님의 조리수업중

안녕 나는 제임스야!

나의 영어이름은 James Park이다. 글로벌 현장학습 사전교육을 받았던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사용해온 나의 두 번째 이름이다. 제임스는 사람들이 외우기 쉽고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예상은 적중하였다. 나를 봤던 사람들은 모두 제임스란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 처음에는 제임스라 불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박석준이라는 이름보다 제임스라고 불리는 것이 더 편해졌다.

내가 지내는 곳을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는 학교 옆에 위치한 기숙사에서 지낸다. 작지만 체계적으로 캐나다의 엄마인 3명의 슈퍼바이저와 사무실과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있었다. 우리는 함부로 행동해선 안 되었다. 그리고 이곳엔 게임룸을 비롯해 탁구장과 TV시청과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걸스라운지와 보이스라운지, 우리들의 빨래를 도와줄 Laundry room이 있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 간식타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곳을 차지하곤 했었다.

한가로운 주말이면 우리는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하였다. Royal

Tyrrell Museum 이라는 지상최대의 공룡 박물관으로 스타트를 끊게 된다. 이곳 드럼헬러의 관광수익은 이 박물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생애 처음으로 큰 공룡 뼈 모형을 본 후 정말 공룡이 존재 했었구나 라고 실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체험활동이 없는 주말에는 학교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곤 했다. 처음에는 자막이 없는 영화를 보니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 잠이 들곤 했지만, 지금은 자막 없이도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학교 영화관



게임룸(포켓볼 중)



공룡박물관

캘거리의 Cross Iron Mills 쇼핑몰과 워터파크 수영장도 갔었다. 쇼핑몰에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좋은 옷이 많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질투심을 사기도 했었다. 그리고 안전 요원 출신이었던 나는 수영장에서 물 만난 고기가 되었고, 감기에 걸려 고생하게 되었다. 낯선 이국 땅에서의 아픔이란 차마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었지만 아플 때, 챙겨주었던 친구들과 진심어린 눈빛으로 걱정해주신 선생님들이 있어 금방 나올 수 있었다. 나는 그때를 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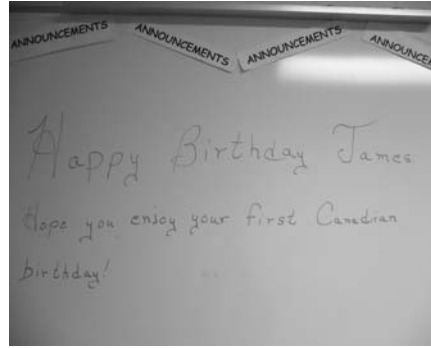
캘거리 Cross Iron Mills 쇼핑몰 문화체험



캘거리 Village Square 워터파크

□ 9월 25일_ Happy Birthday

나의 10대 마지막 생일을 캐나다에서 보내게 되었다. 감회가 새로웠다. 기대는 안했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준비해주었다. 내가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웃음) 생일을 축하한다고 적힌 친구들의 메시지들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 10월6일_ 삼겹살 파티와 협곡 트래킹

현지에 사시는 한국인 박치하 사장님 댁에 우리들은 초대받게 되었다. 한 달간의 캐나다 현지 음식만 먹었던 우리가 꿈에 그리던 김치와 삼겹살을 먹었다. 그리고 TV앞에 줄 줄이 앉아 한국방송을 보며 수다를 떠는데 마치 한국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차를 타고 Horse Thief canyon을 트래킹하며 캐나다 특유의 맑은 하늘과 지층으로 이루어진 습곡과 단층을 가진 골짜기 협곡들을 직접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다시없을 소중한 추억들을 가지고 왔다.



□ 10월 26일_ 록키산맥을 가다, Banff Trip

우리는 세 시간 가량을 달려 록키산맥에 위치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Banff 국립공원에 갔다. Banff를 찾은 수많은 관광객들과 산꼭대기를 덮은 설경이 나를 설레게 하였다. 그곳에는 150년이 넘는 유서가 깊은 Banff Springs Hotel이 있었는데, 호텔 구석구석을 견학하면서 나도 언젠가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주연인 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배경이 된 보우폭포를 방문하였다. 폭포 뒤로 펼쳐진 록키산맥의 절경은 내가 숨쉬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었고 나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다.



보우폭포에서 기숙사 친구들과 단체사진



밴프 스프링스 호텔

□ 10월28일 Hello, Bros! Greentree 초등학교 아이들과

인턴십 과전을 앞두고 우리 학교와 가까운 곳의 Greentree school 초등학생들을 초대하여 우리와 함께 한국식 피자과 닭죽을 만들어 이곳 선생님들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2명의 동생들을 갖게 되었는데, Cort와 Matthew이다. 아이들은 뽀뽀뽀 적힌 정성스런 편지를 건네 주었고, 편지를 읽으면서 한국에 있는 여동생이 생각나 아이들에게 친형처럼 잘해주었다. 그리고 헤어질 때 껴안으며 이별을 아쉬워했다. 나는 아이들이 나처럼 훌륭하게 자라길 빌었다. 진심이였다.



□ 11월9일 북미최대 쇼핑몰 West Edmonton Mall

북미 최대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쇼핑몰인 West Edmonton Mall에 가게 되었다. 쇼핑몰 안의 물개쇼장과 놀이공원, 워터파크, 스케이트장, 골프장 그리고 100개가 넘는 Shop들이 나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서 길을 잃었다. 다행히 친구들을 만나 쇼핑몰을 돌아보며 한국에서 기다릴 나의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과 기념품들을 샀다.



웨스트 애드먼턴 몰 앞에서

□ 11월22일_ 한국 제일 잘 나가, International Day

다국적 유학생이 많은 현지 학교 특성상 매년 International day라고 불리는 각국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음식을 만들어 함께 즐기는 학교 행사가 있어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한국부스는 불고기 찜 정식과 김치전 등 한국의 고유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선보였다. 단연 한식의 인기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들은 국가대표가 된 기분이었다. 한식의 세계화가 머지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중에 나도 세계적인 요리사가 되어 한식을 세계 곳곳에 알려 한식의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 11월23일_ 드디어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다!!

드림헬러 드래곤즈라는 이 지역의 아이스하키 팀의 홈경기가 있다고 하여 아이스 하키장을 방문하였다. 한국에서는 인기 종목이 아닌 하키는 우리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과격한 몸싸움과 날렵한 스피드는 나를 불타오르게 하였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홈팀과 원정팀의 신경전은 재밌는 볼거리 중 하나였다. 경기가 끝난 후 승리를 한 홈팀 선수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사인을 받고 인사도 나누었다. 큰 덩치와 잘생긴 얼굴을 가진 선수들을 보며 환호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나는 질투가 나기도 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공식적인 Activity가 끝났다.



“저 요리하고 싶어요.”

벌써 2개월이 흘렀고, 우리들은 현지 업체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다. 내가 파견된 곳은 Boston Pizza 라는 캐나다 유명 패밀리레스토랑이었다. 출근 전날 밤 나는 설렘과 근심으로 잠을 설쳤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 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가장 앞섰다.

□ 11월1일, 설레는 첫 출근

인턴십을 했던 보스턴 피자 레스토랑과 라운지 바를 겸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손님이 가장 많다고 자부할 수 있다. 주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나오는 주문서들 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요리사들을 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재료들, 맛스러워 보이는 파스타와 피자들은 나의 피를 끓게 만들었다. 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일은 파스타면을 정해진 온스(oz)로 계량해 봉지에 담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라도 좋았고 행복했다.

어깨 너머로 보이는 요리사들의 움직임과 달그락거리는 팬 돌리는 소리는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저런 능숙함이 나올 때까지 수많은 노력을 거친 요리사들이 존경스럽고 멋있었다. 처음, 서툰 영어 실력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한심했다. 나를 낯선 이방인처럼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나를 이해한다는 듯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며 서툰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주방 매니저인 Erick은 첫 직장에 부족한 영어로 적응하느라 힘들었던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나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서툰 영어 실력으로 이것저것 물으며 기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내가 하는 것마다 칭찬으로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었다. 그리고 “너 이거 못하면 한국 돌려보낸다.”라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하는 농담과 친절함은 한국의 아버지와 친구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존경스러웠으며 닮고 싶었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나중에 내가 셰프에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면 어린 요리사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셰프, 누구나 닮고 싶어 하는 존경스러운 셰프. 나는 그런 요리사이고 될 것이다.

어느 날 나에게 중요한 포지션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샐러드 파트였다. 처음에는 그 자리를 앞두고 쉬운 일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샐러드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주문량도 가장 많았으며 그릴과 관련된 스테이크나 닭을 이용한 모든 요리가 나의 임무였다. 샐러드의 종류는 50가지에 달했다. 처음에는 서툰 영어 실력과 영어로 적힌 레시피들과 7가지 익힘의 스테이크들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것은 기회라 생각했다. 쉬는 시간마다 낫선 재료들과 레시피를 익혔고 많은 질문들로 요리사 동료들을 피곤케 했다. 나의 음식을 손님이 먹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행복했다. 처음 일할 때의 팔 다리의 근육통은 나를 성장하게 했고, 지금 현재는 힘든 것보다는 즐거움이 앞서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에 하키경기가 있던 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보스턴 피자에 찾아왔고, 수많은 주문들이 마구 쏟아져 나를 비롯한 주방의 요리사들을 당황하게 했다. 등 뒤로 흐르는 식은땀과 불안감 속에서 오는 실수들은 나의 손을 떨리게 했다. 우리 주방은 팀워크를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그 과정 중에 영어를 능숙하게 내뱉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영어를 내뱉고 있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고, 영어에 대한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요리 하는 내 모습은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하는 듯 스릴을 느꼈고, 나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요리사는 나의 천직이다!!”

마지막 요리가 나간 후 주문서들이 포개어 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말없이 하이파이브와 포옹, 환호를 지르며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한 선수들처럼 승리를 만끽하였다. 나는 ‘요리사들은 직장 동료가 아닌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이날 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해외취업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My Bros_ 나의 주방 동료들

처음, 다른 업체에 간 친구들은 덜 바쁜 주방환경에서 팁을 받으며 일을 한다는 사실에 부러워했다. 하지만 점차 일에 재미를 붙이면서 오히려 내가 남보다 배울 시간도, 영어를 쓸 수 있는 시간도 더 많고, 실전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더 이상 부럽지 않고 오히려 내 업체에 더욱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밑바닥부터 배웠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우려고 나의 자존심도 버리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이곳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실수투성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실습생에게 많은 가르침과 기회를 준 보스턴피자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어릴 적 꿈은 서울에서 성공하여 큰 레스토랑을 차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화이팅!!!

잊지 못할 추억 그리고 성장

체육관에서 땀을 뺀 채 축구를 하며 장난도 치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고, 헬스장에서 서로의 근육을 비교하며 웃고 떠들며 동고동락했던 기숙사 친구들...

그리고 비록 성별도 전공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누나처럼, 오빠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우리들. 외국인 친구들에게 침튀겨가며 한국 자랑을 하였던 우리, 그 때만큼은 국가 대표였다. 그저 멀게만 느껴졌던 외국인들, 지금은 먼저 다가가 인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이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고, 시간이 정말 짧다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해보지 못 한 것들이 많아 후회가 되지만, 10대의 마지막 청춘을 보낸 캐나다 드림헬러, 이곳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와 같은 기회를 갖게 될 후배들아! 외국이라는, 첫 경험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을 자신감과 도전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바꾸면 나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경험을 할 수 있을거야! 이제 우물 안에서 나와 세계를 꿈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년은 걱정과 기대감을 가져왔다. 그리고 꿈을 가져간다.” - James -



전남교육청 과장님과 장학사님, 전남미용고 교장선생님과 함께

보고 싶을 거야, 친구들아!!

그리고 캐나다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모두 수고 하였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빠, 저 캐나다 갈 거예요.”

학교명 : 순천호산고등학교
 학 과 : 관광조리과
 성 명 : 박재천(박석준 父)

작년 여름,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달려와 침 튀겨가며 자랑하던 아들의 환한 미소가 잊혀 지지 않는다. 메일을 통해 3개월간의 아들의 캐나다 생활을 엿보면서 아들이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에 더 이상 철없는 어린 아들이 아니란 것을 느끼게 된다. 어린 나이에 요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대학을 나와야만 이 사회에서 대우받고 성공 할 수 있다는 사회 통념적인 틀을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들은 며칠 뒤 이태리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였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추억을 쌓을 좋은 시기에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 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외식업의 특성상 공휴일, 주말도 없이 밤늦게 까지 일을 하고 퇴근해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항상 일을 마치고 나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통해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 볼 수 있었다.

아들아, 아빠는 지금 너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본다. 미래는 꿈을 꾸고 노력하는 자들만의 몫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구나. 언제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나바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길 바란다.

박석준~~화이팅!!!!

기업명 : 브런치마켓
 부 서 : 조리부
 성 명 :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브런치마켓 본부장 이상호입니다, 이곳은 Bistro Casual Italian Restaurant입니다. 나폴리피자의 10가지 엄격한 규정을 지키면서, 국내산재료만을 고집하는 고객사랑 브런치마켓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희 멋진 가족 한사람 소개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조리부, 영업부, 광양점까지 직원들은 25명 정도 업무 진행중입니다. 아직은 큰 다툼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상관들과 파트타이머에게 너무 잘합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는 화덕피자, 안티파스토, 샐러드 등인데 나이, 경력에 비하면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연구하고 학습하는 태도는 우수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정, 노력, 숙련 등이 필요 한데 골고루 잘 갖춰진 듯해요. 여기에는 호산고 조리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노력하고 학생들 교육방법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도 우수하죠. 왜냐면 전 서울에서만 레스토랑 경영과 업무를 병행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친구들을 잘 모르지만, 몇몇 직원들을 경험해 보니,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순천에선 아직까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매장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내·외부 정리하고, 해야할일이 엄청 많은데도, 피부리지않고 당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석준이 친구이쁘죠. 저희 회사가 성장함에 꼭 같이할 수 있는 가족이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려상작

인도 체험기



학교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학 과 : 게임영상학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도현

인도(India)에 대해서 알고가기!

인도, 땅의 면적은 세계 7위로 대한민국보다 15배가 넓고, 인구수는 세계 2위로 약 12억 명이 넘는다. 종교로는 힌두교가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으며,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을 믿는 신앙자들도 있다. 언어로는 힌두어 외의 각 지역 언어로써 14개의 공용어가 존재하며, 영어가 상용화 되어있다. 시차는 한국보다 3시간 30분이 느리다. 국기는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삼색의 가로 줄무늬 중앙에는 파란색 법륜이 존재하며 이것은 24시간을 나타내는 24개의 바퀴살을 가지고 있다. 또 이것들은 각각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 상단의 주황색은 용기와 희생을, 중단의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를, 하단의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중앙의 법륜은 법의 윤회를 뜻한다.

나마스테, 인도로의 여정계기와 나에 대해서.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렸다.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은 진짜 가는 건가? 라며 병병하게 느끼며 출국 당일을 맞이했다.

많은 격려를 받았다. 처음으로 가족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개월간의 공백이 생겼다. 처음에는 별게 아닌 줄로만 느껴졌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한국이 그림고 가족과 친구가 보고 싶었다.

시간을 조금 되감아 내가 인도라는 곳에 오게 된 계기와 나에 대해서 들려주겠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언제나처럼 지나가고 지나가는 평범하고 무난한 일상이었다. 또래 아이들은 한명씩 취업을 나가고 수능을 준비했다. 나는 언젠가부터 해외에 대한 망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게 된다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만 같았고, 당장 변화가 필요했다. 이렇게 언젠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 곳 인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가정형편을 생각하면 나에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잡은 것 같았다.

가정형편이라고 하니 생각해보면 지난날들의 나는 아버지께 해선 안 될 불효를 저질렀는지 모른다. 돈이 없으니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다니.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외면했던 건 내가 아닐까? 언젠가는 내가 언지시 이런 문제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을 때에는, 아버지께서는 그런 생각 말라며, 네가 만약 해외로 가길 원하거든, 무얼 하길 원하거든 말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날 나의 영웅의 주름진 눈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부터였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는 내 우상이셨다. 단 한 명밖에 없는 우리가족의 영웅이었고, 가장이신 아버지. 철없을 적 나는 꿈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 적기도 했었다.

하지만 점점 내가 커가면서 아버지는 점점 왜소해지셨다. 그러면서도 절대 허리는 굽히지 않으신 아버지를 보며 자라온 나로서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왜소해지시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내가 아버지의 힘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다. 효도 한 번 해보려고 아버지에게 안마를 해드리길 시작했을 땐, 정말이지 아버지의 등이 그렇게 슬퍼 보일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계속 울다 잤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6학년 이래로 아버지와 내가 둘이서 살기 시작한지 이제 어언 6년, 7년이 다 되어간다. 계속 죄송한 마음에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서글썩던 사소한 일들도 다 잊혀졌다. 나는 장남이고 여동생이 한 명 있었다. 여동생은 외가와 함께 떠났고 머지않아서 중국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렇게 떨어져 산다 해서 만나지 못한 건 아니다. 화상통화도 몇 번 했었고, 최근 여동생은 한국에 정착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학력을 얻겠다 들었다. 다만 중국에서의 학교생활은 인정이 되지 않아서 중등고시부터 봐야 한다는 듯하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만큼 다른 가정들도 저마다 하나씩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느낀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행동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들은 제 삶에 혼심을 다하며 살아 갈 것이다. 하지만 내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땐 난 너무나 초라했다. 모든 걸 빼놓아진 시선으로 바라 보다 보니 어느 샌가 남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 아니, 원래 이런 것이 정상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했다. 가지고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정말 한심하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인도의 한 기업에, 내 전공은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 인턴십 교육을 받는다는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했다. 세상에 이런 기회를 쉽게 찾아 볼 수나 있겠는가? 그래서 덤석 기회를 물은 것이다.

사전에 학교에서 방학기간 허송세월 하던 것도 청산하며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했다. 집에 와서도 동화책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영어 원문 소설을 읽었고, 인도 영어 억양에 익숙해지고자 서수아 선생님이 주신 인도의 한국 대사분이 나왔던 모 프로그램의 오디오파일도 들었다.

나는 인도에 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10명만이 갈 수 있는 곳에 최종으로

12명이 신청을 했으니 열심히 해야 했다. 그보다 적은 수가 신청했어도 열심히였을 것이다. 결국 2명이 포기해서 10명 정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인도에 올 수 있었다. 4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홍콩으로, 홍콩에서 5시간의 기다림을 가진 끝에 다시 한 번 4시간을 타고 인도의 뱅갈로르(Bangalore)에 도착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병병했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숙소에 도착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고 나서야 가슴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게 있었다.

내가 정말 인도에 왔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이 났다.

CMR Management College와 KS India, 만남과 공부, 그리고 작별(수료식).

앞으로 만나게 될 선생님들과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우리는 인도에서 거주하는 3개월 중 1개월을 부족한 기초영어를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CMR경영 대학은 우리의 오전 수업을 책임졌다. 이곳에서 많은 선생님들, Mr.Jiju, Mr.Govind, Mrs.Ahnupama, Mrs.Aditti 분들 등... 다양한 선생님들을 뵙고, 영어에 대한 교육과 매주 수요일 2시간은 인도의 문화 축제, 음악, 춤, 의상, 문양에 대해서 배웠다.

교과서를 사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였지만 활동적인 수업이 있어서 더욱 이해가 잘 될 수 있었다.

오후에는 다른 곳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우리들의 3개월간의 인도생활의 계획들을 담당하는 여행사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의 어느 대학교와도 연계를 맺어 그곳의 학생들이 인도에 와서 공부와 봉사 등을 하고 간다, 많은 유학생들의 교육과 숙식도 관리하는 등의 업무도 하고 있는 듯 하고 말이다. 우리들의 오후수업을 책임진 이곳의 이름은 KS India이다.

KS India에서는 학생들을 5명씩 나누어 2개의 반으로 만들었고, 다른 반의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내가 속한 그룹의 선생님은 Mrs.Soraya이었다. 50대 초,중반의 푸근한 인상과 풍만한 풍채를 지니신 여성분이셨다.

나뉜 반으로 3시간 동안 영어와 인도문화에 대해서 공부했고 2시간은 Mr.Rahul이라는 20대 중반의 미남상의 남성선생님에게서 C프로그래밍과 포토샵 등의 수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오전에는 CMR경영 대학, 오후에는 KS India수업이 한 달간 진행되었고, 한 달이 지나자 우리들은 수료식과 함께 선생님들과의 이별을 고했다.

잊지 못 할 선생님들의 가르침, 함께 했었던 기억. 나중에 다시 떠올려 본다면 좋았던 시절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때 까지도 나와 함께 할 내가 한 달간 두 곳에서 수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료증과 수료식 사진들과 함께 말이다.

케랄라, 인도에서의 첫 장거리 여행 - 하우스 보트, 동물원 (버스).

수료식 날이 끝난 당일 저녁 우리들은 인도에서의 첫 장거리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목

적지는 케랄라, 버스를 타고 15시간의 기나긴 여정이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불 일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다. 불 일들은 가끔씩 버스가 정차하여 그 때마다 노상에서 처리하였다. 화장실이 유료이기도 하고, 노상이나 화장실이나 다름 바가 없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은 일들은 노상에서 처리했다.

내가 인도에 와서 처음 노상에서 불 일을 보시는 남성을 봤을 땐 ‘저 사람은 대체 뭐지?’라는 생각에도 빠졌었지만 이렇게 인도에 몰들어 가는 것인지, 인도에 온 우리 남자 일행들은 조용히 침묵을 고수했다.

이렇게 케랄라에 도착하고, 땅이 넓은 만큼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인지라 1시간을 더 차량을 이용해 자스민이라는 숙소로 도착했다.

숙소는 인도풍 음식에 맛이 독특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숙소 안에 수영장이 있었다. 조그만 곳이었지만 우리들이 놀기에는 적당한하기에, 식후에 재밌게 놀았다. 이 후에 바다도 한 번 돌아보았고 현진이라는 친구와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는데, 내가 이기긴 했지만 현진의 왼쪽 무릎에 이상이 생겨서 다음날 아침 병원에 들렀다. 근육이 놀랐는데 무리하게 움직여서 붓기만 하여서 아픈 것이었다고 한다. 더 큰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심했지만 내 잘못이 있기에 부축을 해줬어야 했지만 키가 안 맞아 현진이 더 힘들어 하기에 나는 가뜰서 미안하다는 표정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 고마웠던 것은 현진이가 다쳤는데도 너 때문이니까 라는 투로 날 안 대해줘서 고마웠다.

하우스 보트라는 것을 타보게 되었는데, 바다 같은 강 위에서 타는 것이었다. 과연 하우스 보트는 이름 그대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음식을 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에 온지 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인도음식을 손으로 먹어보았다. 이보다 귀한 현지체험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 위를 돌아다니는 배위에서 현지음식을 현지음식으로 체험하는데, 이보다 값진 현지경험이 있을까. 이렇게 강을 한번 돌고, 동물원에 가게 되었는데, 세상에, 코끼리가 우리 밖에서 돌아다녔다. 물론 그 옆에서 조련사가 함께했지만 코끼리가 우리 밖에서 돌아다닌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엄청 신기해하던 나는 가까이까지 가서 사진을 찍었다. 코를 휘둘러서 무서워져서 금방 피했지만. 다른 동물들도 많이 봤지만, 이 동물원에서 제일 기억에 남게 될 것은 우리 밖의 코끼리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에 인도에 올 때는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곳이었다.

MG로드와 여러 mall 소개 (피닉스, 오리온, 만트리 등..)

MG로드, 마하트마 간디가 걸었던 길이라 하여 이 길들은 대부분 상점가들이 많고, 간디가 걸었던 길이 한곳만이 아닌 만큼 MG로드는 다른 곳에서도 존재한다고 들었다.

우리들이 벵갈로르에 거주하면서 여러 대형 몰Mall, 한국의 백화점과 같은 곳들을 들렀는데, 그 중 피닉스몰은 가장 의류가 저렴했고, 세일 품목이 많았다. 오리온몰은 피닉스몰

의 세배는 더 컸고, 그 만큼 비싼 물건들이 많았고, 군것질거리들이 저렴했다. 만트리몰이란 곳은 오리온몰과 크기가 비슷했고 물품들은 비쌌지만 몰 내부에 포켓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난다. 만약 몰을 한 군데 추천해 달라고 한다면 나는 당연히 피닉스몰을 추천 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삼대필요요소 의식주 중에서 의류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편한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그리고 최근에 피닉스몰에 들렀을 때는 아이들을 조그만 기차에 태우고 몰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좋은 추억과 신선한 충격을 받아갈 것 같다.

L&T, 난디힐, 필름시티, 새로운 만남 - 팀 프로젝트 - 느낌.

드디어 이곳 인도에 오게 된 목적과 조우하였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다. 정말로 L&T Infotech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온 것이다.

한국도 아니고 해외의 대기업에 인턴십 공부를 하러 오다니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한국으로 치자면 LG와도 같은 곳에서 인턴십 공부를 시켜주는 격이지 않을까 싶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곳에서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시작한다는 점일까. 영어로 배우는 것과 영어를 하며 배우는 것의 차이는 지대하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해내는 것이니만큼 당연한 것이겠다.

첫 날은 L&T Infotech에 대해서, 이 회사는 어떤 사람이 창립하였는지, 이 회사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할 사항들을 Mr.Pparul로 부터 전해 들었다.

다음날부터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기초적인 C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컴퓨터를 이용해 코딩작업까지 해냈고,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C++에 대해서 배우고 그에 대한 문제들을 다수 풀어보며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래밍에 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Mr.Kiran에게서 배웠는데, 완벽한 회사가 갖추어야 할 4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았다. ‘기술, 사람, 경영, 시장’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도 감탄이 나온다. 아마도 저런 완벽한 것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 완벽함을 동경하는 것 같았다. 직접 본인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고맙게 느껴지는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어정쩡한 사장이지만 말이다. 아직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직접 무엇을 하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과연 누가 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까? 라는 생각을 하며 명함도 만들고, 제품에 대한 종이도 여러 차례 주변 건물 우편함 사이에 끼워넣기도 했었지만 그 누구도 내 쇼핑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사회라는 괴물의 뱃속인가? 싶었다. 나는 이 경영 수업을 마치고, 약속에 대한 강력함과, 신의, 사회에 대해서 다시 배웠다. 그리고 또 다른 수업으로 소통, 사내예절, 이메일 에티켓에 대한 수업을 Mrs.Priya에게서 배웠다. 소통은 나와 다른 사람, 혹은 사람들이 대화 하는 것이다.

자신만의 은어를 사용하거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함과 동시에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사내예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르거나 어둡고 밝은색 (진녹색, 회색, 검은색)등의 너무 튀지 않는,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모자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며, 반지는 양손에 각각 한 개 까지, 목걸이나 귀걸이 등은 너무 귀금속품이 아니어야 되는 것. 이메일 에티켓으로는 육하원칙에 맞추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메일의 제목으로 보내고자 하는 메일의 중요성을 알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로 읽어야 되는 급한 것인지, 나중에 읽어도 되는 급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활용한다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메일 에티켓에서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새롭게 제대로 알아가는 듯하다.

힘들었다. 정신이 나약해지니 육신도 덩달아 무기력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압당한 와중에 타지에 나와 있는 아들을 늘 위해주고 걱정해주는 문자를 주시는 아버지가 생각났다. 어떻게 결심하고 온 인도인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내게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역시 가족보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는 없을 것이다. 있다면 친구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열심히 했다. 암기가 아닌 이해를 최우선이라기보다는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프로그래밍이다. 수년간 정체되어있던 뇌가 다 활성화되는 기분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취약했던 언어에 대한 문제도 사라져 가고 있었다. 서로 말을 안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다. 매일 영어로 일지도 쓰는 마당에 무슨! 그런 일은 없겠지. 아마 이런 일들은 절대 혼자였으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좋은 스승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같이 있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정말 하염없이 흐르고 정체되지 않는다. 끊임 없이 흐르는 이 흐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둬야 될 사실들이다.

당연하겠지만 우리들의 일정들에는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 기계도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지치기도 한다. 이를 알았던지 어느덧 주말이 되었다. 이 날 새벽에는 난디힐(Nandihill)이라는 그 넓은 뱅갈로르가 한 눈에 보이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산에 가봤다. 과연 옛 왕국이 성벽을 쌓고 전쟁을 치루 던 곳이었다. 시대의 흔적과 옛 왕국의 성벽이 아직까지도 잔재했었다.

어느 산에서든 정상에 오르면 무언가가 다른 세상이 보이고, 형용할 수 없는 기분들이 전신에 휩싸인다. 이 곳 난디힐의 정상은 장엄한 자태를 풍기며 광대하고 자유롭고 거친 풍랑들이 내 전신을 있는 힘껏 후려쳐왔다. 이토록 바람은 자유롭고 광대하고, 산은 굳건하고 성과 같은데 나는 혼란스럽고 뿌리마저 내리지 못한 씨앗이다. 내가 자연친화적인 건지, 미친 건지 모르겠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는 풍랑을 맞으며 괴롭고 힘든 생각을

날려버리고 산을 내려왔다. 이곳에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사들께, 나에게 다시 한 번의 열정을 준 난디힐에게 경의와 예를 표한다.

다음 날에는 필름 시티 Film city라는 놀이공원에 찾아갔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라는 것인지 서울랜드의 청룡열차 같은 것만 십 수번은 탄 것 같았다.

즐기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즐겁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즐겁고 고마웠던 주말이 끝나고 우리는 L&T에서 화룡정점에 홍일점과도 같은 팀 과제를 맞이했다. 팀 과제, 각 팀끼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껏 배웠던 것들이 결실을 맺을 때인 것이다. 4명, 3명, 3명으로 각각 팀1, 팀2, 팀3으로 나뉘어졌고 나는 팀3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 팀3에게 주어진 과제는 은행의 ATM기기를 표현하는 것인데, 3개의 계좌 종류 예금계좌, 일반계좌, 적금계좌가 있다. Savings가 Rs.2500(*한화로 5만원 정도)가 넘는다면 수표책을 유저에게 주는 등, 대출은 자신의 적금의 80%만 대출 가능하다는 등, 대출 된 돈과 갚아진 돈들을 합하여 보여주는 기능과, 예금계좌와 일반계좌, 적금계좌의 합을 계산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이다.

어느 문제를 맞이하던 먼저 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한 법. 각 팀들은 주어진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다. 순서도를 만들어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흐름을 살피고, 어떤 구조로 코딩이 될지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각 작업이 끝날 때마다 PPT를 만들어서 발표를 진행했는데, 배우는 입장이었음에도 상당히 부족한 발표실력에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최종적으로 코딩작업의 기초적인 설정을 자리 잡기 위해 초기타입 코딩작업에 들어갔다. 현재진행형인 일이기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움을 주고받은 팀원들의 시행착오들이 떠오른다. 선생님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이해한 것, 그리고 문제지에 써져있는 문제들, 이렇게 세 개의 것들은 지금까지도 충돌해왔었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팀끼리 해온 대로 믿고 코딩작업에 착수했다. 아직 미완성의 것이라 결과가 기대된다.

시작은 스타팅 자세를 취한 육상선수와 같이, 진행은 단단한 돌다리도 두드려보며 건너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기도하고, 서로 승패를 가늠하려는 시합선수들과 같이 자신이 마주한 시련과의 충돌도 있을 것이나 결과는 사과나무에 열린 달달한 사과들과 같이, 땅에서 주르르 뿔뿔히 나오는 감자 무더기와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다음 글로벌 현장학습 후배들에게.

처음 인도에 왔을 때, 당연하게도 낯설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온 이상은 최선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했다.

시작은 계획세우기이다. 오기 전에도 계획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계획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한다. 하지만 이 때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삼을 준비해놓고 손으로 땅을 파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아침에 일어나면 5분, 10분 더 자고 싶어서 이불을 꼭 싸매 덮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되기 전에 대충 씻고 일정에 나서겠지. 이러면 안되는 것이다. 3개월 이란 시간이던, 하루란 시간이던, 단 1초 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 그 첫째, 잠자리를 정리해라. 기지개를 펴는 것도 좋을 것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깨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이나 나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잠자리를 정리하고 시작한다.

둘째, 씻어라.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고 오늘 하루를 다짐해라. 만약 네가 오늘 하루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눈물을 꿀과 같이 먹는 자 일 것이다.

셋째, 아침을 먹어라. 너의 타지에서서의 건강을 책임지고, 날마다의 에너지를 제공해줄고마운 일용할 양식님이시다. 농부 분들과 요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먹자.

넷째, 옷을 입어라. 만나게 될 사람들에 따라서 의상이 바뀌겠지만, 화려한 의상을 삼가고, 특히 모자는 주말이나 관광 가는 날과 같이 혼자 가지는 시간이 아니면 삼가라. 머리를 안 감았다고 모자를 쓸 생각이면 머리를 감아라.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것인가?

마지막, 이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라. 밥 먹는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씻는 정도는 가능 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오늘을 위해 생각하라.

바깥에서 행동할 때는 그 누구에게라도 인사를 해라. 네가 먼저 친근하게 웃으며 다가간다면 그 사람들은 너에 대한 좋은 인상이 생길 것이다.

공부할 때는 질문을 많이 해라. 쓸데없는 질문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는 낯선 사람인 것이다. 대화하면서 농담도 해보고 사적인 질문도 할 수 있으나, 공부할 때는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해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마다하실 때 정하신 선생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나 진심을 다해 대하라. 질서를 지키고, 예를 다 하고, 약간의 화술만 있다면 그것이 곧 관계의 모든 것이 아닐까 싶다.

향후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사항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건의해볼 만한 의견들을 써보고자 한다.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의 향후 계획서를 만들게 해보자. -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향후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만큼 착실한 학생인지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선착순이나 실력이 아닌, 학생들의 미래를 검토해봤으면 한다. 사람들의 모두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을 열 계기가 늦게 찾아오거나 특별한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글로벌 현장학습과 함께한 2013년

학교명 : 서울디지털고등학교
 학 과 : 연구부 교사
 성 명 : 송창용

2013년 한해 글로벌 현장학습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을 넘어 인도와 협약을 맺고 업무 협조를 하는 일은 매일이 도전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준비의 결과로 글로벌 현장학습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전은 학생들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문화의 나라 더군다나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로의 현장학습은 학생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영어에 대한 걱정이 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은 학교와 어학기관, 기업의 연계된 준비로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2개월간의 사전 교육과 3개월간의 현장학습에 한 명의 학생도 이탈하지 않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IT relation with strengthen more between Korea & India

기업명 : L&T Infotech Ltd.
 부 서 : Centre Head Training
 성 명 : Paarul Sood

Larsen & Toubro Limited (L & T) is a technology,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company and also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India's private sector. L&T has an international presence, with offices, spread across the globe.. One of the main visions of L&T is complete customer satisfaction with the aid of an innovative, entrepreneurial and empowered team of professionals.

The two month job training session for the students of Digitech High School began on October 1, 2013. The main aim of this course was to teach the students the fundamentals of C programming along with learning English and job related preparation. In this Ksindia a major Korean Education consultant working in Bangalore, India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oordinating this whole program with L & T, I am really thankful to Mr. You, Sung Hoon, the director of Ksindia who took this initiative in bringing down this Korean govt. project funded by Ministry of Education department, Korea to L&T Bangalore, India.

L&T assisted in the effective completion of the training session, especially as all the students were not native speakers of English. L&T taught them the importance of effective communication and email etiquette which would enable them to be ready for the market, where they could work as coordinators between Korea and India.

This training program has not just guided the students but also enhanced their knowledge thereby enabling them with their careers in IT, both in Korea and across the world. They were also given tips on quality management.

Overall this course combined many informative and interesting sessions for all the participants.

Thankful for co-ordinating this entire session with our effective team.

장려상작

그땐 그랬지..



학교명 : 수도권기공업고등학교

학 과 : 에너지전자제어

학 년 : 3학년

성 명 : 함종완



지진 때문에 한국으로 조금 빨리 귀국했다. 지진 피해는 잊은 지 오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어느새 한국으로 귀국한지 2달이 되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한국 날씨에 적응한지는 벌써 오래다. 아직 까지도 필리핀에서 나를 가르쳐주신 선생님들과 연락을 가끔 하는데 생사를 함께 넘나들던 사이라 그런지 여전히 매우 친근하고 과거를 회상하며 같이 웃고는 한다. 글로벌 현장 학습을 필리핀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걸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지원 한 것을 한 번도 후회 해 본적 없다.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

해서 그 보다 더욱 값진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도 그 때 그날을 생각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웃고는 한다.

너무나도 무료한 나날을 그저 흘러보내고 있었다. 3학년은 대부분 취업을 해서 일을 하러 학교를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교에 사실상 남아있는 친구들은 몇 명 없었고, 그나마 학교에 남아있는 친구들도 취업 확정자이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의미가 없었다. 그저 세월아 흘러라 흘러~ 허송세월 보내던 도중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다. 바로 글로벌 현장학습! 물론 어학연수의 목적도 있지만 발전소 인턴십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내가 이미 취업한 ‘한국수력원자력’에 가서 많은 것들을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좋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학교에 남아서 영혼 없는 사람처럼 그저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무언가를 생산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다.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 때문에 교내 면접도 실시했다.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내게 물어 볼 것 같은 돌발 질문들을 미리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글로벌 현장 학습 대상자 12명중에 한명이 되었다.

너무나도 설렜다. 필리핀에서 가서 어학연수도 할 겸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발전소에 견학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턴십을 통해서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것들은 몸으로 배우고 나중에 회사에 나가서 적용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나는 정말 들떠 있었다. 많은 기대와 달콤한 상상을 하며 필리핀에 갈 준비를 했다.

우리는 필리핀에 가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았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서 영어공부를 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필리핀 세부 발전소 현장에 나가면 적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 설비에 대한 수업도 들었다. 여름방학에도, 학교에 등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더 열심히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보람찼다. 기본적인 영어 회화 수업은 상당히 즐겁고 필리핀에 가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며 정말 열심히 배운 것 같다. 또한 전공영어 수업도 최선을 다했다. 영어 회화 수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정말 높고 어려웠지만..... 필리핀 현지 발전소에 가서 분명히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버텼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전공에 관련된 영어단어들은 너무나도 생소해서 외우기도 힘들뿐더러 영어로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불가능 했다. 한국말로 수업을 하셔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말이다. 그래도! 필리핀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멋지게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상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필리핀, 세부! 비행기를 타고 겨우 5시간 만에 도착했다.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하다. 인천공항에서의 그 설레는 마음...말로 표현 할 수 없다. 한국을 뜨고 다른 나라 땅을 밟는다는 생각에 너무나 설레서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자지 못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2명의 글로벌 현장체험 학습 대상자 중 한 친구는 여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우리와 함께 출국하지 못하고, 혼자서 다음 주에 필리핀으로 오기로 했다. 꼭! 해외여행을 갈 때는 여권을 챙기자 정말 중요하다. 그 친구의 슬픈 눈빛을 봤다면 절대로 여권을 잃어버릴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필리핀에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마중을 나온 매니저 분들 너무나도 감사했다. 새벽이여서 그런지 엄청나게 습하고 덥지는 않아서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짐을 풀고 바로 잠이 들었다. 도착한 다음날은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했다. 사실 정말 편했던 것이 뭐냐면, 해외여행을 갈 때 짐을 엄청나게 많이 챙기고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이 주말이여서 쉽게 쇼핑몰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세면도구나 비누, 샴푸, 면도기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리했다. 또한 해외에서 내가 아무런 문제없이 쉽게 사람들에게 내가 사야할 물품의 위치를 거리낌 없이 물어보고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말 놀랐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Level test를 보던 첫 날은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CDU ESL 센터에서 2달을 머물게 될 텐데 이 첫 레벨테스트로 나의 반이 정해진다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문제를 풀었다. 시험 문제는 토익시험과 비슷했는데 특이하게도 마지막 문제는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다. 인터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외국인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재미있는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여름방학 때 사전교육 공부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었다. 설레는 첫 수업. 1:1 수업과 그룹수업 모두 좋은 선생님들이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고 좋은 사람들 같다. 처음 보는 선생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첫 수업 때는 비록 하루 종일 자기소개만 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수업이 너무나도 기대됐다.

평일에는 하루 종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면 아무리 즐겁고 재밌는 수업이라도 육체적으로 피곤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나는 몸살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물의 질이 좋지 않는 나라에서는 물갈이를 한다고 하는데 필리핀은 물갈이를 하는 나라 중 하나였다. 나는 하필 물갈이와 몸살이 함께 오고 만 것이다. 그것도 금요일 밤에! 정말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말에만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날은 토요일은 아일랜드 호핑투어가 있는 날이었다.

나는 토요일 날 즐거운 아일랜드 호핑투어를 위해서 내가 챙겨온 개인비상약을 꺼내서 먹고 잠을 매우 일찍 잤다. 해외에서는 몸이 많이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기 힘들고 응급실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꼭 개인비상약을 챙겨가자. 특히 체했을 때는 정말 답답하기 때

문에 바로 효과가 오는 약을 가져가면 좋다. 정말 다행이도 나는 금요일 날 약을 엄청 챙겨먹고 일찍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지 토요일 날 몸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즐겁게 호핑투어를 즐길 수 있었다.



어학연수 목적도 좋고, 발전소 인턴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주말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Activity 활동이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약을 먹고서라도 이렇게 바다에 나온 것이다.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바다도 가보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

스럽게 경험이 많아지고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다. 또한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 친구들과 수영 시합도 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구경하고 맛있는 해산물도 먹었다. 해변에서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수중기마전을 하고 놀았는데 아무런 걱정 없이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노는 기분이여서 너무나 좋았다. 여러 가지로 필리핀에 와서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는 것 같다. 영어 공부도 100% 회화다 보니까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성적에 대한 걱정도 없고 즐기며 웃으며 영어 실력을 키우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게다가 주말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Activity 활동 들이 있으니 평일에 하루 종일 수업해서 피로한 몸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다. 일요일에는 자유 외출이 가능하다. 대부분 아이들은 피로에 지친 몸을 쉬게 한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그냥 잠을 자는 편이다. 대부분 아침식사를 거르고 점심을 CDU에서 먹거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쇼핑몰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일요일은 월요일 날 수업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돌아다니며 놀지 않는다. 어차피 통금시간도 6시라서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아이쇼핑을 하고 CDU 기숙사로 들어와서 다시 휴식을 취하는 편이다.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망그루브 나무를 심는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망그루브 나무는 쓰나미나 해일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나무이다.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뿌리가 정말 많아



서 살짝? 징그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본다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의 숲에 온 듯한 신비로운 기분이 든다. 아쉬웠던 점은 망그루브 나무를 심으러 해변으로 차를 타고 1시간을 넘게 달려갔는데 심을 망그루브 나무가 너무 적어서 30분 만에 봉사활동을 마쳤다는 것이다. 토요일은 자유 외출이 불가능해서 할 수 있는 게 정해진 Activity 밖에 없었는데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는데 오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일요일 날 자유외출 때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피자헛에서 친구들과 피자를 먹고 있는데 피자헛 직원들이 생일파티 복장으로 옷을 입더니 생일 손님들에게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광경을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정말 놀란 것은 바로 이런 광경을 우리가 식사하고 있던 도중에 무려 2번이 보았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한 번 더 보았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필리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피자헛에 올 일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만 피자헛에 오는 것 같다. 3번이나 보았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필리핀 음식은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짠 편이 되게 많다.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위해 자기도 모르게 짠 음식을 먹게 되는데 체인점인 피자헛도 역시 음식이 조금 짰다. 하지만 정말 맛있었다. 유일하게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요일은 우리에게 있어 ‘힐링타임’이다.



금요일에는 항상 Activity day라고 해서 책을 모두 다 덮어버리고 재미있는 게임이나 서로 퀴즈를 내며 놀거나 선생님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쓴다. 가끔은 함께 영화를 보며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주말이 되기 전날인 금요일은 항상 기대되는 날이다. 여러 선생님들과 수업이 아닌 친구처럼 함께 놀 수 있는 유일한 날 이어서 그런지 항상 기대를 가지고 금요일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야외활동은 정말 신기하고 즐겁기도 했지만, 약간 씁쓸한 기분으로 야외활동을 마쳤다. 왜냐하면 필리핀 세부에서 City tour를 했는데 해외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그 나라의 세세한 역사이야기를 들으면 이 나라의 문화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 있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말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문화유적지도 많이 가본 적 없고, 관심도 없고, 간다고 해도 문화탐방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수학여행 때문에 가게 되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필리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내가 약간 밍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구경거리와 추억이 된 것은 확실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간 세부에 머무르면서 City tour를 이미 한번 해서 그런지 다시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지진으로 인해서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산토니뇨 성당’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Taoist사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필리핀의 역사가 거기에 남아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지인데 자연재해로 이렇게 쉽게 피해를 입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만약에 또 다시 필리핀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가고 싶다. 지진 이후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모두 다 복구가 되었을까? 다시 좋은 추억을 회상하면서 웃으면서 관광 할 수 있을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토요일 Activity는 바로 고아원 봉사활동이다. 복지시설이 좋지 않은 열악한 시설을 갖춘 고아원에서 아이들의 점심이 맨밥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가 준비한 맥도날드 치킨과 밥을 먹는데 모두 먹지 않고 남기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점심을 다 먹지 않고 절반이나 남긴 이유는 바로, 동생이나 형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렇게 배고프고 매일 맨밥만 먹는 아이들인데 자신의 형이나 동생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맛있는 치킨을 다 먹지 않고 남기는 모습을 보고 울컥했다. 고아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정말 즐거웠다. 필리핀에서 하는 여러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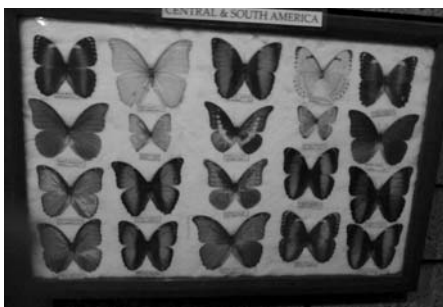
활동들이 나에게 필리핀의 문화를 알려주고,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견문을 넓혀주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게 해주었다면 이번 고아원 봉사활동에서는 나 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기쁨을 알게 된 것 같다. 사실 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 고아원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기쁨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서로 서로 도와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도 했다. 또한 저렇게 좋지 않은 시설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장난도 치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의 가치는 역시 사람마다 다르단 걸 느꼈다. 귀여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나눠주고 작별인사를 하려는데 나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어린 고아친구들이 받은 선물들과 일부러 미리 남겨둔 맛있는 맥도날드 점심은 친형이나 친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고아원에도 계급사회가 있나보다. 불량스럽게 보이는 다른 고아친구들이 나타나서 내가 선물을 주었던 그 아이들의 것을 빼앗기 시작했다. 또한 남겨두었던 밥도 먹을 것을 보았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너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어린 고아친구에게 “정말 네 형 맞니?” 라고 물어봤지만 보복이 두려웠는지 내 눈을 피하면서 형들이라고 했다. 그 형이라는 불량 고아도 나에게 당당하게 “형이니깐 편하게 이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세요.”라고 했다.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뭔가 표정이 너무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었고 불쌍해 보였다. 지켜주고 싶었지만..... 나는 상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도 저러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충격적이었다. 너무나도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돈이 없어서 교복을 살 돈이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깜작 놀랐다. 수도공고의 이름으로 교복을 기증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위해서 공연을 준비해도 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국의 아이돌인 EXO와 Beast 춤을 선보였는데, 아이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감동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교복을 기증해 준다는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귀엽고 착한 초등학생 어린이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연 준비해주기도 하였다. 그룹을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문화교류를 하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모두가 친구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재미있게 여러 가지 Activity를 했다. 맛있는 간식도 나누어 줬는데 정말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영어를 원활하게 말 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고아원 친구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영어를 굉장히 서투르게 사용했는데 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과는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비 박물관에도 견학을 갔었다. 나비 박물관이라고 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사실 나비박물관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나비를 좋아해서 나비를 수집하시는 분의 갤러리였다. 수많은 나비 박제들과 정원에 있는 많은 나비들은 실로 놀라웠다. 또한 나비 날개들로 만든 모자이크 사진들도 많았다. 나비 갤러리에서는 한 사람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나비를 좋아해서 나비를 수집하셨다. 잡아서 박제를 하시고 전시해놓는 것을 좋아하셨고, 다른 나라에 가서 나비를 잡거나 귀한 나비는 돈을 주고 사서 모으실 정도란다. 또한 아버지께서 그리신 나비날개로 만든 모자이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고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사겠다고 했지만 팔지 않고 전시를 해두시는 분이다. 자기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 열정을 실천해내시는 대단하신 분이다.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8시경 필리핀에 지진이 일어났다.

정말 다행인 것은 화요일이 필리핀의 공휴일이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또한 세부가 아니라 그 근처 보홀 섬에서 일어난 지진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주의 금요일 날 보홀 섬으로 휴가를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지진이 난 것이다.



CDU ESL 센터에 있는 사람 모두 안전하게 잘 대피해서 정말 다행이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공휴일이라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출근은 안하셨지만 우리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하신 몇몇의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수업을 담당하셨다. 1교시가 시작한지 약 5분도 되지 않아서 CDU ESL 센터의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행이도 선생님은 이미 지진의 경험이 있는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오라며 나를 안내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인 나는 지진인 줄로 몰랐고,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선생님이

공휴일이라서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지만, 선생님이 교실은 나간 직후 건물 전체가 매우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늦게 상황을 파악한 나는 다른 선생님들의 안내로 뒤늦게 비상계단으로 뛰어 내려갔지만 1층의 비상문은 잠겨 있었고 비상계단에 갇힐 위기였다. 비상계단 쪽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선생님과 내 앞에 커다란 돌덩이가 떨어졌다. 다행이도 아무도 그 돌덩이에 맞지 않아서 다행이다. 돌덩이가 내 눈앞에 떨어지는 순간 정말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런 중요한 경험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진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나저나 돌덩이가 우리들의 눈앞에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신 여자 선생님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지만 Jovit이라는



젊은 남자 선생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우리들을 1층으로 안전하게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지진이 멈추고 다행이도 모두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자 울음을 터트리는 여자 선생님들도 보였다. 모두들 지진 때문에 당황하고 공포에 가득 차 있는 듯 했지만 다행이도 금방 대화를 나누며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진피해로 우리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자신 있게 “이 정도로 한국으로 귀국 할 일 없어요! 이번 주말에는 같이 쇼핑이나 가죠!”라고 농담도 했지만 큰 지진 이후에도 많은 여진들과 뉴스에서 나오는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깜짝 놀랐고, 필리핀이 재난지역발령이 나는 상황까지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말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라는 조치가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진으로 인해서 CDU ESL 센터의 기숙사가 많이 피해를 입어서 한 동안은 호텔에서 머물렀다. 우리는 반은 한국으로 귀국 할지도 모른다는 설렘과 발전소 인턴십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겨우 필리핀에서 어정쩡하게 6주 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모든 아



이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터, 우리는 호텔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다. 학교와 연락을 해서 한국으로 귀가 조치가 내려질지를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 CDU ESL 센터의 기숙사를 수리해야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호텔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우리는 한국 귀국 조치를 받고 씩씩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필리핀에서 가장 기대했던 발전소 인턴십을 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또한 선생님들과 이제야 친해졌는데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한다니 너무나 슬펐다. 주말에 친한 선생님 집에 놀러가기로 약속도 했지만 아쉽게도 귀국조치로 인해서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정말 큰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마음은 조금 무거웠다.

한국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수많은 아쉬움들과 걱정들은 모두 잠시 잊은 채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휴식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하려면 밤을 세야 할 정도로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즐겁고 좋은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다.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 많았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가끔을 밤을 세기도하고, 낯선 외국인에게 길을 물어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다 추억이 되어 버렸다. ‘맞아! 그때 그랬었지.’ 라며 친구들과 가끔 추억 할 뿐. 한번만 더 내게 이런 기회가 온다면 좋겠다.



이러한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란다. 후배들아 해외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너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게다가 발전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직접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정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길 강력 추천한다. 영어 실력도 늘고! 발전소 인턴십을 통해서 발전설비와 실제로 발전소에서 하는 일들을 배우고 또한 새롭게 사귄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추억들! 나는

여기에 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 나는 비록 지진 때문에 발전소 인턴십도 못하고 선생님들과의 재미있는 추억 만들기도 많이 못했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가장 큰 것은 이 글로벌 현장 학습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야. 첫 번째로 나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늘었어. 적극적으로 외국인에게 먼저 “제가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어보고 안내를 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어.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의나 예절 그리고 가치관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 특별하게 지진이 일어나서 눈앞에서 돌이 떨어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요일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12시까지 늦잠을 잔 것을 후회하고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쓰고 있어.

후배들아 너희에게도 꼭 이런 기회가 찾아오길 바란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면 모두 다 행복하고 좋은 추억뿐이란다. 주저하지 말고 네 앞에 주어진 기회를 두 손으로 꼭 붙잡길 바란다.



2013 특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에 인솔 교사로 다녀와서...

학교명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부 서 : 산학협력취업부 교사
성 명 : 류문형

2013 특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일환으로 3개월간 본교 학생 12명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가게 되었다. 전체 일정은 2개월간 어학연수 과정과 1개월간의 발전소 체험 근무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8월30(금)일 밤에 출국하여 다음날 세부에 있는 CDU ESL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생활과 연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9월 2일(월)부터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고 수준에 따른 반 편성으로 2개월간의 스파르타 코스 어학연수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월말 레벨 테스트에서 수준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그들 중 함종완 학생은 레벨을 많이 끌어 올렸다. 주말에는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맹그로브 나무심기 등의 봉사활동으로 현지 주민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 문화체험의 일환인 일요일 시티투어에서도 어려움 없이 영어를 구사하게 되었으며 현지 발전소에 근무하는 우리의 직장인을 접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국제적인 생각으로 이어져 글로벌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게 되었다. 연수는 계속 되었고 그러던 중 10월 15일(화) 오전에 주변 보홀 섬에서 진도 7.2의 지진이 일어나 상황이 긴박해져 안전상의 이유로 연수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10월 19일(토)에 귀국했다. 본 연수는 글로벌 인재 양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연수를 준비한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 현지 어학원, 발전소 담당자와 관계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경험

학교명 :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학 과 : 에너지전자제어
성 명 : 조경화(함종완 댄)

피곤이 풀리지 않은 졸린 눈으로 하루를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공부와 낯뻐한 만지는 아들을 볼 때면 부모로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미안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에게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학교의 배려로 해외에 나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글로벌 체험의 꿈을 안고 필리핀 세부에서 하루하루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기특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기거하는 곳에 지진이 났다는 뉴스를 듣고 숨이 멈추는 듯 멍멍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측과 아들이 보낸 사진을 받고 안도의 한숨과 밀려오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천재지변의 특별한 체험까지 하고 상장까지 받게 되니 코끝이 짙 합니다.

3년 동안 학교생활을 충실히 감당한 아들이 한수원에도 취직이 되어 기쁘고 기특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에 최선을 다해준 아들에게 이런 상장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 모든 기관 부서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건강한 모습으로 늘 최선을 다하는 아들에게 고맙고 기특할 뿐입니다.

장려상작

가자! 미지의 세계로 꿈을 향해



학교명 : 유한공업고등학교

학 과 : 건축인테리어디자인

학 년 : 3학년

성 명 : **고제복**



꿈을 믿고 따라준 아들들이!

학교명 : 유한공업고등학교
부 서 : 홍보기획부 교사
성 명 : 김홍기

중국 상주공업대학에서 홈스테이를 통한 중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주공업대학에서의 홈스테이는 한국에서 온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였으며 홈스테이를 마치고도 공휴일에 가정으로 초대하는 등, 실습 중에도 그분들의 배려와 관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몽클해집니다. 2주간의 중국어 교육과 문화체험을 마치고 실습업체로 출근하여 직무연수 후 용접, 설계, 제품조립, 제품 AS, 전기배선 파트별 2명씩 1주일 단위로 순환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장 내에는 2-3톤씩 하는 제품을 크레인으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인솔교사인 저는 한눈팔 시간이 없었습니다. 1개월 정도 순환실습을 마치고 본인이 원하는 작업 파트로 이동하여 집중 심화 실습과 제품생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습하는 모습을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장님들께서 보시고 학생들을 현지에서 채용하고 싶다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해 학교 취업담당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여 학생들과 상담을 통해 전원 희망하는 업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실습 기간 중 학생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주어 3개월 동안 체중이 15Kg 빠졌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아들 10명이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사건 사고 없이 꿈을 믿고 따라준 아들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큰 꿈을 향해 날개를 펴고 꿈과 목표를 이루는 아들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사랑하는 후배들이 큰 꿈을 갖자!

기업명 : 상주대모기계유한공사
부 서 : -
성 명 : 옥연숙

2013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중국법인 업무 준비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힘들게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담당 관리자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난다. ‘한국 교육부는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발굴에 투자하는 모습이 참 부럽다.’ 상주공업대학교에서 당신들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이렇게 2주간의 홈스테이 및 중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을 마치고 졸업식을 했다. 학생들이 머무를 아파트로 숙소를 옮기고 상주대모유한공사로 출근을 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현지 강소현대중공업, 현대유압, NAB 베이링생산 중국법인, 철판절단 업체, 철도고등학교 견학 및 양로원 방문, 주말 현지 문화 시찰 등등. 참관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기 시작했고, 중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취업을 원하는 사장님들이 계셨지만 취업 비자와 병역문제로 현지 취업이 되지 않아 너무나 아쉬웠다. 10명중 1명의 학생은 당사 본사로 출근하여 기술을 익힌 다음 여기 중국으로 오게 되었다.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은 교육부, 주관학교, 사업체의 여러 기관이 함께 해야 한다. 이에, 문제점 '13년도의 에로사항 등을 잘 논의하여 '14년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13년에 참여했던 친구들을 회상해 본다. 너희들 잘 있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장려상작

남과 다른 나의 꿈, 나의 선택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

학 과 : 전자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윤준식**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

학 과 : 전자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수한**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

학 과 : LED조명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강호진**

2013글로벌현장학습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소중한 기록

학교명 :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부 서 : 취업지원센터 교사
성 명 : 한현철

학생들의 고된 현장학습의 일상을 글보다는 영상으로 보여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장학습의 특성상 전문교과 내용을 글로써 설명하려니 전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학생들 또한 자신의 현장실습을 영상으로 기록할 원하여 김호진, 김수한, 이준식 학생이 자진하여 촬영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외국인 학생과 숙소의 주인아주머니와 소통을 할 때 언어로써는 모두 표현 할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이 되어 더욱 즐거운 글로벌 현장학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기록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중한 꿈을 카메라에 기록하면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은 먼 이국땅에서 가슴 뭉클한 일이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천과 실습의 연속으로 어렵게 찍은 영상은 이준식 학생을 비롯하여 참여한 모든 학생이 Magisto라는 앱을 통해 열정을 담은 영상으로 중요한 행사 등을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모아둔 것을 다시 하나로 편집하여 학교에 많은 학생들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의 생생한 현장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2013 글로벌 현장학습

기업명 : 제일시설공업주식회사
부 서 : 총무과
성 명 : 쿠시바 토모오

3개월간의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동안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김호진, 김수한, 이준식 학생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의 소중한 기록을 남기고자 사진 및 동영상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대견 하였습니다. 3명의 학생들은 촬영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욱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또한 기숙사에서의 일상생활 및 주말 문화 활동 체험을 영상으로 담아서 현장실습 이외의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로벌 현장학습을 마치고 귀국한 3명의 학생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글로벌 현장학습 기간 동안 동영상 기록을 하며 몸에 익힌 적극성과 부지런함이 입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글로벌 현장학습 영상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장려상작

만남 그리고 이별의 순간



학교명 :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학 과 : 정밀기계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이정근

에피소드

글로벌 현장학습을 마친 후 아직도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은 대서양의 바다 빛을 반사한 솜털구름과 우리가 있던 하얀 집 그리고 나의 친구들 팔른 공장장님, 존슨 운전사님, 바비 멘토님, 주디와 진 병원 간호사님이다. 어학연수원에서 활달한 멕시코계 아주머니와 브룩스 선생님 그리고 Regal cutting tools에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텡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에드워드도 생각한다. 하얀색 태권도 도복을 입고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태권품세를 보이며 박수갈채를 받던 일이며 Mcleod 노인요양원에서 소녀 같으신 할머니 손을 잡고 2시간여 이야기를 들어주던 일 그리고 미국 동남부의 명산 스모키 마운틴 정상에서 느꼈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고요를 경험한 일은 아직 나의 마음을 떨리게 한다. 나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그 곳, 그 분 그리고 그 때를 추억해본다.

나의 꿈을 위해 도전하다!



◇ 즐거운 영어대화시간 ◇



◇ 글로벌 학습 준비를 위하여~ ◇

지금도 처음 우리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 다들 미국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즐거웠

지만,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리의 영어실력도 문제였지만, 미국의 치안상태가 궁극했고 또 가족과 3개월 동안이나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많은 걱정이 되었었다. 때문에 우리는 출국 전까지 영어 공부와 사전대비 조사를 했었다. 그렇지만 영어실력이 한 번에 늘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영어공부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틈날 때 마다 매일 영어에 매달렸다. 그렇게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한국에서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여름방학에는 회사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쉬지 못하고 방학을 지내보았다. 영어공부와 회사실무연수로 나날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출국날짜가 되었다. 가족과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친구들의 격려의 말을 듣다 보니, 슬펐지만 미국으로 간다는 설렘은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을 떠났다.

출발과 도착의 여정..



◇ 공항은 언제나 설레다. ◇

◇ 시간이 정지한 고요한 비행기 ◇

우리의 목적지는 미국 동남부 South carolina주의 Loris라는 작은 시골도시다. 미국으로 가는 길 내내 심장이 뛰었다. 가장 먼저 도착 한 곳은 나리타공항이었다. 우리는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을 잠깐이지만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한국 이외의 나라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잠깐 맛보기로 보았던 일본의 모습은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한 일본인이었지만, 언어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다. 우리는 잠깐 있었던 일본에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잠깐 맛본 일본도 신기하기만 한데, 항상 동경하던 미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자꾸만 뛰었다.

일본을 떠나 Atlanta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이번에는 13시간이라는 시간을 날아가야 했다. 반나절을 좁은 좌석에서 있어야 해서, 너무나 힘들었다. 너무 흥분한 탓일까, 원래는 잠을 자려고 계획했지만 잠도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 졌다. Atlanta로 가는 비행기에는 대부분 미국인들이었다. 스튜어디스들도 미국인들이라서, 음료와 다과 주문은 모두 영어였다. 하지만 미국인 스튜어디스는 우리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비행기 안에서부터 당

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미국에서는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왔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지루한 비행기에서 내려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다. 내리자마자 이국땅에 대한 신기함도 잠시 오 마이 갓...공항을 하나씩 거쳐 갈수록 점점 한국어가 들리지 않더니 이제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내 귀에 들려왔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우리들 11명밖에 없어, 매우 긴장이 되었다. 처음 입국심사를 위해, 줄을 섰다. 내가 가장 첫 번째 순서라, 너무 긴장이 되었다. 어디서나 처음 경험하는 모든 것은 첫 번째 순서가 가장 긴장이 되지 않던 가, 나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처음 대면하는 미국인의 질문에 나는 온 몸을 덜덜 떨었던 것 같다. 바보 같게도 나는, “음식의 종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왔냐?” 는 질문에 답하지 못해, 선생님을 호출 했다. 2달동안의 영어공부가 순간 헛공부 한 기분이 들었다. 애석하게도, 나뿐만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던 친구들도 나와 같은 신세였다. 입국심사를 봐주던 미국인도 우리가 안쓰럽던지, 뒤에 따라오던 친구들 대부분 바로 입국 허락을 받게 해주었다. 그에게는 작은 호의였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 보다 가장 큰 호의였다. 그렇게 우리는 미국에 도착했다.



◇ 처음 먹던 햄버거 ◇



◇ 숙소를 정리하다 ◇

이제는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졌다. 공항 안에서는 우리 외에 동양인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우리와 완전히 다른 언어와 완전히 다른 생김새들은 우리들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만들게 했던 것 같다. 이때만큼은 한국이 그리웠던 순간이니 말이다. Atlanta공항에서 가장 처음 맛보았던 미국의 음식은 햄버거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내 실망했다. 원래 햄버거의 원조는 미국이 아니었던가? 나는 원래 햄버거를 너무 좋아하지만, 한국과는 너무 다른 맛에 실망했다. 웬지 앞으로 미국에서 먹을 음식들이 걱정이 되기도 했다. 우리는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끼니를 떼우고, 머를 비치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다. 13시간을 날아온 비행기 안에서도 졸리지 않았던 나는, Myrtle beach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뒹굴어졌다. 머를 비치에 도착 한 후, 우리를 맞아주신 것은 Farlen 공장장님

과 Bobby씨가 마중을 나와 주셨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저 분들과 함께 생활 할 것이라 얘기 해 주셔서 우리는 안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향해 반갑게 맞아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신기했던 것은 날 짜였다. 한국은 토요일이었지만, 미국은 아직 금요일 저녁이어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왔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숙소에 도착하여 짐을 풀었다. 바닥이 장판이 아닌 카펫이 깔려있어서 신기했다. 숙소 안에는 우리가 앞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의자들과, 식탁, 베게, 이불 등등 생필품이 배달이 돼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풀고 동시에 생필품을 정리하였다. 집이 생각보다 넓고 좋아서, 우리는 사진을 찍어 가족들에게 보내준다고 정신이 없었다. 정리를 한 뒤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시차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즐거웠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영어실력 향상 그리고 소통을 위하여~



◇ 첫출근을 기념하며! ◇

◇ 실습을 시작하다! ◇

우리의 목표이자 목적인 영어스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아침부터는 AEC school에서 영어어휘능력을 향상시키고, 오후에는 현장실습을 계획했다. 처음 가보았던 학교에서는 우리뿐만이 아닌 멕시코사람들이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야 할 것을 느꼈고, 모두 하나 같이 밝게 인사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다. 학교뿐만이 아니었다. 오후에 참여했던 회사에서도 우리가 신기한 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친근하게 인사 해주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서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즐겁게 미국생활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었다. 우리는 평일에 수업과 실습에 열심히 임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도 높아가고, 영어실력도 조금이지만 말하는 방법을 배웠다. 실습시간에는 멘토분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서로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우리는 적응을 매우 잘 해나갔다.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적응을 빨리 하여서 선생님께서 걱정을

한 시름 놓으신 것 같았다.

공장실습은 모두 순환제 실습으로 이루어졌다. 기계가공, 공장실습, 전기설비, 계장등 모든 직무를 주별로 실습하였으며 우리에게 개인별 멘토가 배정되었다. 나의 멘토는 에드워드, 찰스, 존슨이었는데 특히 찰스는 공장 전반에 관해 모르는 게 없었다.

공장의 연료 및 전기라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중장비 그리고 탭 가공장비까지 모두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있어 나도 나의 멘토처럼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공장 실습 중 기억나는 것은 공장 부지에 있는 배관이 터졌을 때 공장사람들이 가서 수리를 한다는 점이다. 즉 공장은 최대한 자율적으로 돌아가되 내 집과 같은 공장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다. 곧 내가 주인이었고 공장이 잘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인식이 이 분들 모두에게 깔려 있었다. 이런 점에서 나도 YG-1에 입사하게 되면 내 공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것이라 생각했다.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배웠던 TPM도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 공장설비 정리 정돈은 습관화 시켜야 한다는 점을 느꼈고 항상 공장생활 중에 TPM이 깔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놀 때는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땐 진지하게 임했다.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처음과는 다르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서로 서로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공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하기에는 더 쉬웠던 것 같다. 실습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영어로 설명하기 때문에, 듣기연습도 자연스럽게 되었다. 여름방학 때 한국공장에서 배웠던 기술을 영어로 들을 수 있어서, 현장영어를 직접 귀로 듣고 공부 할 수 있었다. 멘토들과 서로서로 작은 선물도 교환하는 등, 정도 많이 나누었다. 적극적으로 멘토에게 다가가 부대끼면서 하나라도 더 물어보고, 한번이라도 더 말하고 들으려 애썼다. 덕분에,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영어실력이 향상 된 것을 경험 할 수 있었다. 학교의 학생들과 또 회사의 멘토들과 서로 정이 많이 들었다. 우리는 미국과 이곳의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졌다.

나는 대한민국의 홍보대사다!

BOG-OFF 축제는 Loris 지역의 지역 축제이다. 영화에서만 보던 지역축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신기했다. 마치 영화 속에 들어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역축제라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고, 매년 4만 명이 모이는 큰 축제라 많은 볼거리와 무대공연이 준비 되어 있었다. 많은 공연 가운데, 출국 전부터 준비 한 우리의 태권도 공연도 속해 있었다. 축제 당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작은 도시 Loris에 모였다. 평소에는 Loris에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오늘날만큼 길이 비좁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Loris의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우리는 모두 긴장했다. 거기다가 잘 해

오던 격파와 폼세가 맞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다. BOG-OFF의 행사도 둘러보고 싶었지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행사를 둘러보는 것을 포기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한 탓일까, 공연을 하기도 전에 몸에 무리가 와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의문인 상태였다. 걱정을 마음에 한 가득 폼은 가운데 공연시간이 다가왔다. 공연 시작 5분전에 Johnson씨와 Farlen공장장님이 잘 할 수 있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마침내 공연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격려의 말씀을 들은 덕분일까 연습 때보다 더 다리도 높이 올라가고, 절도가 있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우리는 마치 한 몸인 것 같이 공연을 진행했다.

영인이의 마지막 격파를 하자마자 많은 박수와 많은 함성소리가 들렸다.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기분에 심취되어, 공연을 마친 뒤에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넓디넓은 이 미국 땅에,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한국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에 매우 감사했고, 우리들은 한국의 홍보대사와 같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아 준 건지, 미국의 지역 신문에 우리의 기사가 2번이나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한국을 홍보하겠다고 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었다.



◇ 드디어 공연이 끝나고.. ◇

◇ 내가 미국 신문에 나오다니! ◇



◇ 대한민국 홍보대사! ◇

◇ 축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

McLeod 병원 봉사활동

우리는 10명중에 5명씩 2팀으로 나누어, 화요일과 수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있는 McLeod 병원의 요양원에는 한국에서도 요양원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었다. 많이 야위시고 약해지신 할머니들은, 스스로 바닥에 서는 일 조차하실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심하게 다치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긴장했다. 우리는 주로 빙고게임과 요양원 주변을 산책시켜드리는 것을 진행했다. 사실 빙고게임은 조금 유치할 수도 있으나, 치매예방을 위해 숫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숫자로 빙고게임을 진행한다고 했다. 항상 어르신을 보살펴 주시는 Gen과 Judy는 항상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매일 어르신들을 웃게 해주었다. 그 두 분이 말씀하시길 어르신들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있어서, 어르신들은 항상 웃음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우리도 Gen, Judy와 함께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 어르신들이 웃으시니 신이 절로 났다.



◇ 빙고게임도 도와드리고~ ◇



◇ 소녀같은 할머니와~ ◇



◇ 이분들을 어떻게 잊을까? ◇



◇ 나의 영원한 친구들이여.. ◇

봉사활동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찍이셨던 어르신이 계셨다. 할머니는 너무나 늙고 쇠약해지셔서, 빙고를 할 때 빙고게임 판을 다루기에도 매우 힘들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드렸더니 예쁘다고, 고맙다고 해주셨다. 움직이 시기도 힘든 손으로 내 손을 계속 꼭 잡아 주셨다. 나는 해드린 게 많이 없는데 자꾸만 고맙다고 하시니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항상 빙고가 끝난 후에 어르신은 나에게 자신의 가족들을 보여 주신다고 하셨다. 나는 할머니님과 함께 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할머니님의 방에는 많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어르신의 유년시절부터 어르신의 부모님까지 많은 사진이 걸려있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사진들이 있었다. 그것은 가족들의 사진이 아닌 봉사자들의 사진이 있었다. 어르신은 봉사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다 자신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나 또한 할머니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 눈물이 내려는 것을 억지로 참고 할머니님을 안아드렸다. 할머니님은 계속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나 또한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드렸다. 기나긴 세월 앞에 어르신들은 언제나 외로우시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식들 돌보느라 인생을 보내신 모습을 보니 부모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실 시간도 없으셔서, 투박하고 늙고 쇠약해지신 모습을 보니 너무나 슬프다. 항상 자신이 먼저가 아닌 남에게 베푸시는 삶을 살아오셔서 자꾸만 나부터 챙겨주셔서 결국 눈물이 났다. 나는 한국에 가기 전까지 아들처럼 꼭 곁에 있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부모님의 위대함을 느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는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배운 점이 너무나 많다. 새삼 글로벌 현장학습을 오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이 기회가 나에게 너무나 큰 행운임을 느꼈다.

미국을 만나다!



◇ 미국에 있는 뷔페~ ◇

◇ 대서양의 푸른 하늘 ◇

미국에서 처음 하룻밤을 지냈을 때,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못한 탓일까, 10시에 공장장님이 오시기로 하였지만, 우리는 그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공장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야 우리는 허겁지겁 씻고, 공장장님을 맞을 준비를 했다. 미국 온 첫날, 처음부터 늦은 모습을 보여 드러서 죄송스러웠지만, 공장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신기하고, 영어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것 같다. 공장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미국에 온 것이

정말로 실감이 났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눈앞에 보인 것은 Loris의 Main street를 보았다. 선생님께서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한 없이 큰 도시 같아 보였다. 우리는 모두 사진 찍느라 여념이 없을 무렵, 우리는 차이나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 곳이 우리가 자주 오게 될 제일 괜찮은 식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공항에서 먹었던 햄버거와는 비교가 안되게 맛있었다. 또 뷔페라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도 있어서, 더 좋았다. 그리고 그 곳에는 Loris의 시장님도 함께 계셨다.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려 우리는 다 같이 인사를 드렸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미국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많은 덕담을 해주셨다. 우리는 점심을 먹은 뒤, Walmart로 이동했다. Walmart는 한국의 E-mart와 다른 점이 없었다. 식료품은 물론 생필품마저 가격이 저렴하여서, 계속 애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식료품을 산 뒤 공장장님께서 Myrtle beach의 주변을 드라이브 시켜주셨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는 나무들, 집 그리고 도로와 차들, 모든 것이 신기했다. 공장장님께서 피곤하실 텐데도 우리를 위해 계속 인자하게 웃어 주시며 “I’m ok.”를 말씀 해주셨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 공장장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것을 각오하신 것 같다.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운전해주셔서 우리는 짧고 어색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 함께 “Thank you!!” 라고 외쳤다. 공장장님은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 주셨다. 그렇게 설렘 가득한 미국에서의 첫 날을 기분 좋게 보냈다.

미국을 만나다-(Brooks garden and Myrtle beach.)



◇ 브룩스 그린 가든에서 ◇

◇ 대서양의 머틀비치 해변에서 ◇

주말에는 미국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했다. 우리는 가장 처음으로 Brooks Green garden으로 갔다. 한국으로 따지면 독립기념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곳은 미국의 역사관 또한 함께 자리해 있었고, 역사관 주변으로 정원을 예쁘게 꾸며 놓았다. 미국의 역사에 맞게 정원에서도 미국의 역사가 서려있는 것 같았다. Loris의 인근 도시 사람들은 이곳을 한번 정도는 외출 정도로 유명한 명소였다.

두 번째로 향한 장소는 Myrtle beach 이었다. 마침 여름 시즌이라 해변에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넓게 펼쳐진 해변과 따사로운 햇살은,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었다. 나는 여름방학에도 피서지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지 살이 익는 지도 모르고 정말 원 없이 재미있게 놀았던 것 같다. 다음 날 우리는 피부가 따가워서 고생을 했지만, 고통을 감수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활동이었다. 평일 동안 쌓였던 피로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겼었지만, 언젠가부터 주말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잊지 못할 스모키 마운틴의 캠핑!



◇ 스모키 마운틴 정상에서 고요를 느끼다 ◇

◇ 스모키 마운틴 캠핑 ◇

두 번째 현지 문화 체험장소는 Smoky mountain 이다. Columbia와 가까이 위치해 있는 Smoky mountain은 울산의 크기와 비슷한 관광지이다. 하지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Loris와는 거리가 꽤 멀었다. 차로 무려 8시간을 달리고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지역 자체가 관광하고 체험하는 장소라 여기저기 볼거리가 많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산 정상의 공기와 계곡, 동굴 등등 자연을 체험하는 활동 위주로 계획을 잡았다. 첫 날 우리는 가장 먼저 산 정상으로 갔다. 산의 높이는 한국의 한라산과 비슷한 높이였다. 한국의 한라산을 등반해 본 우리는 이곳이 얼마나 높은 곳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구름이 정상에 끼여 있어서 우리가 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동시에 높은 고지대라 상당히 추웠다. 또 우리는 레프팅을 체험해보았는데, 나는 레프팅을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기대가 되었다. 10Km 정도 탔는데, 너무나 재미가 있었다. 공장장님도 함께 탔는데, 우리가 물장난을 많이 쳐서 많이 추워하셔서 죄송했다. Smoky mountain은 상상 그 이상으로 정말 좋았다. 선생님께 서도 이곳이 마음에 드신 듯 했다. 수년 안에 가족들과 함께 Smoke mountain으로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 하신 만큼,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체험활동은 정말 만족스러웠다. 우리는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Cabin house로 돌아와 BBQ파티를 했다. 저녁을 먹고, 하늘을 보니 정말로 많은 별이 보였다. 사진에서만 보던 별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별을 보면서, 그리고 불을 지펴놓고, 우리와 함께 오신 Farlen 공장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말씀 중에서도 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문장이 있다. “사람은 행복을 쫓아야하지, 돈이나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목적 없이 살아왔던 것이 생각이 났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는 너무 많은 걸 바란 것일 지도 모른다. 나는 늦게까지 남아 잠을 미루며, 별을 보면서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떨까 그려보았다. 이렇게 Smoky mountain에서의 일정도 끝났다.

미국의 전통을 만나다!



◇ 팔른 공장장님의 잔디깎기 차량 ◇

◇ 마차와 함께 미국을 느끼다! ◇

오늘날 청소년들은 농장을 체험하는 경험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도 한국에서도 아닌 미국에서 신선한 농장체험을 할 수 있었다. 미국은 나라가 매우 넓기 때문에, 나라가 넓은 만큼 논 또한 매우 넓었다. 우리 할머니 댁에는 논과 밭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장장님의 논은 너무 넓어서 이동수단으로 이동해야 할 만큼 넓은 평야가 펼쳐졌다. 농장의 일은 이미 수확을 끝내놓은 상태라 우리가 할 일은 없었지만, 공장장님께서 농기구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용도의 설명도 해주셨다. 그리고 4륜구동 오토바이도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당구도 칠 수 있었고, 잔디 깎기 기계를 타고 잔디도 깎는 체험을 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장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슴고기도 바비큐를 해주셨다. 사실 우리는 농장의 일을 돕기 위해 온 것인데, 짐만 있어 드린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잘 해주셔서 죄송스러웠다. 공장장님께서도 Loris 지역에 이방인이 온 것이 우리가 처음이라 하셔서, 더 정이 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공장장님은 자신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려 했다. 몸이 많이 쇠약해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많이 죄송스러웠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 잘 알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미국을 만나다!—Charleston

Charleston은 South Carolina 에서도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주변 사람들도 꼭 가보라고 추천 해 준만큼 정말 멋진 도시였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자연과의 조화가 정말 아름다웠다. Loris가 미국의 전통 주택이 있는 곳이라면, Charleston의 주택은 약간 유럽풍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 동안은 차를 타고 돌아보았지만, Charleston의 거리는 걸어서 감상하는 것이 더 좋았다. 거리거리마다 보인 건물들은 유럽의 거리를 걷는 기분이 들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아닌 옛날시절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 시켜서 그런지 웅장한 분위기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다른 곳에서도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Charleston 에서 찍은 사진이 많은 만큼 거리가 정말 예뻐다. Charleston을 관광하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 세계를 무대 삼아 내 꿈을 펼치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게 되었다.



◇ 찰스턴의 우리들! ◇



◇ 존슨의 캐빈에서~ ◇

만남과 이별까지...

우리는 이곳에 모두 등재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활동을 했다. 여자축구도 보았고, 바비큐파티를 한 적도 있었고, 우리가 머무르는 하우스에 사람들을 초대해 한국음식을 대접도 하고, 그리고 멘토와 함께 낚시도 배우는 날도 있었다. 처음 어색한 우리의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을 비교를 해본다면 아마도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처음보다 영어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느꼈고, 말도 한마디 붙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은 회사에 좀 더 오래 남아 서로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을 원하고, 미국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우리 중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모두 다 생활을 잘해주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과 정이 정말 많이 들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일주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알차고 재미있게 보낸 것 같다. 한 때는 한국을 떠나 지구의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이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그 걱정을 한 번에 없애 줄 만큼 이곳의 생활에 만족했고, 우리 회사의 멘토분들이

너무나 잘 해 주셨다. 항상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유쾌하게 생활하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 또한 해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일을 할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내가 닮게 되는 좋은 현상도 일어났다. 회사의 사람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아침마다 매일 맥도날드 송을 부르며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신 Johnson 씨, 항상 좋은 말씀 해주신 Bobby씨, 열정적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를 챙겨주신 Glen씨, 우리가 머무르던 집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신 Richard씨, 그리고 실습파트 마다 만났던 모든 멘토분들, 그리고 RCT의 모든 식구들, AEC school의 Alonda선생님, 항상 반갑게 맞아주신 멕시코 분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Farlen공장장님...마지막공장에서의 이별의 순간, 우리는 이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웃고 떠들던 지금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그리움이 되어 돌아 올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글로벌 사업에 참여한 것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한다. 19살의 나이에 앞으로 나의 삶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으로 돌아가 나는 신입사원으로써 항상 패기 있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임할 것이고, 기초부터 배워 나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쌓아 명장의 꿈을 향해 전진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체험학습 인솔교사로 다녀와서

학교명 :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부 서 : 창의인성부 교사
성 명 : 김세영

2013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 인솔교사입니다. 미국 동남부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로리스라는 작은 시골도시에 위치한 Regal cutting tools. INC에서 우리 학생들은 기계가공, 공작, 설비, 계장, 출하 등 모든 부분의 직무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은 해당 기업의 현장직무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지기업의 멘토와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모든 직무실습은 순환제로 실시되어 학생들의 직무역량은 한층 향상되었으며 기업에 대한 이해와 애사심이 높아졌습니다. 직무실습 기간 동안 학생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한층 성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실습 뿐 아니라 인성함양을 위한 봉사활동, 한국의 홍보대사 활동, 문화체험활동 등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인솔교사로서 참여한 글로벌 현장학습이었지만 학생과 함께 실습하고 배우며 호흡하면서 교직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한인이 한명도 없던 낯선 땅에서 오직 학생들과 의지하며 생활해 나가면서 학생과의 소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느낄 수 있었던 인생에 다시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기업마저 도전 않던 '엔드밀' 30년 한우물...워런 버핏도 반한 1등 기술

기업명 : 와이지-원
부 서 : 인사총무팀
성 명 : 조종혁

지난해 8월 세계적인 투자 대가 워런 버핏은 인천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312억원을 투자해 이 회사 지분 10%를 인수했다. 주인공은 절삭공구 제조사인 와이지원. 이 분야 글로벌 업체인 이스카의 주요 주주이기도 했던 버핏은 와이지원과 경쟁하기보다 차라리 주요 주주가 돼 이 회사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와이지원이 최근 다시 주목받았다.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방법과 길을 보였기 때문이다. 1981년 설립돼 엔드밀 하나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와이지원의 송호근 대표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한 권의 '창조경제 교과서'다. 그는 돈 되는 제품이라면 뭐든지 일단 만들고 보는 다른 중소기업과 달리 엔드밀 하나에 역량을 집중했다. 엔드밀은 유망 부품이지만 요구되는 기술과 품질 수준이 높아 대기업도 도전하길 꺼렸다. 와이지원은 직원 중 7.1%가 장애인이며 여성 인력은 28%, 고졸 비중은 68%에 달한다. 정년은 있지만 정년을 넘겨도 일하는데 지장만 없다면 퇴사를 강요하지 않는다. 송 대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선호한다며 인력 채용에서도 틈새시장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 아이템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는 중견기업이 많아져야 중소기업이 나아갈 길이 생긴다며 중견기업이 앞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장려상작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수기



학교명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학 과 : 금속가공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지수

1.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동기

평소 휴대폰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휴대폰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했다. 취업 설명회를 듣던 중 휴대폰 사출 업체인 (주)삼광이라는 기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기업은 2013년 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계획하고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와 언어, 기술 등을 배우기 위함과 고등학생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다.

2. 현장학습 기간 중 겪은 다양한 체험담

- 중국으로의 출발 -



2013년 9월 26일. 드디어 기다리던 글로벌 현장학습이 시작되었다. 출발하기 전 많이 초조하고 긴장되기도 하며 기대감도 들었다. 오전 7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11시가 넘어서야 도착하였다. 공항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광저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중국 남방 항공을 이용하여 기내식을 먹고 영화도 보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3시간여 지나 드디어 중국 광저우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줄지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꼭 영화에서만 보았던 공항과 같았기 때문이다. 입국 심사를 받은 뒤 공항 출구를 나서니 늦가을의 한국과는 달리 아주 덥고 습한 날씨에 중국 땅을 밟게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유학중인 한국인 대학생의 가

이드를 받아 숙소를 잡고 짐을 정리하니 아홉시가 넘는 시간 이었다. 대학생의 유창한 중국어 실력을 보고 나도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첫 중국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한국과 비슷한 음식 같아 보였지만 굉장히 강한 향신료와 기름진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차츰 이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먹게 되니 속에서 음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다.

- 화남이공대학교 중국어 수업 -



평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해외에서 한국 유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TV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내가 직접 체험한다는 생각에 무척 설레었다. 처음에는 함께 온 동기들과 수업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아시아, 유럽, 남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수업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때 처음 “글로벌 현장학습이 시작되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4명씩 2개 반으로 나눠 수업에 참여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기소개를 하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나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 학교에서 영어 과목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소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외국인들과 한명 한명 눈을 맞춰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이들이 한국에 대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첫째 날이 끝나고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갔다. 중국어 수업이지만 교수님은 영어로 설명하기에 처음엔 80% 정도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른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어 실력이 능통해 나를 더욱 주눅 들게 했다. 하지만 직접 부딪혀 보자는 생각으로 전부 이해할 순 없었지만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교수님의 행동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그러자 광저우에서 지내는 동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 졌고 차츰 중국어 실력이 늘어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조금은 글로벌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고, 내 인생의 기회가 또한 번 주어진다면 장기간의 유학생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중국 문화 체험 -

‘장룽’이라는 놀이공원에 갔다. 광저우에서 제일 큰 놀이공원인 이곳은 세계에서 손꼽히

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곳이다. 공원은 국경일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았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을 통해 정보를 알아보던 중 중국에서 놀이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저우가 특히 빈부격차가 심해 문화생활 조차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 가정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쇼핑과 놀이공원 등 항상 여가를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래 사진에 보이는 이 롤러코스터는 경사가 굉장히 심할 뿐 아니라



정점에서 3초간 멈췄다가 출발하여 굉장한 공포감을 주었다. 사람들이 타는 것을 보고 나는 겁을 많이 먹었지만 같이 타면 괜찮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타보니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았다. 오후에는 물배를 탔다. 한국 놀이공원에서의 물배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물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다. 그렇게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저녁에는 서커스를 보게 되었다. 한국에 있을 때도 서커스를 여러 번 봤었지만 여기서 본 서커스는 규모부터 달랐다. 다양한 동물들이 우스꽝스럽게 출연하여 춤

도 추었고 웅장한 군무도 볼 수 있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공연은 아기 곰이 무대 중앙에서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었다.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중국에서도 열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룽 놀이공원이 중국에서의 첫 번째 문화체험이었는데 굉장히 즐거운 하루였다.

무더운 날씨에 저질 체력으로 매일 보이던 숙소 앞 스포츠 센터에 갔다. 배드민턴, 탁구, 농구를 즐길 수 있었고, 운동을 즐기려면 카운터 직원과 대화하여 시간을 예약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카운터 직원과 말이 통하지 않아 난감했다. 하지만 천천히 배운 단어들을 되짚으며 휴대폰 검색을 이용해 소통하는데 성공 하였다. 비록 검색을 통해 이뤄냈지만 뿌듯했고, 그 때 힘겹게 찾은 단어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중국 내에서 인기 스포츠가 배드민턴, 탁구, 농구 이다. 친구들과 팀을 나눠 경기를 하니 몸이 좀 더 상쾌해 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농구를 했는데 한국의 국민 스포츠가 축구이고 일본의 국민 스포츠가 야구라면 중국의 국민 스포츠는 농구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어느 장소를 가든 농구 골대가 있었고, 거기엔 중국인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도 종종 친구들과 경기를 자주하지만 중국인들에겐 한참 부족한 실력이었다. 놀이공원과 스포츠 센터와 더불어 동물원, 동부화교성, 세계지창등 여러 문화체험을 하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문화들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체험이었다.



- 삼광동관법인 실습 -

한 달 동안의 정들었던 학교, 광저우를 떠나 (주)삼광 기업이 있는 동관으로 이동했다. 동관은 한국기업이 많은 도시 이지만 우리가 묵고 있는 시에강 쪽은 광저우에 비하면 고층 건물도 없는 시골이었다.

10월 28일 드디어 삼광동관법인에 첫 출근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단으로 들어가는 승합차를 탔다. 조용했던 도로는 출근하기 위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들로 가득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이 마냥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2공장으로 이동하여 간부님들에게 간단히 첫 소개를 했고, 덕담을 한마디씩 듣고 난 뒤 사무실에서 사원증을 발급 받았다. 사원증을 받고 가슴에 다는 순간 삼광 식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좋았다.

현장학습 기간 동안 회사생활과 계획을 설명 들었다. 파트별로 조를 정해 돌아가며 실습한다고 말씀하셨다. 이튿날부터 일주일간 신입사원 OJT를 받게 되었다. 첫째 날은 생산관리팀과 개발팀을 방문해 각 팀 부장님들과 미팅을 했다. 생산관리팀의 부장님은 젊은 나이에 부장자리에 오르셨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다음날 원기구매팀과 품질팀을 방문했다. 원기구매팀 부장님은 앞으로 신입사원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셨다. 품질팀은 전체적인 공정을 직접 보여 주시면서 설명해 주셨다. 셋째 날에는 영업팀을 방문했다. 영업팀 부장님 역시 젊으셨고 그는 중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마지막 OJT날에는 금형기술팀과 그 안에 속해 있는 생산 기술팀을 방문했다. 생산기술팀은 공정 자동화를 개발하고 보수하면서 인건비를 절감하여 회사의 이윤을 창출을 실현하는 부서이며, 금형기술팀은 사출실에서 고장 난 금형기계를 보수하고 이를 다시 설계, 보수, 개발하는 팀이다. 금형기술팀이 연구와 개발 다음에 공정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1월 4일부터 파트별로 실습을 시작했다. 첫 번째 파트는 '생산기술'파트였다. 생산기술은 자동화기계를 개발하고 보수함으로써 작업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하고 대량생산을 실시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부서이다. 자동화 기계 모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각 하는 일은 무엇

인지 등을 배웠다. 자동화 기계를 ‘JIG’라 하며, 사출실의 JIG들을 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선배들은 사출기계 한 대에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을 줄이고 자동화 기계를 이용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숙제를 내주셨다. 막상 숙제를 받았을 때에는 막연했지만 천천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실망했다. 하지만 경험하고 학습할수록 나 자신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 뿌듯했다. 이 후 조립라인에 있는 JIG들을 둘러보았다. 한국 본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조립 라인을 보게 되었고, 어느 공정에서 보다 JIG가 많이 쓰이는 곳이 조립이라고 한다. 카메라를 통해 불량을 찾아내고 센서가 작동해 바코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등 JIG의 종류가 다양했다. 두 번째로 사출에 대해 교육받았다. 다양한 종류의 사출기가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것이 매우 신기했다. 그리고 관리자가 여러 사출기를 관리해야하는데 기본적인 사출기 관리는 금형 상처와 하치가 있다. 사출기 주변의 부대장비에 대한 명칭을 파악하고 사출의 원리 등을 좀 더 알게 되었다. 세번째는 도장 파트에 대해 교육받았다. 처음엔 먼저 하지그를 결합하는 것을 보고 직접 실습했다. 보기보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져서 실수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증착하는 것을 보았다. 미세한 먼지까지도 잡기 위해 많은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 놀라웠고, 각각의 온도, 압력까지 설정해 줘야 하는 것이 신기했다. 네번째로 조립 실습을 했다. 멀티증착실에 가서 외관증착 조립을 했다. 지금까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일들을 했지만 도장 파트에서는 직접적인 생산 실습을 했다.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단순 실습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파트 업무였다. 마지막으로 금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금형을 상측과 하측으로 분리하고 볼트를 제거한 뒤 코어를 빼내어 세척액으로 세척했다. 금형부서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있었다. 밀링, 선반, 방전기, 와이어컷팅기 등 다양하고 어려운 코드로 제품을 생산해 냈다. 금형일을 배우면서 중국인 장인에게 실습을 배울 수 있었다. 중국어가 부족한 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함께 부딪히면서 수행하니 언어가 아닌 눈빛으로도 전달 받을 수 있어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 금형실습은 2주간 실시되었고, 2주째에는 영어에 능숙한 중국인 직원과 함께 일할 수 있었다. 궁금한 사항을 영어로 여쭙보면서 앞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작업하면서 이제는 내가 중국인 작업자들에게 꺼리감이나 어색함은 느낄 수 없었고,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처럼 느껴졌다. 중국인 작업자들과 함께 하트러너를 수리 작업을 했다. 수지를 녹여서 액체가 나오는 입구가 고체화되어 있어 토치로 녹여 제거하는 작업으로 금형을 분리, 조립, 이동하는 작업을 했다.

12월 13일 (주)삼광 동관법인의 마지막 출근 날이 되었다. 각 팀별 부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꼭 동관에서 함께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3. 현장학습 성공 노하우

중국 문화에 대한 사전교육 및 기본 지식도 없었던 나는 글로벌 현장실습을 시작 하였다. 중국 도착 후 문득 “한국에서 중국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알고 출발하였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간단한 영어단어조차 알아듣지 못했기에 물건을 살 때도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7명의 동료들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 중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 고생했던 일들로 한국에서의 집과 가족, 친구들을 생각나게 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 자신이 성숙해 졌다고 확신 한다.

4. 후배 참가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한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계획표를 통해 사전에 생활하는 장소와 인근 도시를 잘 파악했다면 본인의 행동에 제약이 적었을 것이며, 두려움이 덜 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치안이 취약한 나라인 것을 꼭 인지하여야 한다. 자신을 믿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활동하면 여러 위험 요소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개인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우리의 외형만 보아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다. 한 예로 한국인은 모자를 자주 쓰지만 중국인들은 모자를 쓴다는 것은 노동을 하는 천한 사람이라 여기기에 거의 쓰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자를 쓰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모자를 쓰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우리 단체에 위험을 줄 수 있으며, 그들에게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항상 한국을 대표하는 고등학생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조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창시절에서 가장 뜻 깊은 일이다. 기회를 잡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불안감을 떨쳐내고 함께 체험하는 친구들을 믿고 회사 업무에도 성실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5. 향후 프로그램을 위한 개선사항 제안

어느 상황에서든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중국에서의 유심 구매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중국도 2013년 9월부터 휴대폰 실명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이 우리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한국에서 통신에 대한 고려를 하여 출국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예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선생님을 보고 원활한 예산 사용이 허용되었으면 한다. 항상 영수증을 받아야 했기에 영수증을 제공하지 않는 가게에서는 구매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애초에 계획했던 홍콩 문화체험을 하지 못했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만큼 활동이 가능한 비자 발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긍정의 말 한마디와 수용의 자세

학교명 : 경북기계공고
부 서 : 금속가공과 교사
성 명 : 김대현

학년이 시작되어 2주가 지나도록 목소리 한번 듣지 못한 학생이 있었다. 교실의 가장 뒷자리를 차지한 지수는 얇은 미소로 답할 뿐 시시비비도 없고 호불호도 없는 무색무취의 투명함으로 주어진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학생이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완벽하게 처리하는 능력 있는 학생이 말 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4월이 지나 5월에서야 취업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다. 취업이 확정되면 글로벌 현장학습을 갈 수 있다는 말에도 여전히 얇은 미소로만 답했던 지수는 선발 후 심화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의 선택에 만족하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으로 떠나는 날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웅을 갔다.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지수의 말에 알 수 없는 의지가 배어 있었다. 현장학습 8명의 대표로 동료와 인솔교사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중국어 교육 및 글로벌 현장학습에 임하였다. 3개월 동안 간간이 카카오톡으로 중국의 현황을 전해주는 배려가 고마웠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믿음직스러웠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긴 설명보다는 긍정의 말 한마디와 수용의 자세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지수의 성격이고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제 사회의 첫발을 디디는 지수가 한국의 기능 기술인의 표상이 되기를 바라는 맘이 간절하다.

학생들의 대단한 열정

기업명 : ㈜삼광
부 서 : 총무팀
성 명 : 김태준

2014년 매출액 5500억을 달성하고자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근로자들의 부러움을 뒤로 한 채 무더위에도 영남대학교에서 심화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대견했습니다. 처음 접하는 중국어 교육은 기초였지만 모두가 벽차했습니다. 금형관련 수업들은 마이스터고의 역량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기본이 탄탄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중국 동관법인에서 세계 제일을 휴대폰케이스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금형, 설비, 사출, 조립의 공정을 현장에서 학습하고 실습하는 모습이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휴대폰케이스 생산 기술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인재임을 확신합니다. 글로벌 현장실습을 가장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는 사장님의 지시로 숙소와 교통 등 생활 부대시설을 지원하였으나 집 떠나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중국 현지의 여건이 치안의 사각지대여서 더욱 불편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인솔하신 김규성 선생님과 학생 대표인 김지수 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장려상작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3달, 12주, 85일, 2040시간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 과 : 글로벌관광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김서현

프롤로그

무더웠던 여름을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며 3개월 뒤 무한한 성장을 할 나에게...

내가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건 작년 가을 쯤 이었다.

“저희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현지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말레이시아 최대 기업인 Sunway 그룹 호텔에서 직접 인턴 실습을 하며...”

아침 조회시간 2012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교내 보고회를 하던 최명옥 선생님의 PT를 들으며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글로벌 관광과 2학년이었던 그 때에 내 꿈은 관광과 열혈 학생답게 국제적인 호텔리어가 되는 것 이었다. 전국 관광과에 재학 중 인 고등학생이라면 아마 그 중 절반은 호텔리어가 되는 게 꿈일 것이다. 나도 그랬고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랬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호텔리어에 대해 알고 배우는 건 한계가 있고 그 만큼 알려진 게 없다. 그렇게 꿈을 막연히 쫓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이 프로그램은 열정에 목말라 있던 나를 깨우는 알람 같은 존재가 되었다.

드디어 반년에 시간이 흐르고 조용히 감추고 있었던 내 꿈, 내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2013학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공고였고 모집 당일 누구보다 일찍 도착해 내 이름과 학번이 적힌 신청서를 냈다.

얼마 후 신청 학생들에게 면접 날짜와 시간이 주어졌고 물론 나도 그 명단에 들어있었다.

쟁쟁한 친구들, 전교 몇 등, 몇 등 친구들은 내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지만, 하루하루 영어 면접연습을 하고 미리 예상 질문을 만들어보며 자신감을 충전했다. 그리고 정말 꿈만 같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10명의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순간 그 기분은 말로 다 할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내 영어실력은 도저히 하늘에 닿을 수가 없었다.

사실 나는 교내에서 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여해 중국

삼천에 갔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 동안 영어 공부를 많이 쉰 까닭이었을까? 영어는 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 진 기분이었다.



(좌- 자율학습 하는 달라진 우리들, 우- 금융박물관 견학 즐거운 한 때)

9명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기나긴 영어공부, 평일에는 0교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하며 집중적으로 영어 실력을 늘렸고, 주말에는 재미있게 팝송으로 영어를 배워보기도 하며 즐거운 놀이로 영어를 배웠다. 사실 내게 어느 쪽 수업이 더 나오냐 물어보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평일 수업은 내 영어 실력을 늘려주었고 주말 수업은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영어는 어렵지 않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는 영어 수업만 하지 않고 10명의 팀워크를 키우기 위해 같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금융, 사무 분야로 실습을 하러 가는 것에 대비해 금융투어와 직무교육을 받는 등 만만에 준비를 하였다.

2013년 8월 2일 날씨 맑음 그리고 내 마음도 맑음!

밤잠을 설쳐 새벽에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하는데 하며 잠이 들었다.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고 학교에 모인 친구들과 부모님과 우리 엄마에게 뜨거운 안녕을 하고 섭섭하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는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여행으로 들뜬 사람들 그리고 우리 10명이 있었다. 6시간의 비행 후 색다른 공기, 새로운 사람들과 이제 3개월을 지내야한다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로 인해 이 3개월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듯이 이 3개월이 나에게 보약이 될 수 있게 지내고 싶다.



(좌- 우리를 무사히 데려다 준 대한항공기, 우- 맛있는 기내식)

2013년 8월 5일 날씨 맑음 그리고 첫 설레는 첫 등교!

말레이시아에 온지도 벌써 3일이 지났고 Sunway University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등교를 하게 되었다. 우리를 1개월 동안 행복하게 가르쳐 주실 분은 Grace Long 선생님이시고 우리가 받게 될 수업은 Sunway University Finance, Accounting Business 직무연수 과정으로 직무에 필요한 기본 영어회화와 영어 문법을 배우고 또한 간단한 회계와 금융 분야 용어들을 배우게 되었다. 영어로는 처음 배우는 회계, 금융일반 과목이니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은 첫 수업이어서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하였다. 미리미리 공부해 둘 걸... 지금 후회해도 늦었음을 느꼈다.

2013년 8월 9일 날씨 맑음 그리고 말레이시아 기념일 라마단!

오늘은 말레이시아에서 맞는 첫 번째 맞는 명절 라마단 기간으로 무슬림들의 기념일이다.

말레이시아는 3개의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인데 오늘은 말레이계 사람들의 명절이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계와 인도계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은 문을 열었지만 말레이계 사람들이 하는 식당은 전부 문을 닫았고 길거리에 모든 무슬림들이 평소 입지 않는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모습도 종종 보게 되었다. 또한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진짜 여기가 말레이시아구나...’ 라는 실감도 나면서 새로웠다.

2013년 8월 11일 날씨 비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우리가 인턴을 하게 될 SunwayGroup에 우리의 이력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갔다. 역시 한국에서나 여기에서나 어려운건 마찬가지였다. 처음 내 고민은 ‘1분 정도 되는 자기소개를 어떻게 독특하게 할까?’였는데 학교에서도 기숙사에서도 틈틈이 쓰고 여러 번 고친 내 1분 자기소개를 일기에 써본다.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나중에 일기를 읽을 때면 뿌듯한 날이 오리라!

Hello everyone i'm Seo-Hyeon just call me Lesley in English

When I was second grade I had a chance to learn to Accounting at the time it was interesting and I enjoyed it so I want to become an international fiance expert. In order to do that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ster English.

That's why? I usually enjoy watching American and England drama or movies.

My favorite drama is Doctor who starring Matt Smith. I love it so much and I have watched that drama series more than 10 times. Anyway I really hope to come to here now I'm in Malaysia and I will study English hard for 3months to improve my English skills.

2013년 8월 13일 날씨 흐림 그리고 재미있는 3분 스피치 With Teacher Grace.

오늘 Grace 선생님과 재미있는 3분 스피치 발표를 하게 되었다.

Grace T : What do you think about in Malaysia

라는 질문을 받았고 나는 먼저 대본을 만들어 연습을 한 번 해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였다 처음에는 남들 앞에서 영어로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떨리고 긴장하였지만 무사히 발표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계속 영어로 Speaking 연습도 하고 매일매일 회화를 하니 영어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다.



(좌- Grace 선생님과 함께 했던 영어수업, 우- 학교 도서관에서 한 컷~)

2013년 8월 15일 광복절 말레이시아 날씨도 좋고 한국 날씨도 좋음!

오늘 한국은 광복절 이였다. 우리는 Sunway University Students Hall에서 퍼포먼스를 하였는데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평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하였던 전액 고아원 수익금으로 쓰일 직접 만든 클레이 펜과, 자를 1층에서 팔고 나머지는 미리 준비해간 유관순 복장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 싸이의 강남스타일, 젤틀맨 노래에 맞춰서 플래시몹을 하였다. 감사하게도 많은 교수님과 학생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강남스타일 후렴구를 따라 부르고, 어떤 학생들은 같이 춤을 추면서 그 순간만큼은 언어도 국적도 다 다르지만 노래로, 춤으로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고나 할까나?



(좌- 광복절 홍보, 우- 독도는 우리 땅 퍼포먼스)

2013년 8월 16일 날씨 햇빛 짹짹 그리고 결전의 순간...

2주 동안 밤새며, 밥 먹는 시간 쪼개가며 열심히 준비한 면접날이 되었다. 두근거리는 마음과 긴장 된 마음을 한껏 가지고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역시 말레이시아 최대 5성급 호텔답게 세련된 로비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로비를 보며 나도 여기서 실습을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떨리는 마음으로 HR(인사부)에서 내 면접 순서를 기다렸다 앞에서 3번째 순서에 배정 받은 나는 그 동안 연습한 대답과 질문들을 다시 한 번 떠올리며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당당히 들어갔다. 그곳에는 인사 담당 Ms. Rani 와 Sunway 대학교에서 우리를 care해주는 Ms. Lim께서 함께 계셨다. 내 1분 자기소개와 직무와 연관된 질문도 받고 대답하며 처음에는 분위기에 긴장해 작아져 있었지만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는 그냥 준비한 만큼 열심히 즐기자! 라는 마음을 먹으며 즐겁게 인터뷰를 했다. 나와 우리 10명 모두 이 호텔 좋은 부서에 꼭 배정받아서 열심히 일 하고 싶다.

오늘의 한마디: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 모두들 화이팅!



(좌- Sunway Hotel에 전경, 우- Sunway Hotel에서의 우리들)

2013년 8월 17일 날씨 엄청 좋음 그리고 즐거운 문화체험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토요일을 맞아 KLCC와 Batu Cave를 갔다. Batu Cave의 Batu는 말레이시아 말로 돌이라는 뜻이고, Cave는 영어로 동굴이라는 뜻이다. 그곳은 약 270개로 이루어진 계단이 동굴 쪽으로 뻗어있는데 힌두교 교인들이 그 밑에 있는 사원에서 기도를 드린 뒤 받칠 제물을 가지고 맨 발로 계단을 오르는 일종의 종교적인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이다. 그곳에 있는 270개의 계단이 3개가 있는데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고 계단이 270개 인 이유는 인간이 살면서 짓는 죄의 수가 270개라서 라고 한다. 유명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도 많았고 계단 위 동굴에는 많은 힌두교 교인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힌두교의 대해 더 알고 싶어지고 궁금했던 하루였다.

KLCC는 말레이시아의 상징물로 Petronas Twin Tower라고도 한다. 한쪽은 일본이 다른 한쪽은 우리나라가 만들었다. 길에는 화려하고 깔끔하게 꾸며진 분수와 정원이 있었고, 안에는 여러 유명한 브랜드 가게들이 있었다. 정말 우리나라 타임 스퀘어 같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장난감 가게였는데 우리나라 가게와는 다르게 직접 하나하나 체험해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날 이 저녁이라 공항에서 숙소로 올 때 밖에 풍경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차로 이동하여 동네 풍경도 보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실감이 났다.



(좌- Batu Cave 힌두교 신, 계단 앞에서 / 우- KLCC앞에서)

2013년 8월 18일 날씨 여전히 맑음, 가끔 번개 그리고 국립과학박물관 견학

오늘은 일주일 전부터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국립과학박물관 견학이다. 한국에서도 박물관 구경하는 걸 취미로 여길 만큼 여러 박물관을 가보았지만 국외박물관은 이 ‘National Science Museum’이 처음이다.

그곳 입구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유리 바닥에 붙어서 우리를 환영 해주고 있었다. 안쪽에는 여러 종류의 과학기구들이 있었는데 나이별로, 단계별로 체계적이게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 박물관에서 제일 감명 깊게 느낀 것은 해골모양 신체 인형도 아니었고, 여러 기상관측 기구도 아니었다. 여기서 가장 감명 깊게 느낀 것은 이 박물관의 모든 기구들이 우리가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 볼 수 있고, 체험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많은 박물관을 다녀보았지만 여기처럼 모든 기구를 만져보고 직접 조종을 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기구를 체험하며 진정으로 박물관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경험을 느낀다. 또한 많은 기구들을 관람객들이 만지지만 회손 되거나 도난당한 것들이 없는 것을 보고 ‘아! 이런 것이 진정한 세계 시민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좌- 마중나온 물고기들, 우- 여러 가지 체험 중~)

2013년 8월 21일 날씨 맑음 그리고 비즈니스 영어 수업!

비즈니스 영어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본과 여러 가지 호텔 업무에 관련된 대화를 계속 연습하고 Grace 선생님이 영어 발음에 대해 주의주시고 세세히 가르쳐주시니까 영어를 읽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후에 인턴십을 할 때 이 연습하고 배웠던 것들을 실천해서 훌륭하게 해내고 싶다.

처음에는 영어를 읽고 한 줄에 문장도 수월하게 다 맞춰 읽는 것이 어려웠다. 특히 의문문이나 질문에 끝을 평서문처럼 읽던 내가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을 느끼며 이제 Grace와 함께하는 영어 수업이 기다려진다.

2013년 8월 23일 날씨 맑음 그리고 ‘희망’ 더하기 ‘사랑’의 봉사활동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만들었던 클레이와 Sunway Pyramid에 들려 산 아이들 줄 간식과 광복절 퍼포먼스 수익금을 가지고 Subag-Jaya 근처에 있는 Orphanage(고아원)에 봉사활동을 갔다. 처음 봉사활동을 갈 때에는 그저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오면 되겠지 라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막상 고아원에 도착하니 아이들과 같이 클레이로 장난감을 만들고, 한국에서 가져 온 과자도 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도 하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 나도 즐겁고 그 아이들도 즐겁고 서로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고아원 봉사를 했었지만 그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은 확연히 달랐다. 언어는 다르지만 함께 놀며, 이야기하며 내가 느낀 행복한 마음을 그 아이들도 느꼈을 것이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 한국에 가기 전 이 곳에 한 번 더 방문하여 뜻 깊은 시간을 만들고 싶다.



(좌- 아이들과 단체사진, 우- 조슈아와 함께)

2013년 8월 30일 날씨 흐리다가 맑아짐 그리고 졸업 PT와 마지막수업

일주일 내내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해 졸업 PPT를 만들었다. 우리 조는 나 유림, 진옥, 진주, 우진이와 함께 하였는데 서로서로 분담하여 PT와 동영상을 만들고 대본을 만들어 발표 준비를 끝내고 두 번에 사전 연습 후에 오후에 있을 졸업식 발표를 기다렸다. 오전에는 Grace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이 있었다. 다들 마지막이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게 대답도하고 더 즐겁게 수업에 임했다.

마지막 수업은 pop song을 듣고 가사를 쓰는 듣기수업을 하였는데 자꾸 마지막이라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심 먹고 시작 할 졸업 pt가 매우 기대된다. 하시며 우리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졸업 발표는 크게 몇 가지 주제로 나눠 한 명씩 발표를 하였는데 나는 그 중 문화체험 슬라이드를 맡아 그 동안 내가 문화체험 한 KLCC, Batu Cave, 초콜릿팩토리, 국립과학박물관 등 여러 곳에서 체험한 것과 느낌을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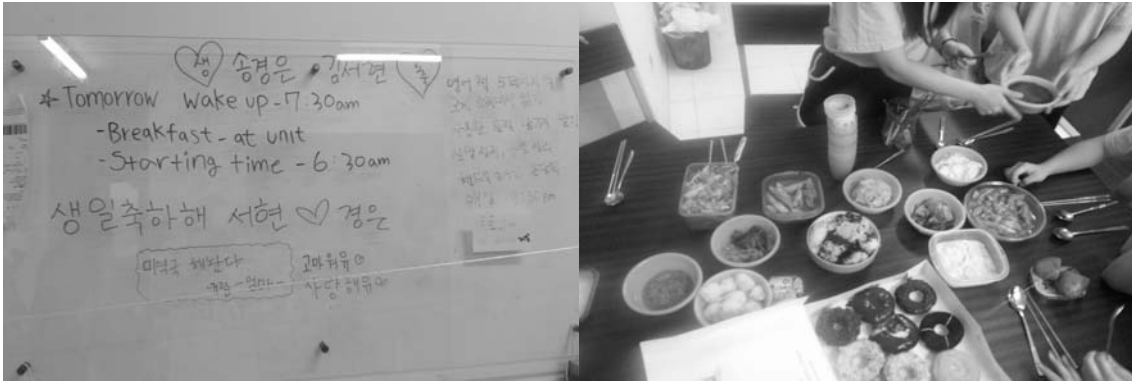
성공적인 발표가 끝난 뒤에는 졸업파티를 했는데 그때 우리 GG가 준비한 선물을 Grace 선생님께 드리니 선생님께서도 헤어지기 섭섭해 하셨다. 결국 마지막에는 눈물의 파티가 되었지만 한국과 6시간이나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또 그 인연을 이어나가는 것이 멋지기도 하면서 헤어질 생각에 씩씩하기도 했다.



(좌- Grace 선생님과 마지막 수업, 우- 내가 준비한 편지)

2013년 9월 2일 날씨 선선함 그리고 첫 출근

한달간에 즐거웠던 대학교 수업 과정이 끝나고 9월 2일 드디어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우리 G.G(Global Girl's)들은 Sunway Group 각 부서에 배치가 되기 전에 3일간 정규직원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게 되었다. 오늘은 첫째 날 이어서 그런지 조를 나누고 서로 알아 가는 시간도 가지며 Sunway 그룹에 대해 그리고 호텔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호텔 견학까지 하였다. Sunway Hotel은 5성 급 호텔로 총 객실 수가 1,234인 대형 호텔이다. 또한 PT-피라미드 타워와 MT-메인타워로 구성이 되어있고 나와 내 친구들이 일하는 곳은 MT이다. 그렇게 차근차근 배우며 첫 날 오리엔테이션을 끝내고 집에 왔더니 오늘이 생일인 나와 경은이를 위해 친구들이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해 놓고 있었다. 타지에서 맞는 생일이라 나도 경은이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막상 회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느라 분명 힘들었을 친구들이 고생해 차린 생일상을 보고 울고야 말았다. 이제 앞으로 2개월 이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우리 10명이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좌- 친구들이 준비한생일 파티, 우- 생일맞이 한국음식 들~)

2013년 9월 4일 날씨 맑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오늘 오전에 한 오리엔테이션은 나에게 거의 문화충격에 가까웠다. 오전에 각 부서의 헤드들이 강당에 오셔서 같이 얼굴도 익히고 간단하게 아침 같이 간식을 먹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식 회사 방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순간이었다. 오전 10시 쯤 각 부서의 헤드들 또는 매니저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기소개를 하셨다. 그것도 아주 유쾌하고 쾌활한 분위기에서 말이다. 그 후에는 정말 영화에서 보는 파티에 한 장면처럼 밖에 따로 마련되어있는 뷔페에 가 음식을 덜어먹으며 그 분들과 자연스럽게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인턴이라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해주셨다. 너무나 정확한 발음이라 놀랐더니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고 하셨다. 이렇게 한류의 힘에 한번 놀라고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Front Office 헤드분이 한국인이어서 한 번 더 놀랐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그만 실수나 예의에 어긋나게 하면 그게 바로 한국에 이미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과 열심히 해서 한국인에 좋은 면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13년 9월 5일 날씨 맑음 그리고 부서 배치의 날!

내가 이제부터 두 달간 일하게 될 부서는 Sunway Group Main Office Financial Department 즉 금융 분야이다. 처음 HR(인사부) 부서의 Ezzy를 따라서 오피스에 들어갔을 때 Cheena라는 take order 분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Take order는 호텔에 모든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자로 객실을 치우는 명령을 담당하거나, 호텔 어느 부서에서 물품이 떨어졌을 때 Take order의 주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호텔의 모든 업무가 돌아간다.

처음에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와 Room Checking 후 돌아오는 keeper들 때문에 우리 부서가 이 호텔에서 가장 바쁜 부서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맨 처음으로 배운 일은 Take order 일이었다. Cheena가 임심을 한 상태여서 자주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사무직 업무를 보다가 잠깐 잠깐 도와주기 위해 일을 배웠는데 볼 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전화가 쉬지 않고 두 대 연속으로 울리니 받기도 전에 끊어져 버리는 등 너무 난감하였다. 그

래도 가까스로 Cheena의 도움을 받아 몇 통 받았고 무사히 주문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지만 내일은 꼭 멋지게 전화를 받기를 하고 싶다.



(출근길 / 전화받는 나)

2013년 9월 11일 날씨 비, 번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내가 말레이시아에 온지도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지났다. 오늘은 내가 매일 길거리에서 계속 보았던 베일을 쓴 여성들에 대해 궁금해져서 잠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색을 해보았다. 우리가 흔히 말레이시아에서 보는 ‘히잡’은 말레이시아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로 착용하는 것이고 색이 다양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정색으로 가리고 눈까지 망사로 가리는 사람들은 주로 아프카니스탄 사람들 이고 그것을 부르카라고 부른다. 또한 눈을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것은 니캅이라고 한다. 주로 파키스탄과 예멘 사람들이 사용한다. 또한 Sunway Hotel 투숙객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얼굴을 제외하고 전신을 가리는 옷은 차도르라고 부른다. 주로 이란에서 많이 착용한다.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베일을 쓴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이 다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를 넘어서 말레이시아는 진정한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음식도 고유의 음식이 있지만 서양음식이 섞이고 여러 민족의 음식이 섞여서 지금의 고유의 말레이음식이 생겨 난게 아닐까?



(회사분들과 즐거운 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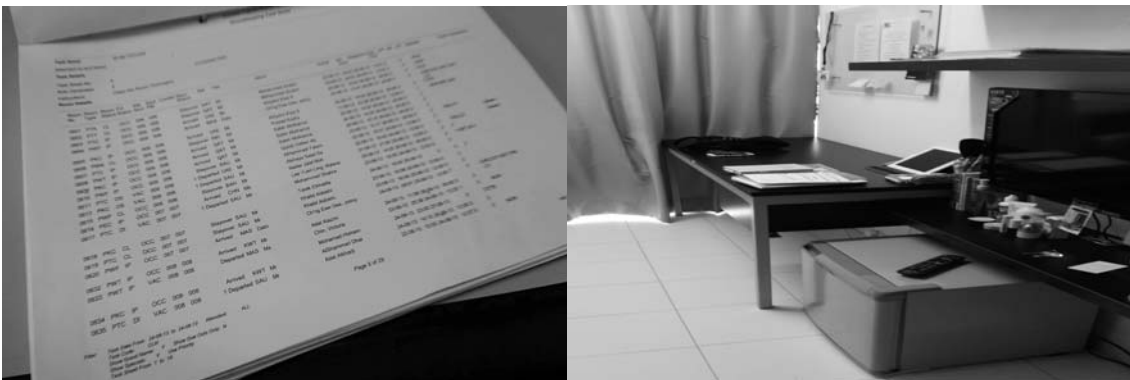
2013년 9월 12일 날씨 비, 번개 그리고 연습의 중요성

오늘은 Ms. Maria에게 새로운 일을 배웠다. 슈퍼바이저들과 하우스키퍼들이 고객들에게 받은 Market Matrix를 엑셀에 정리하는 일을 배웠다 Market Matrix란 룸에 투숙하였던 게스트들이 호텔에서 느낀 감정, 개선점들을 메일로 보낸 서류인데 우리 부서와 관련된 항목은 친절함, 청결상채, 욕실상태를 묻는 질문이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 날 그 룸을 청소한 keeper들과 슈퍼바이저들 명단을 조사해 통계를 낸 다음 개수를 세 Market Matrix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였지만 나중에는 따로 정리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100타 조금 안되던 영어타자 실력이 실습 일주일 만에 급속도로 늘어서 지금은 수월하게 타자를 칠 수 있어졌다. 역시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니까 느는 것이 눈에 보인다.

2013년 9월 15일 날씨 맑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씨

일주일에 한번 다 같이 유닛을 청소하는 날이 되었다. 우리가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누구는 방 정리를 하고 누구는 욕실 정리를 하고 누구는 거실과 부엌 정리를 하며 서로서로 먼저 끝나면 도와주고 미처 청소하지 못한 방이 있으면 해주는 등 두 달간 지내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가고 친해지는 만큼 배려해주는 것 같아 앞으로의 한 달도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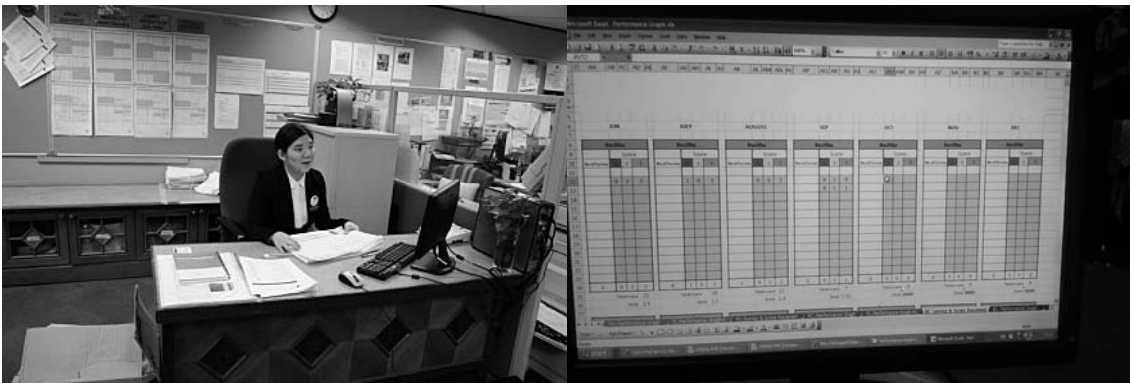
청소가 끝난 후에는 제니 선생님께서 말레이시아 전통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신 local food와 과일을 먹었다. 그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은 중국식 만두에 매콤한 소스를 무친 무가 들어있는 것이었는데 중국식이지만 우리 입맛에도 적격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헤라가 만든 수제 떡볶이 까지 오랜만에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집도 청소하고 모처럼의 휴일을 알뜰하게 보냈다. 이제 한국은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인데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도 뜻 깊은 것 같다.



(좌- Market Matrix 명단 정리, 우- 청소 후 깔끔해 진 숙소)

2013년 9월 17일 날씨 맑음 그리고 새로운 업무의 시작

처음 Mr. Fahmi에게 받은 슈퍼바이저들의 8월 한 달 동안의 일지를 정리하고 엑셀에 도표를 만들었는데 오늘의서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새 일을 받았다. 여러 번 비슷한 내용으로 실습을 하다 보니 오늘 배운 내용도 약간의 VOC, OCC에 관련된 일이었다. 슈퍼바이저들의 데일리 리포트에서 DND와 RS를 정리 후 바로 통계를 낼 것이다. 한 번 해본 것이 익숙한 것처럼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여 쉽게 할 수 있었다. 역시 미리 연습하고 지난번에 Ms. Maria에게 받은 유인물을 공부한 보람이 있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으로 누구나 원하는 인턴이 돼야겠다.



(좌- 슈퍼바이저 데일리 리포트 Checking, 우- 8월 통계 마무리)

2013년 9월 29일 날씨 햇빛 짹짹 그리고 시티투어

설 틈 없이 인턴생활을 하던 우리들에게 오늘은 꿀 맛 같은 휴식의 날 이였다. 바로 쿠알라룸푸르 시티투어의 날이다. 아침부터 어딜 가나 튀게 해주는 단체복을 입고 KL Centre로 가는 셔틀버스를 탔다. 창 밖에 보이는 전통 집들과 야자수를 지나 도착한 Centre! 우리는 Centre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KL 시내투어를 했다. 말레이시아 곳곳을 버스를 타고 그것도 이층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은 그 동안에 업무 피로를 전부 날려주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National palace(왕궁)이었다. 파란 하늘과 흰 색과 금색으로 이루어진 왕궁 외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말레이시아는 입헌군주제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국왕이 존재하고 실제로 저 담장 넘어 왕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또한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Independence Square에 가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기 계양대를 보았다.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식민 지배를 겪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독립을 하였고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KL 시티투어는 쿠알라룸푸르 곳곳을 여행하며 말레이시아에 역사도 알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 다른 점도 찾는 게 장점이고 매력적이었다. 또한 쿠알라룸푸르 도시 안에 위치한

대형 Lake Garden(사슴정원)도 갔는데 그곳은 우리나라 여의도 공원처럼 도심 안에 있는 작은 휴양지였다. 이곳에서 많은 말레이시아 부부들이 결혼사진을 찍고 야외 결혼을 한다고 하였다. 비록 사슴과 신혼부부는 보지 못 했지만, 푸른 나무들과 식물을 보면서 생각 정리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3년 10월 1일 날씨 맑음 그리고 10월의 시작

별써 10월이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업무를 봤던 하루였다. 아침에 있던 미팅을 끝내고 9월 달 서류 파일링을 하러갔다. 매주하는 파일정리라서 쉽게 생각했는데 9월을 정리하고 10월 달로 넘어가는 달이여서 그런지 정리되어있지 않은 서류들이 많이 있어서 날짜 별로 시간별로 정리하고 견출지에 다시 이름을 쓰느라 시간이 꽤 지나갔다. 쉬운 파일링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쉽고 간단하게 보여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고 부지런히 해야겠다.

2013년 10월 5일 날씨 흐림 그리고 시네마 체험하기

처음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고 본 영화는 생각 외로 재미있고 신났다. 친구들과 함께 보니 서로 못 들은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면서 본 영화는 러닝타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내가 영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다. 따른 곳으로 문화체험 가는 것

도 좋지만 가끔씩 기숙사에서 가까운 피라미드에서 영화도 보면서 듣기 실력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3년 10월 15일 날씨 뇌우 그리고 Hari Raya Haji 공휴일

이슬람 최대 명절 Hari Raya Haji를 맞이해서 회사도 쉬게 되었다. Hari Raya Haji란 Hari Raya Puasa로부터 70일 정도지난 날로 흔히 Festival Of Sacrifice (희생의 축제)라 한다. 말레이시아에 있으면서 총 3 세 번의 명절을 지냈는데 첫 번째는 라마단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계들이 지내는 추석과 무슬림들이 지내는 이 Hari Raya Haji였다. 각기 다른 민족의 명절을 지내면서 어릴 적부터 여러 문화를 접하고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했다.

2013년 10월 19일 날씨 뇌우 그리고 Sunway Pyramid 쇼핑

Sunway Pyramid에 쇼핑을 갔다 이곳은 말레이시아 최대의 종합 쇼핑몰로 말레이시아에 하나 뿐인 아이스링크장과 최대 규모의 볼링장 그리고 몇 백 개의 명품 상점들이 있다. 그 중 내가 제일 애용하는 곳은 일층에 있는 AEON이라는 마켓인데 우리나라 이마트처럼 생필품도 팔고 식료품도 파는 곳이다. 이곳에 지난 3달 동안 격주에 한번 씩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사고 간식거리도 사고 자주 다녔는데 특히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Local food를 싼 값에 깨끗하게 팔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종교 문화를 존중해 치킨이 주식이어서 그런지 여러 조리법으로 만든 닭요리가 많았다.



(좌- 탄두리, 우- 아이스링크장)

2013년 10월 24일 날씨 맑음 그리고 뜨거운 안녕...

2달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8시 30분에 도착하던 회사,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다. 아침부터 만난 많은 회사 사람들은 나에게 잘 돌아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꼭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씀 해 주셨다. 하우스키핑 헤드 Ms. Audrey께서는 어딜 가든 잘하고 앞

으로 네가 많이 그럴 을 거라고 하셨다. 두 달 동안 함께 일하면 나를 챙겨주던 Cheena, Intra, Rosni도 나에게 일을 가르쳐 주신 Mr. Fahmi, Mr. Shamsul, Ms. Maria도 많이 그리울 것이다.

마지막 출근이라 그런지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업무를 보고 내가 틈틈이 만든 클레이를 드리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를 드렸다. 그 분들도 내게 이별선물을 주시며 고생했다고 네가 없으면 사무실이 심심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2개월 동안 많이 부족하고 영어도 서투른 나에게 먼저 도와주시고 잘해주신 House Keeping 전 직원 분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든 클레이 팬들/ 상사분들과 단체사진/ Cheena언니의 웃는 모습)

2013년 10월 26일 날씨 마지막 까지 좋음 그리고 마지막...

돌이켜보면 힘든 날은 많았지만 포기한 적은 없던 3개월, 내 인생 19년 중에 셀 수 없이 많은 좌절과 포기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이 깨어나기라도 한 듯이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인턴생활도, 단체생활도 어느 것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3개월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 다면 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3개월은 짧은 시간도 긴 시간도 아닌 누군가의 열정이 깨어나고 습관이 변화되는 마법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돌아가는 한국에서도 이 변함없는 열정으로 취업도 하고 아직까지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가 있다면 내 열정을 나눠주며 당당히 말하고 싶다. 너의 잠자는 열정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깨우자고!

에필로그

내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3개월, 12주, 85일, 2040시간, 잊지 못 할 많은 기억들을 되돌아보며 처음에는 막연히 그리운 한국으로, 보고 싶은 가족에게 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이 만난 사람들, 일상에서 배우는 생활문화와 기업예절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며 서로 다독여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었기에 언제부턴가는 하루하루가 아쉽고 빠르게만

지나갔다. 아쉬운 마음을 한껏 가지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으로 가는 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보다 기대되는 건 나를 반기고 있는 내 새로워진 일상 일 것이다.

Terima kasih (Thank you)



큰 가르침을 준 딸들의 도전

학교명 :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학 과 : 글로벌관광과
 성 명 : 정매재(김서현 모)

처음 딸아이가 '2013년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가하고 싶다'고 할 때, 문득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낯선 곳에서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공정하고 목적에 맞는 인재를 엄정하게 선발하는 것을 보고 프로그램에 신뢰감을 갖고 늘 딸아이를 위해 열심히 응원하였습니다. 기회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서현이를 보며 제가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늘 넓은 세계에서 꿈을 크게 키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부터 그런 자신감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 없이 학교자체의 체계적인 외국어프로그램이 있어 영어는 많이 준비되어 걱정하지 않았지만, 인간관계에 매우 부족함이 많은데 학교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며, 이를 통하여 출국 후 3개월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아주 큰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서현이와 연락하며 자세한 소식을 들으며 현지에서 담당교사와 늘 진로에 대한 상담과 함께 잘 관리해 주는 철저한 운영에 놀랐고,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딸아이가 변화가 되었지만 제 자신도 도전하는 것, 자신감 갖는 것, 그렇게 마음이 강한 엄마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현이는 현재 IT 소프트웨어 벤처회사에서 근무하며 해외와 연결된 업무가 많아 글로벌 현장학습의 힘으로 국제적인 업무를 수월히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분들 그리고 학교의 담당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업명 : Sunway Group
 부 서 :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r
 성 명 : Lim Fung Ching

Sunway Group is one of the top property developers in Malaysia. Sunway Group enjoys the reputation as a formidable multinational conglomerate under the category of property construction in Malaysia. With a vision of becoming the region's leading property-construction group, we constantly innovate to deliver value, build synergistic and sustainable relationships and achieve the highest standards of quality and excellence. It is accorded due to its extensive portfolio of successful and award-winning residential, hospitality, retail, leisure and commercial properties in Malaysia and abroad. Out of Malaysia, we spread our wings to China, India, Cambodia, Vietnam and Singapore. In 2013, it further expanded its portfolio through the acquisition of 691 acres of land in Medini Iskandar. This reflects undeviating focus and relentless effort in innovation and customer-centric master community developer.

장려상작

My Dream!



학교명 : 한국경마축산고

학 과 : 마필축산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임진솔

학교명 : 한국경마축산고

학 과 : 마필축산과

학 년 : 3학년

성 명 : 정하영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2013년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해외 인턴쉽UCC**



진솔이! 장하다!

학교명 : 한국경마축산고
부 서 : 말산업과 교사
성 명 : 우정화

진솔이는 입학 할 때부터 장래희망이 기수였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학교생활 하던 학생이었다. 하지만 3학년이 되면서 체구가 커져서 기수가 될 수 있는 체격조건에 많이 벗어나 좌절감에 빠진 진솔이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에 참여해 보라는 권유를 했었는데, 말산업 선진국의 말문화를 체험한 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보겠다며 참여했다. 사전교육 시 영어가 많이 부족해서 매일 늦은 밤까지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였으며, 서울경마장 실무교육도 열심히 참여하여 경마장 관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현장학습 호주 해외 과건 교육 시 효과를 나타냈다. 처음부터 영어가 부족한 학생이어서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는 않았으나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게 되었다. Racing Queensland 직무교육도 열심히 참여하여 Track Rider 라이선스를 취득하였으며, Brisbane Racing Club 현장실습 시에도 관계자들이 현지 취업을 적극 권유 하였으나, 국내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 싫어서 국내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마침 한국마사회 승마아카데미에서 승마지도사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는 한국마사회 승마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교육 종료 후 국내 승마장에 취업하여 한국의 말문화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인재로 커 나아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솔이의 발전과정은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주어졌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런 기회를 주신 교육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About a girl with courteous nature and work ethic

기업명 : Brisbane Racing Club
부 서 : Racecourse Manager
성 명 : Bill Shuck

It was an absolute pleasure to have these very impressive young Lady at our property for a period of approximately 8weeks recently. Whilst with us they were involved in every aspect of the business associated with Thoroughbred Pre Training, Breaking and Spelling as well as property maintenance. Wink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ride some Pre Trainers and in that he performed very well and learned quickly with his track work riding improving significantly to a high level. She showed a level of initiative and enthusiasm well beyond our expectations. Wink did everything that was asked of her and participated well showing a keen interest in Farrier work. Her command of the English language we suspect however made it a little more difficult for her. All in all we found their visit to be very enjoyable and rewarding for us and we feel that the girl were happy to have had the experience.

We were unbelievably impressed with her courteous nature and work ethic.

We wish them both well in their future endeavours.

Yours Truly

꿈의 세계무대를 향한 두드림

- 발행연월일 2014년 3월 19일
- 발행인 박영범
- 연 은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인쇄처 승림디엔씨 (02)2271-2581

* 이 책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